



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혁신모델 개발 연구



목차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과 목적	2
2. 범위와 방법	6
3. 연구의 특징과 성과	7
제2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에 관한 정책 및 문헌 분석	9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의	10
2. 자원봉사 정책의 제도적 기반	12
3. 자원봉사 정책의 운영 체계	14
4. 자원봉사 관련 연구 동향	17
5. 자원봉사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9
제3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의 모델 사례	23
제4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자원봉사 역량 분석	33
1.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34
2. 자원봉사와 연계 주요 사업 검토	51
제5장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공간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	73
1.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공간 분석	74
2.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조사 및 분석	85
제6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이해관계자 FGI	97
1. 조사의 설계	98
2. 자원봉사 이해관계자 FGI의 주요내용	101

제7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자원봉사 모델 개발	125
1.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의 필요성	126
2.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방향과 전략	133
3.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제안 과제	138
참고문헌	171
부록	175

표 목차

[표 2-1]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비교	13
[표 2-2] 시·도별 광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16
[표 2-3] 중앙정부 자원봉사 주요 기관 운영현황	16
[표 4-1] 정부 주요부처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내용	34
[표 4-2] 전북 완주군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사례	52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지역개발사업 개요	55
[표 4-4] 시도별 사회적농장 현황(2023년 현재)	57
[표 4-5] 지역별, 연도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60
[표 4-6] 뉴딜300사업 집행계획과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61
[표 4-7]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65개소)	62
[표 4-8] 어촌신활력증진사업 OO생활권역 운영계획서와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65
[표 4-9]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66
[표 4-10]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66
[표 4-11]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 예시 및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	67
[표 4-1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자원봉사의 사례	70
[표 4-13]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성	71
[표 5-1] 조사응답 현황	85
[표 5-2]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85
[표 5-3]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 사업의 주요내용	88
[표 5-4]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 사업의 주요내용	91
[표 6-1] FGI 일시 및 참석자 명단	99
[표 6-2] 지방 자원봉사센터 대상 FGI의 주요 결과(요약)	123

그림 차례

〈그림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2
〈그림 1-2〉 최근 5년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	3
〈그림 1-3〉 본 연구의 목적과 기본 방향	4
〈그림 1-4〉 관계망 확대를 통한 자원조사 역량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안)	5
〈그림 2-1〉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 전달체계	15
〈그림 2-2〉 최근 5년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	17
〈그림 2-3〉 관계인구 개념도	21
〈그림 3-1〉 WWOOF 네트워크에 가입된 호스트 농장 분포	24
〈그림 3-2〉 유기 농업 농장에서 작물 수확하는 WWOOF 자원 봉사자들	25
〈그림 3-3〉 WWOOF 네트워크에 가입된 호스트 농장의 위치 검색 시스템 (북미지역)	25
〈그림 3-4〉 코베 대학 지역연휴추진실의 활동 성과	29
〈그림 3-5〉 미래 창조 SDGs 대화회(2020년)	31
〈그림 3-6〉 혁신 여름 프로그램(2022년)	31
〈그림 4-1〉 정부 주요부처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34
〈그림 4-2〉 현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기조	53
〈그림 4-3〉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54
〈그림 4-4〉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59
〈그림 4-5〉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	63
〈그림 5-1〉 자원봉사 참여인원 분포	74
〈그림 5-2〉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75
〈그림 5-3〉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력 성비	77
〈그림 5-4〉 인구감소지역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력 성비	78
〈그림 5-5〉 연령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79
〈그림 5-6〉 인구감소지역 연령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80
〈그림 5-7〉 연령별 자원봉사 성비 차이	81
〈그림 5-8〉 인구감소지역 연령별 자원봉사 성비 차이	82
〈그림 5-9〉 지원 인력 현황	83

〈그림 5-10〉 인구감소지역 지원인력 현황	84
〈그림 5-11〉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당면한 문제	86
〈그림 5-12〉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사업의 응답에 관한 단어 구름	87
〈그림 5-13〉 지역 자원봉사센터 직접 추진 및 협업 사업	87
〈그림 5-14〉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89
〈그림 5-15〉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89
〈그림 5-16〉 2024년 시범사업 참여 의향	90
〈그림 5-17〉 2024년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	90
〈그림 5-18〉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 내 협업기관	91
〈그림 7-1〉 자원봉사 활동의 위기 및 기회 요인과 변화 방향	127
〈그림 7-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128
〈그림 7-3〉 안녕 캠페인의 SRGs(사회적 관계 목표)	130
〈그림 7-4〉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	131
〈그림 7-5〉 지역활력을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법	133
〈그림 7-6〉 자원봉사 혁신 모델을 위한 기본 방향	134
〈그림 7-7〉 광역 및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방향	136
〈그림 7-8〉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역할과 향후 방향(안)	137
〈그림 7-9〉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안 과제	138
〈그림 7-10〉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장소기반교육 운영 예시	140
〈그림 7-11〉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농업교육의 체계도	140
〈그림 7-12〉 ‘우리동네 편의점’ 협력 체계도	143
〈그림 7-13〉 ‘우리동네 편의점’과 ‘청소파’ 봉사자 운영 체계도 예시	143
〈그림 7-14〉 ‘우리동네 편의점’의 청소년 세대 서비스 예시	144
〈그림 7-15〉 LG디스플레이의 1박2일 볼런케이션	147
〈그림 7-16〉 체류형 볼런투어 사례	149
〈그림 7-17〉 볼런투어 활동 사례	149
〈그림 7-18〉 유희시설 활성화 사례	152
〈그림 7-19〉 지역문제 해결을 자원봉사와 연계해 풀어나가는 사례	154
〈그림 7-20〉 ‘압’ 운영 체계 및 서비스 예시	161
〈그림 7-21〉 한국 자원봉사활동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163

〈그림 7-22〉 일본 기후현 고건축물에 대한 자원봉사 활용 사례	167
〈그림 7-23〉 제주더큰내일센터 주관 플로깅 행사 사례	167
〈그림 7-24〉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자원봉사 사례	168
〈그림 7-25〉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현황	169
〈그림 7-26〉 1365포털의 봉사참여 웹페이지 현황	169
〈그림 7-27〉 타 부처 사업 연계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관한 프로세스	170

요약

1.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의 필요성

■ 인구감소 시대의 현상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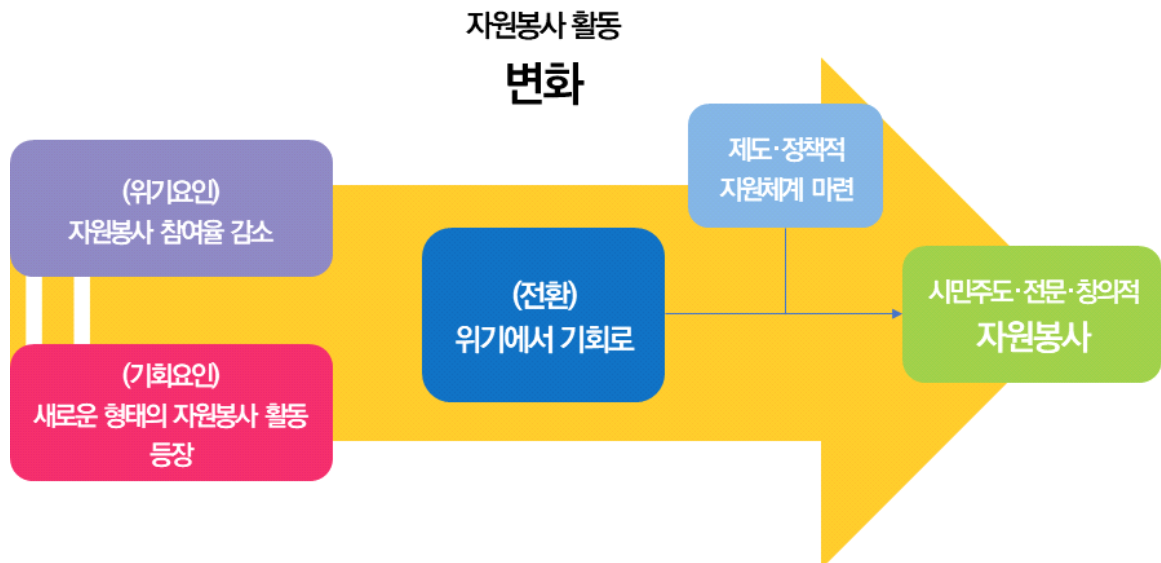
- 인구의 양적 변화, 인구의 구성 비율 변화 등 이전에 없던 변화 발생
 - 인구감소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89개) :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내부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인구의 양적 축소가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의 약화
 - 주민의 사회적 자본 소멸, 지역 주민 간의 관계 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과 양극화 심화, 고령화와 사회단체 간의 단절, 각종 정책의 축소로 인한 약자들의 생활상의 피해가 심화
 - 예를 들어, 보건 의료의 관점에서 인구감소로 병원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식이 달라질 것이며, 취약계층은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
 - 이동권 관점에서 시외버스나 대중교통망이 축소되면 교통약자들의 고립과 단절, 생존에 대한 위협
 -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의 고령화, 자원봉사자 인원 감소 등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응

-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의 변화, 세수 및 예산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차적인 정책 과제로 등장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주민등록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의 축소, 세수 감소 등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우려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구감소의 문제 해석에 일부 한계를 가짐
- 최근에는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인구, 생활인구의 적용,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재원 발굴 등 인구의 양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확대, 인구이동,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책이 도입되어 변화를 도모하는 중임

■ 자원봉사의 기회 요인과 필요한 변화

-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위기 요인)와 동시에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등장(기회 요인)이 함께 나타남
 - 자원봉사 이해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확장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체계도 구축을 요구하는 중임
 - 자원봉사 활동은 과거의 간단한 봉사에서 시민 주도, 전문성, 창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림 1〉 자원봉사 활동의 위기 및 기회 요인과 변화 방향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위기 요인)** :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 할 수 있음.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함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등장(기회 요인)**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회가 생기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활동은 기존의 관행적인 자원봉사와는 다른 형태의 참여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심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위기를 기회로 전환(전환)** :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변환하려는 노력이 있음.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선도하려면 관련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비영리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통해 가능함
-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 :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은 과거의 간단한 봉사사에서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반영하도록 진화하고 있음. 시민은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전환

- 전통적인 자원봉사 개념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적인 일들에 집중되었음.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거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일들이어서 정부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의 수준이 되면서, 공공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요구되었음
-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등 전지구적인 과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는 유력한 실행방안으로서 전 지구적인 자원봉사를 제시함
- 이러한 배경 속에 SRGs(사회적 관계 회복 목표)는 UN의 SDGs와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어젠다를 기반으로 선정했음
 - 한국에서도 2016-2018년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10대 과제를 자원봉사의 과제로 제시함
 - 이는 선한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 전국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를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캠페인'으로 제시함
 -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센터의 공동행동 과제를 '관계회복을 위한 안부문기',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서로 돌보는 안심의 문화'를 추구함
 - 안녕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관리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성과측정 사업을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시작함

1) SDGs란? UN에서 2030년까지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은 2015년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채택함

- 이러한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 속에서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붕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정책이 도출되게 됨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2〉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

- 사회서비스와 사회문제의 변화
 -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인해, 자원봉사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제시
-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 및 주민자치 정책의 확대
 - 주민자치 정책 등의 확대로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확대되며, 자원봉사 영역에도 이러한 변화가 영향을 미침
- 자원봉사 개념과 영역의 확장
 - 자원봉사의 개념이 확장되고, 자원봉사의 영역도 다양화하고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무보수성'과 '무대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수당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시도가 활발

- 정부 정책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또한 자원봉사 영역에 포함
-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자원봉사의 등장
 -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자원봉사 방식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어, 다양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의 등장
 - 불런투어리즘, 불런테인먼트, 온라인 자원봉사, 버추얼 불런티어와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원봉사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

2.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방향과 전략

■ 광역자원봉사센터,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콘셉트과 변화 방향

- 문제해결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공 서비스를 다양한 시민 욕구에 맞게 조정
 - (총체적 관점) 세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
 - (시민 중심) 공공 조직의 서비스는 종종 고정된 프레임에 따라 운영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자원봉사를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동기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기주도적 참여) 자원봉사 활동이 물자·서비스 단순 제공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동기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함
- 지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
 - (지역민의 참여 강화) 기존의 카테고리형 서비스 제공 대신,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자원봉사 모델을 다양화하고, 이타성과 결과 중심으로 접근
 - (자원봉사 모델의 다양성)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모델은 완벽한 구조화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와 상황에 더 적응되어야 하며, 합의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함
 - (이타성과 결과 중심) 자원봉사의 목적은 이타성과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을 더 넓게 정의해야 함
- 개인적인 참여와 확산 가능한 효과를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본질을 재고
 - (역할 확장과 수요 확장) 자원봉사의 역할을 더 넓혀서 수요 역시 확대되어야 함
 - (효과적인 자원봉사 개념) 자원봉사의 본질은 이타성에 기반하지만, 개념을 확장하고 보다 개인적인 체험과 확산 가능한 효과를 강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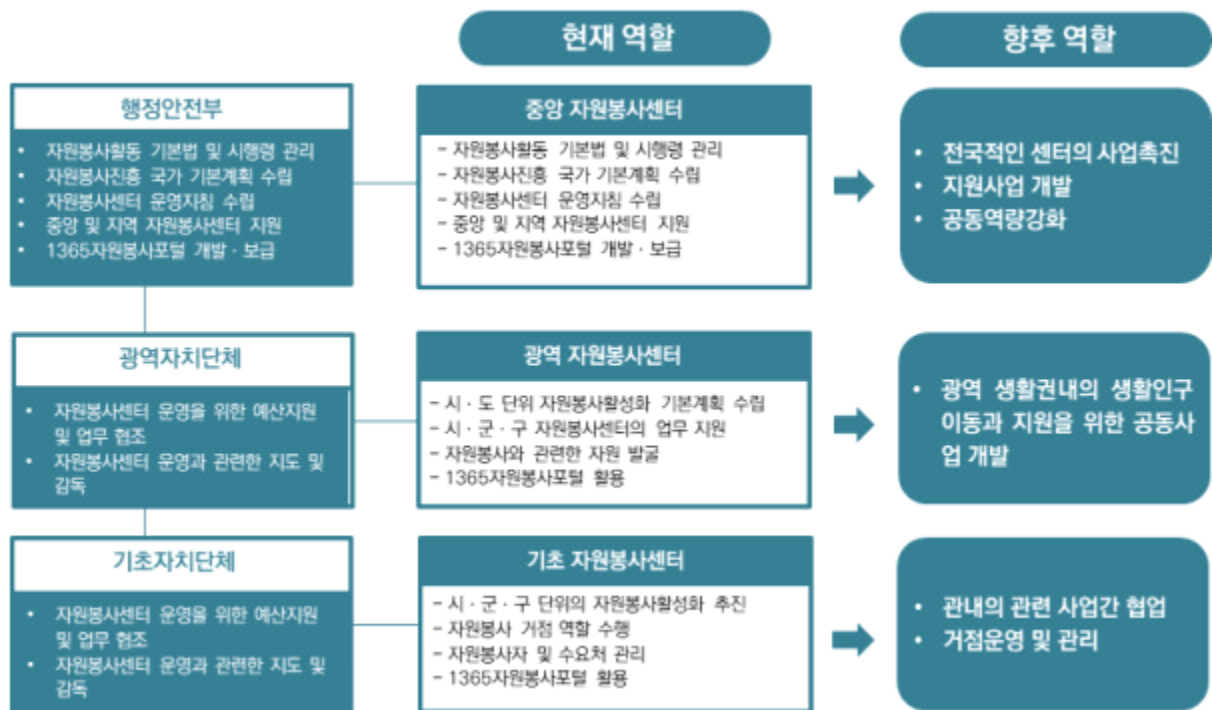


〈그림 3〉 자원봉사 혁신 모델을 위한 기본 방향

■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전략

-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현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크게 7가지 대응 방안이 요구됨
 - (인구감소의 영향 극복) 인구감소로 인해 시민 활력 침체, 관계 단절 및 시민 참여 감소가 나타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휴먼웨어 중심) 하드웨어나 시설 중심의 관점 대신, 휴먼웨어의 발전과 강조가 필요함.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내발적 발전) 지역 내 자원 발굴, 리더십 육성, 역할 개발 등을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함. 자원봉사, 평생학습, 비영리 지원, 지역재생과 관련이 있음
 - (관계인구의 발굴) 관계인구를 발굴하기 위해 대상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체류형 볼런투어 도입, 다양한 연령대의 욕구와 생애 과제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함
 - (융합 및 협업 전략) 인구 및 지역 침체와 관련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중간 지원 조직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성과목표 공유) 정책 실행에서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공유 방식을 개발해야 함. 이는 협력을 장려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통합방식 개발)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공간과 거점 중심의 통합방식을 개발해야 함. 이를 통해 생활권과 거점 중심의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 새로운 역할을 위한 전략을 담으면서 전통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서 더욱 확대되는 방안을 향후 고려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4〉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역할과 향후 방향

3.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제안 과제

- 자원봉사의 본질을 지키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확장되어 관계 확장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도입을 검토하고 노력해 왔던 프로그램과 연계해 8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제안함



〈그림 5〉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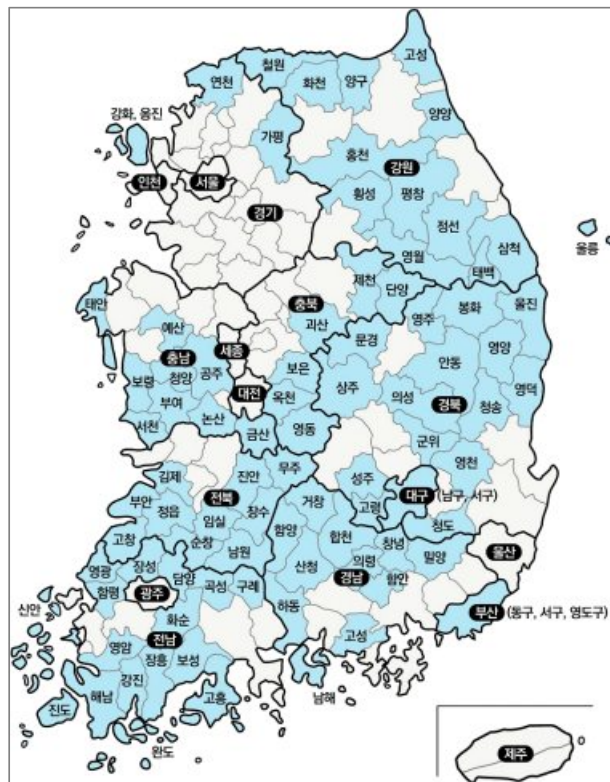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구감소의 영향과 자원봉사의 역할 다변화

- 인구감소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89개))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그림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구 감소를 가속화함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원 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 변화하는 자원봉사의 트렌드

- 자원봉사에 관한 최근 정책과 주요 연구를 크게 정리하면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키워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참여대상자) ‘노인, 청소년, 대학생’ 봉사활동자에 대한 연구가 가시적으로 부각
- (자원봉사의 활성화 요인) ‘참여동기’, ‘미치는’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
- (자원봉사의 효과) ‘영향’, ‘만족도’, ‘매개효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의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자신의 삶의 질, 자기효능 증진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룸
-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 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



〈그림 1-2〉 최근 5년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

-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 관련 이론과 제도 및 정책을 기반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지역의 노력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전개하는 것을 확인

■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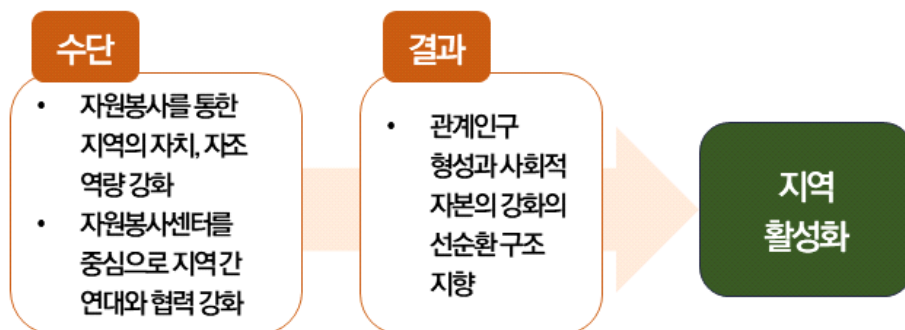
- 전통적인 자원봉사 개념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적인 일들에 집중되었음
-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거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일들이어서 정부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의 수준이 되면서, 공공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요구되었음
-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등 전지구적인 과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²⁾는 유력한 실행방안으로서 전 지구적인 자원봉사를 제시함

2) SDGs란? UN에서 2030년까지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은 2015년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 이러한 배경 속에 SRGs(사회적 관계 회복 목표)는 UN의 SDGs와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어젠다를 기반으로 선정했음
 - 한국에서도 2016-2018년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10대과제를 자원봉사의 과제로 제시함
 - 이는 선한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 전국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를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캠페인'으로 제시함
 -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센터의 공동행동 과제를 '관계회복을 위한 안부문기',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서로 돌보는 안심의 문화'를 추구함
 - 안녕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관리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성과측정 사업을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시작함
- 이러한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 속에서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붕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정책이 도출이 우리 사회의 요구가 되었음

■ 목적

- 인구감소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정책 방향 및 실험적인 자원봉사 모델의 개발



〈그림 1-3〉 본 연구의 목적과 기본 방향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채택함

■ 연구의 방향

-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생활환경 등의 개선 방향
- 관광, 생활권 공유 등의 지역 간 연대 노력 등을 통한 관계 인구 형성과 지역 활성화 방안
- 지역 활력의 중점과 이러한 노력의 거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제시
 -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센터의 확장성 고려 : 기존의 정책을 엮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
 - 단기적으로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제시



〈그림 1-4〉 관계망 확대를 통한 자원조사 역량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안)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

- 인구 감소지역의 지원 정책 및 자원봉사 환경 파악
 - 각 지역의 지역 활력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의 자원봉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 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제시
 - 농어촌 지역 활성화 모델(생활인구형성, 단기 체류형 모델, 지역간 협업 모델 등)
 -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모델(군부대, 대학, 거점 등)
 - 도시재생, 농어촌에 관한 기존 정책을 활용한 결합 모델
- 지역 활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 제안

■ 연구의 방법

- 자원봉사의 최근 문헌 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 발굴 및 이론 검토
 - 제안 준비과정에서 문헌 연구는 완료하여 추가 자문을 통한 보완 과정 진행 예정
-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 현황 조사 및 분석
- 광역과 기초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응 방안의 견수렴
 -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 등을 대상으로 대응 체계, 논의 사항, 지역별 대응 프로그램 등 조사
 -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17개),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228개)
 - 설문문의 구성(안)
 - 자원봉사 추진 현황, 인구 감소지역 자원봉사 조직 및 운영의 애로사항
 -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사례
 - 자발성, 자율성, 시민참여 등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의 개선방안
 -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방안,
 - 정부, 언론, 기업,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 지역별 자원봉사에 관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시행
 -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그룹별 조직(한 그룹당 5~6명) 후 회의 (4~5회 예정)
 - 경상, 전라, 강원 등 권역별 사례 지역 발굴과 함께 지역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회의 (2~3회 예정) : 세부 시행은 협의 후 진행
- 문헌 연구 및 집단심층면접을 통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세부 시행 방안 제시

3. 연구의 특징과 성과

- 지역 활력을 위한 자원봉사 역할 모델 제시
 -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 모델 개발 및 운영 체계 제시
 - 농어촌 지역 활성화 모델을 유형별로 정리 및 제시
 - 생활인구 형성 모델, 단기 체류형 모델, 지역간 협업 모델 등 제시
 -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모델 제시
 - 군부대, 대학, 거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 도시재생, 농어촌에 관한 기존 정책을 활용한 결합 모델
- 지역 활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 제안
 -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사업과 추진체계의 이행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제시
 -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광역자원봉사센터, 기초자원봉사센터 등 기관의 역할 제시
 - 모델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역할별로 제시
 - 자원봉사센터를 둘러싼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 방안 및 거버넌스 전략 제시
 - 지역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 등 연계 및 활용 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주요 역할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2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에 관한 정책 및 문헌 분석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의

■ 자원봉사의 개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무대가성과 자발성, 공익성을 강조
 - 자발성: 강압이나 처벌, 법적 의무에 의한 강제적 활동이 아니어야 함
 - 무대가성: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거나, 경제적 보상이 주요 목적이거나 동기가 되지 않아야 함
 - 공익성: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 지역사회, 국가 등 공공을 위한 활동이어야 함
- 현대의 자원봉사활동은 확장된 개념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면 보수를 받는 봉사를 포함(UNV, 2011)
 - 2021년 1월 14일 발의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자원봉사에 드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 개인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와 긍지를 확인하게 되어 삶의 보람을 찾고, 자기 잠재능력을 발현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됨(김태룡·안희정, 2009)
-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이타적 동기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 작용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규범 확립과 상호 신뢰 향상,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상일 외, 2021)
 -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규범 습득, 네트워크 확충 등 사회적 자본이 형성(우정자, 2012; 이란희·최병대, 2014)되고 이타심, 배려심,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 등의 가치가 함양, 공동체 소속감 증진(최준규 외, 2022)
-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행정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예방에 기여(이철선 외, 2016)하고 공공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

■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는 이타주의적 관점과 이기주의적 관점의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이타주의적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타인 복지에 대한 배려 또는 헌신의 차원으로, 타인지향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봄
 -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본인이 속한 환경 속에서 주변을 모방하고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데(Bandura & Walters, 1977), 이타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반응을 학습하면 이러한 행동을 계속 강화되게 됨(강철희 외, 2012)
- 이기주의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자아실현이나 보람, 성취욕구 등 자아 지향적인 동기로 실행됨
 - Knowles(1972)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을 자원봉사에 적용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욕구와 같은 상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지속해서 참여한다고 설명함
 - 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원봉사에 투입한 비용(에너지, 시간)만큼 만족할만한 보상(만족감, 보람, 사회적 가치 등의 인센티브)을 얻을 수 있을 때 참여 촉진(김성희·김유경, 2010)

2. 자원봉사 정책의 제도적 기반

■ 한국의 자원봉사 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17.07.26)」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 8월 법률 제7669호로 공포되었고 2006년 2월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이는 2007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국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완성하는 기반을 제공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의2)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관리
 -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2008년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재 4차 기본계획(2023-2027)까지 수립되어 시행
- 회차별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과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1차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화,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 효율성 개선 내용

- 제2차 국가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의 실행상 미흡점 보완, 자원봉사 사업 체계 구축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전략 수립에 초점
- 현재 시행중인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기(the New Normal)를 맞이하여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 및 참여 확산,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디지털 기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표 2-1]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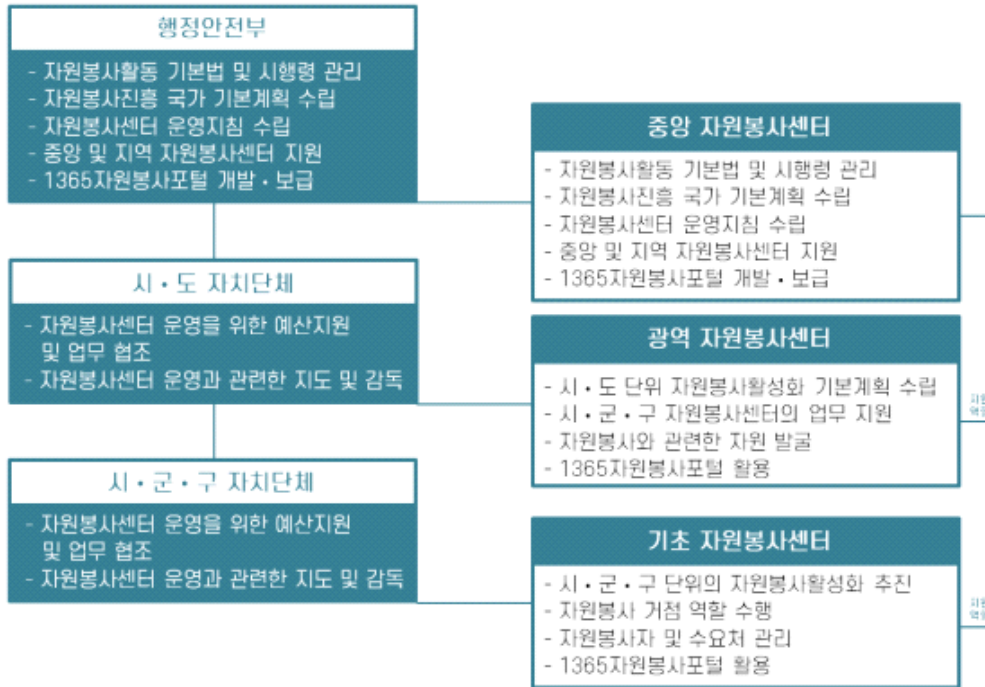
구분	제1차 기본계획 ('08~'12)	제2차 기본계획 ('13~'17)	제3차 기본계획 ('18~'22)	제4차 기본계획 ('23~'27)
비전	자원봉사 국가-행복한 사회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국민문화 확산 •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3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 • 생애주기별 시민참여 확대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자원봉사
과제	5대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39개 세부과제	5대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1개 세부과제	5대 정책영역, 17개 정책과제, 36개 세부과제	3대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33개 세부과제

출처 : 행정안전부 각 년도(2008, 2013, 2018, 202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4차 국가기본계획'

3. 자원봉사 정책의 운영 체계

■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중앙정부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집행
- 행정안전부는 중앙, 광역, 기초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자치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센터별 역할을 구분하여 센터 간, 센터와 자치단체 간 역할의 중복 방지
 - 중앙 및 광역자원봉사센터는 계획조직이자 지원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초자원봉사센터는 실행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음
- 행정안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중앙 자원봉사센터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관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정책 개발 및 연구, 중앙단위 자원봉사 기관·단체·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아카이브 운영, 자원봉사 국제교류 및 협력, 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 정보화 지원,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광역시도자원봉사센터는 중앙 및 시·군·구 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광역단위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대상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1365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 정보 관리·운영, 그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자원봉사센터는 기초단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지역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 현장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시·군·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그림 2-1〉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 전달체계

출처 : 행정안전부(202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4차 국가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연구진 재작성

■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245개 운영(2021년 기준)(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2)

- 경기와 서울에 가장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며 등록인원도 가장 많은 반면 활동을 측면에서는 전북이 21.4%로 가장 높음

[표 2-2] 시·도별 광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개소	26	17	9	11	6	6
등록 인원	2,574,836	938,980	712,855	717,037	482,730	467,930
활동률	10.9	12.1	15.4	13.1	10.7	13.7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소	6	1	32	19	12	16
등록 인원	370,621	76,767	3,876,056	433,012	402,297	622,416
활동률	15	21.4	10.4	13.9	16.3	16.2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개소	15	23	24	19	3	245
등록 인원	586,822	561,825	739,312	946,347	191,052	14,700,895
활동률	21.4	15.9	13.8	11.6	11.9	14.4

출처 : 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22) 재구성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를 통해 소외 계층의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
- 여성가족부 역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지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촉진
- 행정안전부는 범국민 대상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특화된 자원봉사활동 진흥 주체라는 차이가 있음

[표 2-3] 중앙정부 자원봉사 주요 기관 운영현황

구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운영 주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시·도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시스템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DOVOL)
제공 서비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신청, 실적관리, 확인서 발급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시간 인정	청소년 중심의 봉사활동, 교육연수, 인증서 발급

출처 : 최준규 외(2022)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작성

4. 자원봉사 관련 연구 동향

■ 자원봉사에 관한 최근 5년간(2019~2023) 선행연구의 키워드 분석결과는 특정 경향을 시사

○ 자원봉사 관련 최근 5년간 국내 선행연구의 연구주제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표현

- 국가학술연구정보 공유 시스템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최근 5년간(2019~2023)간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로 주제어 검색을 하여 출력된 국내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220건에 대한 핵심키워드를 분석함



〈그림 2-2〉 최근 5년간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

○ 자원봉사의 참여대상자로서 ‘노인, 청소년, 대학생’에 특화된 연구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김진원(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김희영(2021)과 최장원(2019) 역시 각각 노인의 라이프케어와 웰니스, 노인의 자기확장성과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을 분석
- 마영배(2023)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중심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 김정애(2021)는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는데 현안나(2019) 역시 실증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 대학생과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정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실증 분석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소영·이연규(2019)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백장국·석강훈(2019) 역시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의 관계를 연구
 - 황영호 등(2019)은 해외 자원봉사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의 심리적 계약 위반 지각과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연구했는데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형태인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을 다뤘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시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동기, 자원봉사의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 활발
-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동기로서 김대환·김방출(2019)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직무교육, 직무배치, 직무환경이 자원봉사 만족과 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조태영·오정학(2019) 역시 축제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여부에 주목함
 - 자원봉사의 효과에 관한 키워드로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타성, 배려’ 등이 눈에 띄는데 이향승(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경험이 이타성, 긍정정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 김남혜(2020)는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보고, 윤남교(2020) 역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주목했으며 한정희(2019)와 김원준(2022)의 연구에서는 각각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
 - 이형석(2021)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최유리(2019)도 은퇴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 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연구경향이 두드러짐
- 오영란(2020)은 자원봉사서비스 질이 이용자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강대선(2021) 역시 진주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동기유형, 자원봉사활동만족도, 사회적 자본 간 영향 관계를 실증 분석
 - 이금룡(2019)의 연구에서도 노인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역량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등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
 - 이종화(2022) 역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자원봉사의 활성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였음

5.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라는 위기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등장이라는 기회 요인 양립

-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 참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음
-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도 과거 단순한 봉사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최상미 외, 2017)

■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는 다양한 영역의 변화에 기인

-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제시
- 주민자치 정책 등의 확대도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 및 주민자치 활동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와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 변화를 촉진(이명신 외, 2021)

■ 주민참여 확산,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화 등으로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 확장

- 자발성과 무대가성의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등 자원봉사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음
 - ‘무보수성’, ‘무대가성’이라는 자원봉사의 전통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당과 자원봉사를 연계, 소정의 활동비 지급을 통해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적 시도 활발
- 이러한 배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등과 같은 정책사업 역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성(common good) 혹은 공익적 활동도 자원봉사 영역에 포함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자원봉사 등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의 등장

-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는데, 향후 자원봉사활동이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정희선, 2021)

- 면 마스크 제작 및 전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음식배달 등 대면·접촉 회피, 온라인 상담 및 멘토링, 키트 제작, 플로깅 등의 다양한 활동 전개
- 온라인 자원봉사는 비영리조직을 통해 사람들이 인터넷(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활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의미

■ 이전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자원봉사 방식의 등장으로 자원봉사의 새로운 영역 확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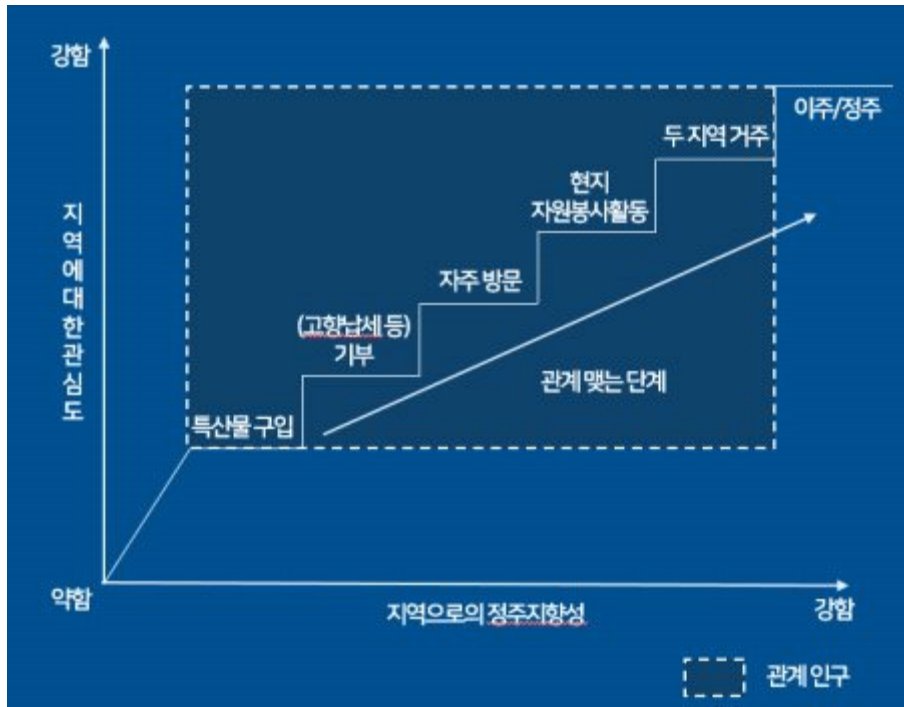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에도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활동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과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 온라인과 관련 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원봉사 그리고 버추얼 볼런티어(virtul volunteer) 등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은 장기간의 휴가 기간에 저개발국가에 가서 현지인과 함께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의미
 -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는 나눔과 봉사를 놀이, 몰입, 재미라는 의미와 결합시켜 시민들의 주체성을 극대화하고 흥미와 자발성을 자극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개념으로 탄생

관계인구란?3)

관계인구는 인구소멸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된 개념이다. 2004년 일본 니가타 추에쓰 지진 당시 지역에 구호활동을 하러 간 도시 청년들이 지역의 존재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근황을 ‘지역관계활동’이라고 부른 것에 용어의 기원이 있다(사시데 가즈마사(指出 一正, 로컬라이프 전문잡지 소토코토(『ソトコト』편집장)의 분석).

그 후 일본에서는 2014년에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론이 대두되었고 총무성 차원에서 정책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총무성 산하에 ‘미래 이주·교류시책방법에 대한 검토회’(좌장: 오다기리 도쿠미 메이지대학 농학부 교수)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관계인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관계인구는 살고있는 사람(정주민)이나 잠깐 들르는 사람(관광인구) 사이의 모든 인구층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지만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 “소비와 납세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엮는 사람들”, “농촌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의도 있다.



〈그림 2-3〉 관계인구 개념도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관계인구를 소통의 농도와 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1) 지역공유주택에 살며 행정과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디렉터(director)형(예: 지역부흥협력대), 2) 도시에서 지역홍보활동을 하거나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hub)형, 3) 도시에 살면서 지역에도 거점이 있는 두 도시 거주(double local)형(예: 5도 2촌), 4) 무조건 그 지역이 좋다는 단순 소통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연한 방문이든 의도적 방문이든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관계인구 유형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의 심화로 인해 비대면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관계인구, 예전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강 연안을 중심으로 강가에 모여 문화활동을 하며 지역을 이해하고 즐기는 유역(流域)관계인구 등 여러 가지 관계인구 형태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3) 지방시대위원회, <http://nab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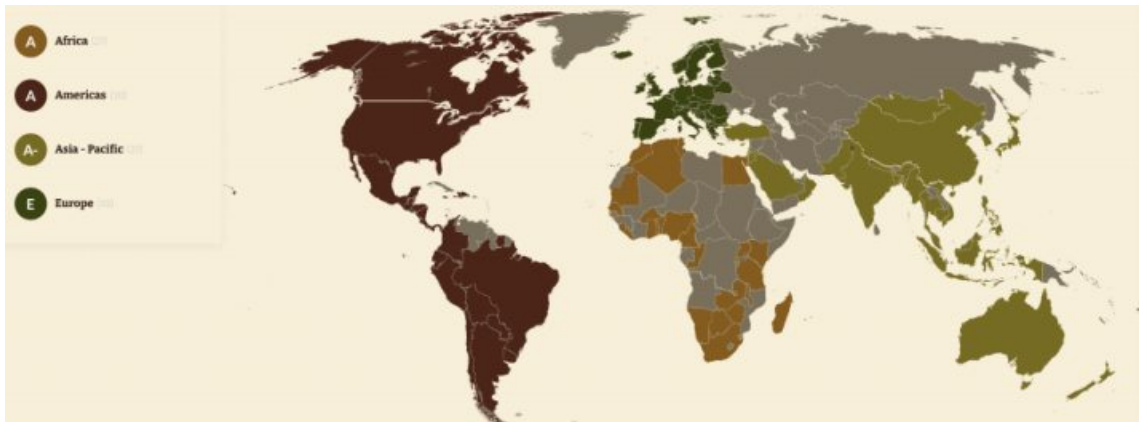
3장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의 모델 사례

■ WWOOF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 WWOOF 개요

-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된 WWOOF는 불문투어리즘의 대표사례로, 도시인들의 귀농 수요를 농촌 체험형 자원봉사로 유기농업을 시행하는 농가들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고, 유럽에 이어 북미,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자원봉사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있음(Yamamoto & Engelsted, 2014)
- WWOOF 운동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여, 1990년대에는 50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 100개국에서 6000개 이상의 호스트가 등록되어 있음 (Ord & Amer, 2010)



〈그림 3-1〉 WWOOF 네트워크에 가입된 호스트 농장 분포

출처: WWOOF net (<https://wwoof.net/destinations/>)

○ WWOOF 주요 원칙 및 작동방식

- 사람들에게 유기 농업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농장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얻는데 있음(WWOOF; Yamamoto & Engelsted, 2014)
- 또한 유기농 생산을 전통적인 농업에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유기 농업 운동의 상호연대와 소통을 개선하는 것임(WWOOF; Yamamoto & Engelsted, 2014)
- 일반적으로 WWOOF의 운영은 개별 농장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개별 농장의 인력의 대부분은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함(WWOOF; Yamamoto & Engelsted, 2014)
-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 WWOOF 호스트 농장에서는 참여 자원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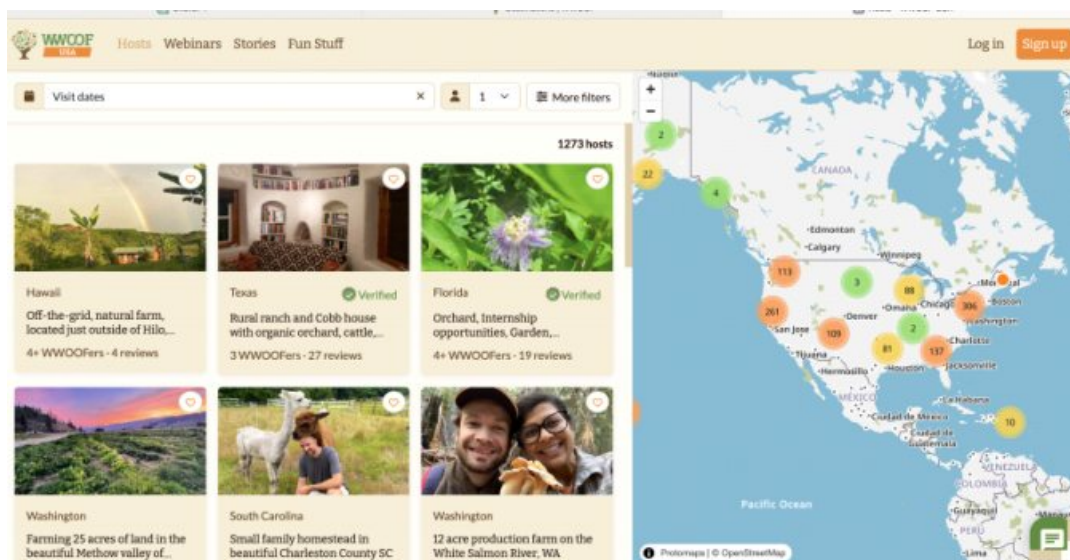
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4~6시간 일하면서 유기농업이나 원예기술을 학습함(McIntosh & Campbell, 2001)



〈그림 3-2〉 유기 농업 농장에서 작물 수확하는 WWOOF 자원 봉사자들

출처: WWOOF net (<https://info.wwoofusa.org/blog/2023/08/28/photocontest/>)

- WWOOF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호스트 농장은 WWOOF 국제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에 소액의 등록비를 지불하고 호스트 농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가입된 호스트 농장에게 WWOOF 사무소는 참여희망 자원봉사자들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함(WWOOF; Yamamoto & Engelsted, 2014)



〈그림 3-3〉 WWOOF 네트워크에 가입된 호스트 농장의 위치 검색 시스템 (북미지역)

출처: WWOOF net (<https://wwoofusa.org/en/hosts>)

○ WWOOF 특징 및 시사점

- WWOOF는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과 농업관광 특성을 모두 내포함
- 농업관광으로서 WWOOF는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연출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 활동과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데

의의가 있음(Phillip, Hunter, & Blackstock, 2010)

-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으로서 WWOOF는 일반적으로 호스트와 자원봉사자간의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WWOOF는 중개 기구로의 역할에만 집중하게 되어 지속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되는 한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명승지 중심의 관광을 넘어서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럽 및 미주지역 중심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해외 자원 봉사 문화를 국내의 농어촌 일손 돕기 활동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AmeriCorp

○ 프로그램 개요

- AmeriCorps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조직이며, 자연재해 및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개별 자원봉사자들이 수요발생처에 집중 참여시키는 국가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네트워크임
- AmeriCorps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AmeriCorps 구성원들은 교육, 공공 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 공공 기관, 종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유지함
- AmeriCorps 구성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AmeriCorps는 봉사에 대한 대가로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거나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장학금을 제공

○ AmeriCorps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존재함

- AmeriCorps State and National: 이 프로그램은 핵심 지역사회 요구를 해결하는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구성원들은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며, 봉사 기간 동안 기본 생활 수당, 건강관리 같은 혜택을 받음
 - AmeriCorps 구성원들은 주택 재건, 재난 구호 기관 지원, 학교 및 지역 센터의 복구와 재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재난 재해로 인해 주택과 생계를 잃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의 장기적인 회복과 재건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AmeriCorps VISTA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AmeriCorps VISTA 구성원들은 비영리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함. VISTA 구성원들은 1년 동안 전일제로 봉사하며 저소득 계층 개인 및 지역사회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데 참여함
 - AmeriCorps VISTA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는 미국 전역의 지역 보건 센터 (CHC)의 발전과 확대를 들 수 있으며, VISTA 구성원들은 미 서부지역과 경제적으로 불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센터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AmeriCorps VISTA 구성원들은 노력을 통해 CHC의 능력을 향상시켜 저렴하고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을 개인과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예방 치료, 건강 교육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필요한 의료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AmeriCorps NCCC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AmeriCorps NCCC는 재난 구호, 환경 보호, 인프라 개선, 도시 및 농촌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젊은 성인을 위한 전일제 거주 프로그램이며,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함
 - AmeriCorps NCCC가 지원하는 농촌 개발의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미국 동부 낙후지역인 애팔래치안 지역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이며, AmeriCorps NCCC 팀은 이 지역에서 경제, 교육 및 인프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음
 - 이 지역에서 AmeriCorps NCCC 구성원들은 인프라 구축 및 수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홍보, 그리고 이러한 농촌 지역의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고, 지역 단체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사회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AmeriCorps NCCC의 노력을 통해 애팔래치안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

■ 미국 미시간 대학의 대학의 커뮤니티 파트너십 사례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는 긴즈버그 센터(Ginsberg Center)에서 커뮤니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대학의 요구에 민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대학-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모든 파트너를 위한 상호 혜택,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연구 네트워크 내에서의 장기적인 관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발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대학과 커뮤니티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커뮤니티 간의 여러 수준의 연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⁴⁾.
- 이 프로젝트는 학부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여, 대학과 커뮤니티 참여의 개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와 참여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우며, 여기에서 활용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신진 학자들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됨
 - 이 플랫폼은 5개의 모듈로 이뤄져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소통을 위한 기술 등을 배우는 문제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둠
- 지역사회 참여 대학원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교원의 지도 경험과 멘토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종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식임
- 2023년에는 347개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연결된 1639명의 학생 중 166명의 학생이 긴즈버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음
 - 영어 학습 교사(84명), 커뮤니티 기술 지원 협력(25명), 민주주의 참여 리더(20명), 사회 변화를 위한 스토리텔링(16명), 졸업 컨설턴트(13명), 커뮤니티 리더십(6명) 등

4) 미국 미시간대학 홈페이지, <http://ucp.msu.edu/>

■ 일본 코베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사례

- 코베대학은 코베고등상업학교와 코베상업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본 관서지방의 명문 국립대학의 하나임
 - 상업대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학·경영학 분야에서 강점을 두고 있음. 코베대학은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인접한 교토·오사카의 대학들과의 교류하에서 활발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 대학은 지역연휴⁵⁾추진실(地域連携推進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주요 활동을 공유함
 -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경영과 경제의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협력 및 연계를 진행 중에 있음
 -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학연구과의 경우, 효고현 토요카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학부생들과 함께 산관학연휴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경제학연구과는 거의 10여년 동안 진행한 다카정(多可町) 사업의 거의 완료됨에 따라, 2019년에 히메지시(姫路市)에 대한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조사작업을 시행하여, 지역창생사업과의 연계해 진행 중임⁶⁾



〈그림 3-4〉 코베 대학 지역연휴추진실의 활동 성과
출처 : 코베대학 지역연휴추진실

5) 일본어 연휴(連携)는 팀워크, 협동 등을 의미하며, 원어의 의미를 살려 연휴로 표기함

6) 神戸大学地域連携推進室(2020), 平成30年度地域連携活動報告書.

- 코베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각 학부별로 지역사회연계활동을 수행 중이며,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실천활동에 교원과 학생들이 지원하여 대학이 가진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학부의 지역센터의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체 및 지역주민과 연휴한 새로운 자치체 사 편찬과 지역문화박물관 사업을 진행 중이고, 역사자료의 보전사업, 한신·아와지 대 지진 자료의 보존 활용 사업, 역사문화유산 활용기구의 구축 지원과 인재육성사업을 진행함
 - 의학부의 경우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살기 쉬운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 위험 아동의 부모 지원 프로젝트, 중증 장애를 갖는 어린이의 의료지원 서비스. 가벼운 장애아.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

■ 일본 이키시의 지속가능한 섬 모델과 미래창조대화

- 나가사키현의 이키시의 ‘SDGs 미래 도시 모델’ (29개 도시 선정)
 - 일본은 SDGs를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에 지속가능성을 요구
- 일본 나가사키현의 이키시는 인구 26,000명, 도로와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신사가 있는 녹음이 우거진 환경을 가진 섬 지역
 - 일본의 고령화는 이키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65세 이상 시민의 비율은 37%(2020년 5월), 2030년에는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기후 변화는 이키시의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해수온 상승으로 이키시 주변의 해 조류가 감소했고,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어획량은 연간 6,560톤에서 4,408톤으로 거의 50% 감소
- 섬 안팎의 다양한 재능을 모아 참가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의 문제를 논의하는 미래창조대화 실시
 - 2015년부터 1차 대화가 진행되어 2,000명 이상의 시민과 학생이 모임
 - 2020년 2월 현재 42개의 이슈를 다루었고, 그 중 30개는 미래 창조 대화에서 탄생한 솔루션을 채택



〈그림 3-5〉 미래 창조 SDGs 대화회(2020년) 〈그림 3-6〉 혁신 여름 프로그램(2022년)
출처 : 일본 이키시

○ 혁신 여름 프로그램

- 미래 창조 대화는 이키시의 문제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 이키시에서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계획, 혁신 및 프레젠테이션을 수행
 - 나가사키 현립 이키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현역 대학생(이키 고교 졸업생 포함)멘터와 함께, 혁신(미래를 만드는 아이디어)의 방법을 배우고, 이키의 미래를 만드는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3일간의 프로그램 실시

4장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자원봉사 역량 분석

1.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 중앙정부 부처별 주요 사업 정리 및 분석

- 부처별로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대부분 부처가 관련 정책을 갖고 있지만, 크게 강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6개의 주요 부처의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을 조사 및 분석함



〈그림 4-1〉 정부 주요부처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중앙정부	과제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 ·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생활인구 활성화 · 지역 주도 발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자원)기반 지역경제활성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생활인구 도입 · 재정자주권 제고방안 수립. 맞춤형 자치모델 도입 ·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 방문 지역활력 선순환

중앙정부	과제	세부내용
	환경 제도 개선	
농림축수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농촌지역의 자원, 문화 활용 농촌 재생 • 농촌형 사회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융복합산업, 관광, 재생에너지 지구 등 특화 발전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촌관광 콘텐츠 활성화 • 농촌 취약마을 대상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 문화 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 •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농장 육성, 농촌 돌봄마을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 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 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 어촌지역 활력증진과 지속가능성장 인프라 구축 •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 항만, 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 중단 우려 항로 유지 • 택배 할증료 경감 • 소규모 어가 수산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 어촌생활돌봄 활동비와 연금 보험료 지원단가 현실화 • 어촌 지역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헬스케어), 안전 인프라 종합 개선 • 연안재해 조기 경보 체계 구축 • 100년 빈도 재해(파랑)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 • 재해 완충공간 확보, 친환경공원 활용 •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 개발 및 서남해안 실증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서비스 •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 심야 택시 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 서민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도입 • 시외버스 벽지노선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유성 특화발전 및 문화취약지역 문화, 공연, 기반 등 맞춤형 지원 • 지역문화인력 양성, 일경험 지원, 지역대학 연계 청년 관광 두레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관광 휴양벨트 조성. 여행 수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천만 노인시대, 전방위적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 양육지원, 건강지원 • 복지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 중심 노인 돌봄 체계 전환. 재택 의료센터 확대 • IoT 기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 노인들이 함께 식사문화 생활 등 해결 주거방식

[표 4-1] 정부 주요부처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내용

(1) 행정안전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⁷⁾

■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

- (생활권 경제활성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연 10개 지역 내외), 성과 확산 등 통해 지역 특색 기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예: 임실 치즈마을)

2.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국회제출 '22.11.2.)하여 위원회 출범근거 마련
- (위원회 지원) 기획단 발족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수립 등 지원

○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생활인구 활성화

- (전방위 지원)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특례 추가 발굴 및 교부세*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교부세 지원 확대(1조원→2조원), 창업·사업장 이전·사업전환기업 대상 취·등록세 감면(50~100%) 확대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과 타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은퇴자·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
- (생활인구) 인구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본격 도입, 생활인구를 고려한 각종 제도 적용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 ① 주민등록 인구 ②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인구 ③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인구
 - 일부 인구감소지역 시범실시('23년) 후 쏠 인구감소지역 확대('24년)

○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제도 개선

- (재정자주권) 1·2단계 재정분권*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지방 자율·책임 중심의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 수립

7) 행정안전부, 2023년 업무보고.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등 세입 확충 중심(1단계'19~'20년, 2단계'22~23년)
- (맞춤형 자치모델 도입) 특별자치시·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수요 기반 행정구역 개편 지원 등
-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기부로 형성된 관계가 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역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
- 매력적인 답례품 제공,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추진, 고향사랑의날 지정 등

(2)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⁸⁾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 농촌주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
 - 지자체·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23.12월),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을 주거·융복합산업·관광·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 발전 유도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23.7월)
 - *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해 시·군은 농촌공간계획 이행, 정부는 통합예산지원
 - 협약 체결 확대('22: 32개 시군 → '23: 53), 통합지원 사업 확대(주거여건개선 등 → 일자리·경제·사회서비스 포함)
 - 축사 등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 정주기능이 강화된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 제정('23.6월)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방안 구체화
 - 농촌마을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으로 구분
- 농촌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활용하여 농촌 재생

8)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업무보고.

- 농촌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23.1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캠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 개선(문체부 협조)

-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주택 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
 - 빈집 등 노후주택 정비('23: 14천호), 목재친화마을 조성('23: 9개소)

■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 육성
- 농촌형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문화·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을 조성('22: 797개소 → '23: 900)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사회적 농장 육성('22: 83개소 → '23: 100) 및 농촌 돌봄마을 조성('23. 3개소)
 - 〈 농촌 돌봄마을 〉
 - 고령층 등 주민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을 복합화
 - 전문 의료·보건, 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제공
 - 보건·의료정책과 농업·산림치유를 연계하여 국민 건강 비용부담 완화
 - 치매예방, 재난심리회복 등을 위한 치유의 숲 확대 : ('22) 45개소 → ('23) 52
- 농촌의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서비스 공동체 육성('22: 22개 → '23: 30)
 -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방문 진료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23.11월, 복지부 협조)
 -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3)

(3) 해양수산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⁹⁾

■ 살기좋은 섬, 연안 지역을 조성

- 소외되어 왔던 섬·연안지역 주민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 유인도서 : 464개 / 유인도서 주민 : 82만명(전체 국민의 약 1.6%)
-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보장 ■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23, 10개)하고,
 - 중단 우려 항로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35→40개, '23, 198억원)
 -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천원)를 경감('23, 65억원)
- 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약 2.2만호)·
 - 어선원(약 1.5만명) 대상으로 직불제(가구당 연 120만원) 신규 도입, 어촌생활돌봄 활동비와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만 45세 이상, '23, 1,800명)
- 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방파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
 - 5년간('23~'27) 총 300개소 3조원 / 유형별로 개소당 50~300억원 지원
 -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 활력펀드'를 조성('23, 계획 수립)하고, 어항시설내 업종 규제를 개선
- 기후변화 대응,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월파·침수, 이안류 등 연안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연안 통합 해수면 관리체계 구축 * 연안에 1,430만명 거주 / 자연재해 피해액의 40.4%가 연안에서 발생('12~'20, 1.5조원)

9)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 연안재해 예·경보 시스템 “K-Ocean Watch” 구축
 -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예측하여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체계 구축, 재해대응 골든타임* 확보('23년 예타, 2,700억원)
 - 예측주기 단축(3시간 → 30분), 정밀도 향상(시·도 → 읍·면·동)
 - 외해 스마트 관측망 설치, 무인 관측장비 개발로 이상 징후 신속 포착, 지역별 맞춤형 재해예측으로 사전 위험정보 제공
-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 100년 빈도 재해(파랑)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
 -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월파·침수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 방재언덕 조성 등 취약지구 정비
 - 재해위험 연안의 토지를 매입,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23, 시범사업 2개소)
-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 민간·공공*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4, 84억원)
 - (20개 기관) 16개 기업, 2개 공공기관(KIOST, 인천항만공사), 2개 대학(인하대·경북대)
 - 굴폐각 소재 방파제 설치, 갯벌식물 식재 등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 개발 및 서·남해안 실증(3개소) 추진('23~)

(4) 국토교통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¹⁰⁾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

¹⁰⁾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

-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선취지에 맞게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며,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23.上)

-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 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

○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

-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하며,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

-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23.上)하고,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23.下)

○ 지역 교통망을 확충

- 촘촘한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23.下)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 강화
- (고속)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하며,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23.上)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고

■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 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23.上)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강화

-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
 -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23.1~)
-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
 -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며,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

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
 -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 내포(‘22.11 국민제안·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
 - ‘22.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
- 우수한 입지, 넓고 품질 좋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 올해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 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
 -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
 -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23.1~)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
 -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
- 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증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

-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2-5년),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 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 근절
-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23.下)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22.12~)하여 거래 질서 확립

■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

-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GTX-A는 시험운행('23.下)을 거쳐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며,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28년 삼성역 연결)이며, 조기 개통 지속 강구
 - 이에 더해, 대곡소사선('23.12)·별내선('24)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 완화
 - 지역은 M버스(세종·담양)와 BRT(전주·제주)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BRT, 대도시→인구10만)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

•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

○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23.上)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오픈('23.下)하여 수요자 편의 극대화
- 또한,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8→12개 항공사)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 (공항) 제주·김포·김해·청주·대구 등, (철도)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23.下)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 지원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23.9)하고,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23.7)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

○ 모빌리티 시대를 본격적 구현

- 미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Lv4), 도심항공교통(UAM) 구현
 - 완전자율차('27)는 제작·운영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24)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23.12)하며,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환경도 제공
 - 도심항공교통('25)은 UAM법 제정('23.6)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23.8)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23.12)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 구현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 우회전 신호등 도입('23.1)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목표: 2.4천명 이하)를 유지
 -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전문컨설팅, ~'23.上)하여,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 재정립
- 출퇴근 시간 혼잡 관리 등 일상 속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3.3)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
 -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23.6)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 개선('23.12) 등 안전조치를 강화

○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예방-대비-대응-복구'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23.10)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 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5만 가구(공공1만+민간0.5만)로 대폭 확대
 - 도시공간은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23.12)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제고하며, 방음터널은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22.12.30~)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

(5)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¹¹⁾

■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 (문화로 이끄는 지역 활력)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고유성 특화발전('23년 7개소) 및 문화취약지역 문화공연·기반 등 맞춤형 지원(6개, 46억원)

- 지역 문화자원 활용 브랜딩, 인프라·콘텐츠·인력 등 종합 지원(4년간 도시당 200억 원 내외)

• 수도권 편중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인력 양성(300명), 일경험지원(70명), 지역대학 연계 청년 관광두레(20개), 후원단(서포터스, 20개팀) 지원

-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확대)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 확대,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강화**

*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순회전 이후 방문자 수가 월평균 2만 명→14만 명으로 증가

** '청춘마이크', '실버마이크' 등 청년·어르신 공연지원, 문화단체 간 협력 기획사업 신설 등

- (지역 대표 기반)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문화특화클러스터육성*

-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 노후 산단 등 유희시설 활용 문화기반 조성-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부산·광주·대전 완료, 경남 '23년) 및 지역거점별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23년~, 개소당 1~5천석)

* (예) △대구: 공연(옛 경북도청), △부산: 영상(영화의 전당), △강원: 기록문화(국가 문헌보존관)

** 국립민속박물관(세종),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스포츠 연계 지역특화) 지역특화형 스포츠+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40억원),

- 접근성·경쟁력을 고려한 스포츠도시(종목+도시) 선정·집중 지원*

* 지역별·종목별 스포츠대회·리그, 스포츠 행사 발굴, 국제대회 유치 등

■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

○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 광주-전남-부·울·경 연계 남도문화예술-한국형 웰니스관광 -

1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업무보고.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조성(3조 원 규모, '23~'33)

- 범부처 협업으로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 육성(5개 섬, 각 100억원)

○ (생활이 여행이 되는 나라) 여행수요 촉진*

-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살아보기형·야간관광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관광으로 살리는 방문자 경제** 실현

* '여행이음카드' 신규 추진(정부·지자체·기업이 국내여행 포인트,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혜택을 집약 제공), '여행가는 달' 비수기 정례 개최(6월)

** 정주민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관광객 약 41명 필요(문광연, '22)

(6) 보건복지부 :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정책¹²⁾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비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마련('23.상 아젠다 발굴 → '23.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

- (저출산 완화) 출산·양육지원 등 효과성 평가해 집중분야 투자확대- (고령화 대비)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보장 위한 건강·돌봄·주거지원 확대 및 고용·일자리, 평생교육 등 고령화 정책 개편
-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검토 (예: 일본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 (인구감소 적응) 경제·산업·교육·고용·국방 등 각 분야 시스템을 인구감소·
- 초고령사회에 맞게 재편, 유망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기반마련
- 생산가능인구 확충, 대학구조 개선, 국방인력 충원체계 개편, 보건 의료 수급계획 마련 등

■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출산·양육 초기에 다각적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12)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

- (소득보장) 양육비용 지원 및 소득 보전 위해 부모급여 지급
 - ('23) 0세 월 70만 / 1세 35만 원 → ('24) 0세 100만 / 1세 50만 원
 -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활용해 육아교실 등 운영하는 가칭 육아쉽표 시범사업(60개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부모교육 체계화)
 - (돌봄보장)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기존 반 통합모형, 이용자플랫폼)
 - ('22) 958 → ('23) 1,030개 반 → ('24~)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 목표
 - (건강지원)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39→75개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6→8개소), 취약계층 육아용품 지원(기저귀, 조제분유 단가인상)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도약 위한 컨설팅 중심 어린이집 평가제개편,
- 보육교직원 인력지원·권리보호, 국공립 확충 등 국가책임 강화추진
-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 추진착수
- 범부처유보통합추진단 출범('23.1)으로 교직원 처우, 급식 등 서비스, 재원 등 논의·방안 마련
- 일·육아 병행 분위기 조성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인식개선 등 추진

■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노후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확충- (소득) 기초연금 지급액 월 307,500원('22) → 323,180원('23)으로 인상-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 경험·역량 활용하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84.5만→88.3만 개)
- (여가) 복지관·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음악·운동·공연 등) 다양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강화 (단가 연 215만→250만 원)
- (지역돌봄)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 전환
- (의료)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3.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3.3~) 등 추진
 - 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가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등 제공

-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 연계
- (장기요양) 지역사회 거주지원 위해 재가급여 확충*, 다양한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31→50개소)
 - 기존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 외에도 이동지원·주거환경개선 제공 시범사업 실시- (돌봄고도화) 지자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돌봄 모형 마련(12개 지역 시범사업, '23. 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50만→55만 명)
- (스마트돌봄)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웨어러블기기활용 건강·정서지원 시범사업(~'24) 등 추진 및 관련 R&D 투자확대 등 추진
 - “노인/장애인 재활·자립·돌봄 R&D 최적화 사업('24~'30, 6,495억 원)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주거)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의료·여가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 통해 도시에서도 농어촌 마을회관처럼 노인들이 함께 식사·문화생활 등 해결하는 주거방식 개발 추진

2. 자원봉사와 연계 주요 사업 검토

(1)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선정대상 : 12개소

■ 지원금 :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3~2025년)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우선

■ 공모자격

- 청년단체 및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 주요사례

- 전라북도 완주군
 - 전라북도 완주군은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산화와 연계한 지역×청년 상생창업'의 목표로 청년마을 조성
 - 지역에서 청년이 사회적경제 지역자산화 토대의 지역사회와 서로의 필요, 욕구를 연결하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발굴하는 창업창직과정을 운영하고 지원

- 사업비를 통해 청년자립플랫폼(청년활동가 사무공간), 비빌언덕중개사무소(청년창업 실험공간, 안테나숍), 지역내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업·창직 공간으로 확보, 예정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년들이 본인의 수준, 역량, 요구에 맞춰 창업·창직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경제 이론, 비즈니스모델 발굴, 시범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운영 등을 시행함
- 프로그램

[표 4-2] 전북 완주군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사례

구분	내용	비고
1.기본교육과정	1차:사회적경제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과 창업창직 이론교육	12h
	2차:지역사회의 필요, 문제의 발견 & 창업자 욕구의 연결, 결합	12h
2.비즈니스모델과정	3차:필요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팀 비즈니스모델 발굴	12h
	4차: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BM 실현을 위한 MVP확정)	12h
3.MVP실행과정	5차:MVP(최소요건제품) 제작, 실행, 모니터링 1차	12h
	6차:MVP(최소요건제품) 제작, 실행, 모니터링 2차	12h
4.멘토링	팀별 비즈니스모델 관련 전문가와 팀 매칭해 운영	4h
합 계		76

■ 자원봉사와 연계 시사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타 지역의 청년들을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지역 내·외부와 관계 맺기’, ‘지역문제 찾기’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가진 재능과 관심사를 지역의 문제해결 및 필요한 곳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을 탐구하는 활동 자체가 청년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농촌대상 주요사업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현 정부의 농정부문 핵심과제의 하나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한 제도, 세부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시행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은 2023.12 발표 예정
- (농촌협약)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시·군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약임
 - 주거지 인근 축사, 공장의 이전·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통합 지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 및 농촌 삶의 질 관련 관계부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 및 통합지원 현황은 2023년 기준, 53개 시·군이며 통합지원 사업은 주거여건 개선 등에서 일자리, 경제,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정주생산 환경 등 기능에 따른 ‘농촌공간계획’과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지원,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조



〈그림 4-2〉 현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기초

- 지역활력마을(타운)은 ‘농촌협약’을 통한 관계부처 간 협업, 통합지원의 개념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협약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목적이므로 신규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 활동이 수반되므로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됨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 주민자치(행안부) + 돌봄(복지부·농식품부) + 체육(문체부) + 사회적농장(농식품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그림 4-3〉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출처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3.6.2.) ‘체육·편의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 본격 추진’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농촌협약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13개로서 다음과 같음(2023년 기준)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②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시군역량강화(일반농산어촌개발), ④ 농촌공간정비, ⑤ 농촌형교통모델, ⑥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⑦ 농촌주택개량, ⑧ 농촌집고쳐주기, ⑨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⑩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⑪ 농촌신타력플러스, ⑫ 경관보전직불, ⑬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관리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농촌지역의 생활 SOC 구축과 함께 지역주민의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사업을 함께 진행
- 시군역량강화,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 사업 역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구
- 특히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 자체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촉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기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의 개념이 적용됨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지역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①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촌 중심지에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가능
②기초생활거점조성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완 등을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가능
③시군역량강화	◆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프로그램, 사업 준비 또는 사후단계 역량 강화 등 지원	가능
④농촌공간정비	◆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한 공간을 생활 SOC 등으로 활용 지원	불가
⑤농촌형교통모델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⑥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노후 주택정비 등을 지원	불가
⑦농촌주택개량	◆ 농촌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등을 위해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	불가
⑧농촌집고쳐주기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집수리 봉사활동 지원	가능
⑨청년농촌보급	◆ 귀농·귀촌 등 청년층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불가

사업명	사업내용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자리조성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및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복합·설치 지원	
⑩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공간으로 활용 지원	가능
⑪농촌신활력플러스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R&D 등), 시설·장비 고도화 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지원	가능
⑫경관보전직불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	불가
⑬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관리 지원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복원·관리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	가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3.15.) '농촌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소통의 장 열려'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 현 정부에서는 2023년 농정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농촌사회서비스 강화를 제시,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
 - 관련 법령: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4.8 시행)」
 - (목적)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그리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
 - 법령에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농촌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의 개념, 원칙과 같은 맥락으로서 사회적 농장, 돌봄 마을 등의 조성 및 운영과정 상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임
- 구체적으로 농촌 돌봄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회적 농장'과 '돌봄마을'의 사업을 추진
 - (농촌 돌봄마을) 사회적 농장,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지원대상: 돌봄마을 조성을 추진할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1개소
 - 지원예산: 182억원(국비 91, 지방비91)

- 사업기간: 2023-2025년(3년간)
- 2022년, 2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총 3개소가 선정되어 조성 중 → (2022)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 (2023) 충남 홍성군
-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지만 선정 요건 및 운영관리 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활동가 등의 자원봉사자 필요)가 요구됨
 -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교육,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준비 중
- (사회적 농장)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
 -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 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 받음
 - 사회적 농장은 역할과 기능과 대비하여 인력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가령 신체·정신 지체 장애인의 일대일 돌봄, 사회적농장-거주지 간 이동 등이 요구됨
 - 사회적 농장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 뒤이어 고령자 관련 시설이 많음
 - 부처 협업사례도 늘고 있는데 충남 진천군(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곳으로서 2023년에는 사회적농장으로도 지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대상 농촌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보임
 -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 5개 부처가 협력하였는데,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등 부처 협력 하에 상기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

[표 4-4] 시도별 사회적농장 현황(2023년 현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대전	울산	광주
164	7	15	17	22	32	19	15	14	7	5	5	2	2	2

출처 : 사회적농업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능나눔 (제15조)’에서도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확장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음
 - (제15조)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 지원 →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운영 가능
 - 즉,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서 나아가 관련 정보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 확인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서도 행사의 체계적 진행과 확대를 위한 한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가능성 확인
 -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7회를 개최, 2022년에는 전국 30개 봉사 동아리 소속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 노후주택 집수리, 의료 활동(치과치료, 물리치료 등), 마을벽화 그리기, 장수가족사 진, 안경 맞추기, 농촌 일손 돕기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 연례행사임
 -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난이 예상되어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이 요구됨

■ 동물복지 강화

- 현 정부의 2023년 농정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동물복지 강화’는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024, 법안 발의) →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등의 내용 포함
 - 학대·유기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정책 확대 및 사후조치 실질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하여 동물 보호 여건 개선(2022~2023, 신규 22개소), 민간보호시설 개선 방안 마련(2023년 중) 등
-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확대
 -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 추진

- 이미 유기 동물 돌봄, 시설 청소 등에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동물복지 강화 측면에 자원봉사의 개념 적용 가능

비전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달성 목표	◇ 동물학대·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 * 연간 유실·유기 발생 : ('21년) 12만마리 → ('27년) 6만마리 유실·유기동물 입양기증률 : ('21년) 33% → ('27년) 50%
	◇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동물등록률 : ('21년) 53.4% → ('27년) 70% 개물림사고 : ('21년) 2,100명 → ('27년) 1,000명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 • (인식)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 • (통계)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 • (학대) 범위 확대* 및 재발방지 강화 * 상해·죽음 유발 → 고통을 주는 행위 • (동물유기) 등록 활성화 등 예방책 마련 • (개물림사고) 맹견·사고견 양육·영업관리 강화 • (영업·실함·농장) 상업적 이용의 관리·투명성 제고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현장 대응, 처벌 등 실효성 강화 • (동물유기) 보호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정책의 논의·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 •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할 중앙·지방단위 추진체계 마련
------------------	---

〈그림 4-4〉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2.6.)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어촌대상 주요사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계승한 것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낙후된 어항 등의 SOC 개선을 추구한 반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까지 총 300곳의 항·포구와 어촌마을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 이하, 평균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임

[표 4-5] 지역별, 연도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선정개소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부산	9	1	4	2	2
인천	16	5	5	3	3
울산	5	1	2	1	1
경기	8	1	5	1	1
충남	33	6	14	6	7
전남	98	26	37	19	16
전북	22	5	9	5	3
경남	57	15	23	11	8
경북	24	5	11	5	3
강원	14	2	5	4	3
제주	14	3	5	3	3
총계	300	70	120	60	50

출처 : 온라인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어촌뉴딜 추진현황

-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을 끝으로 더 이상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지만 202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사업 : 기항지 개선(부잔교 등 접안시설), 어항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방파제, 물양장, 어구창고, CCTV 등)
 - 특화사업 : 주거개선, 문화복지, 경관개선, 관광레저 관련 사업
 - SW사업 : 주민·리더 교육, 마을 홍보, 컨설팅, 마케팅, 지역협의체 관련 사업
 - (2022년 공모 가점 사업) 어촌형 생활서비스(공유시설) 조성 사업

- 어촌의 환경을 고려한 보건·복지·교육·문화가 복합된 어촌형 생활SOC복합화 모델을 조성해 마을 단위를 지원하는 ‘어촌형 생활서비스’ 체계 마련
 - (2022년 공모 가점 사업)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
 - ‘주택+생활SOC+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 및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
-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주로 어업과 관련한 SOC 개선에 중심이 쏠려있으나 ‘SW사업’, 2022년부터 가점 사업으로 추가된 ‘어촌형 생활서비스 조성 사업’과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와 협업 가능성이 높음

[표 4-6] 뉴딜300사업 집행계획과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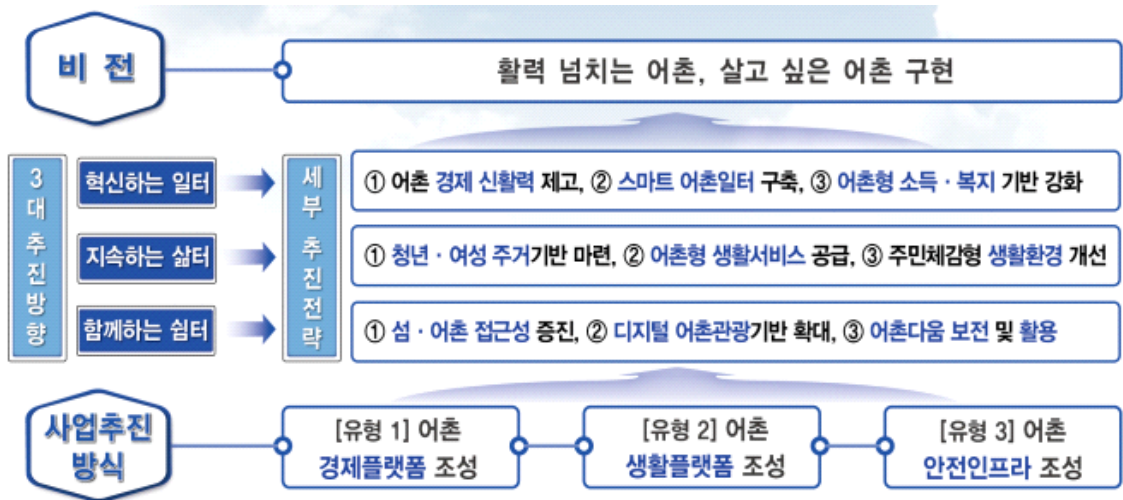
구분	세부사업내용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공통사업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불가
		기타어항시설	어구 보관 및	불가
		기타어항시설	어항시설 정비	불가
2 특화사업	관광·문화	문화·복지	맞이마당 조성	불가
		문화·복지	어울림마당 조성	불가
		경관 개선	마을 안길 정비	불가
		문화·복지	OO 활성화센터 조성	가능
	지역특화	특화시설	OO 스카이워크	불가
	지역소득 증대	소득기반	임시 주차장 및 공원조성	불가
소득기반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	불가	
3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OOO구 어촌마을 가꾸기 기초교육	가능
			OOO구 어촌마을 가꾸기 심화교육	가능
			OOO구 공동체 특화 교육	가능
			국내 선진사례지 견학	보류
		마케팅	사회적경제 분야 주민사업체 발굴 및 지원	가능
			OOO구 특화음식 개발 컨설팅	가능
			OOO구 섬 스토리 활용 체험콘텐츠 및 축제 개발	가능
			OOO구 경관계획 수립	가능
		홍보	OOO구 통합 브랜드 개발	가능
			OOO구 특산물 포장재 패키지 개발/제작	가능
	OOO구 홍보콘텐츠 제작		가능	
로컬푸드 축제 및 주말장터 운영	가능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불가	

- HW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와 협업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SW사업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귀향인(대상지 출향 주민, 주민의 자녀 등)과 귀어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사업의 특성상 자원봉사와 연계할 경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4-7]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65개소)

유형	시·도	시·군·구	대상지	유형	시·도	시·군·구	대상지
유형1 (5개소)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유형3 (30개소)	인천	옹진군	백아리2항
	충남	보령시	삽시도항		울산	동구	일산항
	전남	보성군	울포항		경기	화성시	매항항
	경북	영덕군	강구항		강원	삼척시	대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		충남	당진시	마섬항
	부산	기장군	문동			보령시	죽도항
	인천	강화군	장곶			서산시	웅도항
	강원	강릉시	안인진			태안군	연포항
		양양군	전진2리		전북		군산시
	충남	보령시	송학항		전남	강진군	숙마항
지곡			무안군			가입항	
태안군		고남				마실항	
		소원	신안군			비리·마리항	
전북	군산시	장자·대장·관리 무녀·신시·야미			여수시	소뎡이항	
	부안군	궁항	영광군			월평항	
변산면		고흥군	취도·금사		진도군	도명항	
	염포		해남군			동육항	
유형2 (30개소)	전남	순천시			용두	경북	경주시
		신안군	장산		울진군		금음항
		완도군	망남리			포항시	신창1리항
		해남군	송호		조사리항		
경북	경주시	전촌리	경남		고성군	우두포항	
		골장				남해군	모천항
	구평리	사천시			상촌항		
	이가리	창원시			용호항		
경남	거제시	도장포·해금강	통영시		대항항		
		광포			하동군	나팔항	
	안도	제주	서귀포시			대평포구	
	옥계		통영시		대항항		
	울티						
통영시	대항						
	도동						
	용초						

- 어촌뉴딜300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됨
- 2023년에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5개소,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30개소,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30개소로 총 65개소를 선정하였음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교육·문화·복지·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추진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그림 4-5>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 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 이내
 - 세부사업내용
 - (민간투자) 호텔·마리나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및 스마트 양식·수산물 가공 등 수산 분야 민간투자 유치
 - (재정지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주거·복지 생활인프라 재정 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 (경제활성화 지원) 유통·가공·판매 복합시설, 창업·창직센터 등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 (주민복지 향상)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주거단지, 교육·문화·보건 등

을 위한 복합 생활SOC 등 생활 인프라 확충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이내

• 세부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돌봄,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관계인구 유입 전략 및 창업지원 계획 수립·시행
 - * 어촌스테이션은 지역 수요에 따라 돌봄·교육, 어촌먹거리, 어촌살기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 또는 분산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조성
- (사회혁신프로그램 추진) 사회혁신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어촌스테이션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운영 주체 발굴 및 시범운영
 - * 사회혁신프로그램 사례 : 어항 환경개선(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등), 사회서비스(어촌형 고령자케어안심 임대주택-돌봄 연계 등), 로컬 비즈니스(어업생산물 가치증대, 로컬관광 등)
-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 주체 유입 및 육성 지원) 어촌생활서비스 공급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벤처, 소셜 벤처,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 주체 유입 및 육성 지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 이내

• 세부사업내용

- (재해 예방)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
 - ◆ (어항안전 확보) 태풍·폭풍·해일, 고파랑 내습 등에 안전한 어항 시설 정비로 월파방지 및 항내정온도 확보
 - ◆ (생활안전 향상) 마을정비·안전시설 조성 등 어촌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전 보장
 - ◆ (접근성 증진)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안전한 여객선 입출항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접안시설 확충 및 여객 편의시설 정비
 - ◆ (정주여건 개선)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관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으로 어촌 정주여건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의 ‘주민복지 향상 사업’, 유형2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추진 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와 협업 가능성이 높음

[표 4-8] 어촌신활력증진사업 OO생활권역 운영계획서와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구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H/W 사업	앵커조직 사무공간 조성	• 사무집기, 사무가구 임대	불가
	어촌스테이션 조성	• 어촌활력증진 활성화 거점 조성	불가
사업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OO생활권 현황, 지역자원, 서비스 수요 조사 • 생활서비스 공급전략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 단위사업별 기본구상 및 단위사업 제시 • 어촌스테이션 조성, 운영 계획 • 실행 및 관리방안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주민과 신뢰관계 맺기 • 링커조직 발굴 및 연계협력 관계 구축 • 마스터플랜 검토 및 조정 • OO생활권 자원조사(인적, 경관, 생태, 문화 등)	가능 불가 불가 가능
S/W 사업	사회혁신 프로그램	• 한주~한달살기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체험객의 유입을 위해 주민들의 거주 공간 또는 공가를 활용하여 거주환경 조성	불가
		• 어촌특화상품개발 및 창업지원 - 소득사업 컨설팅(제품개발) - 소포장 가공사업, 밀키트사업 등	가능
		• OO생활권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 OOO숲 힐링 프로그램 개발 - 야영장, 캠핑장 가족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 OO면의 O섬과 OOOO로 유입된 관광객을 OO 생활권으로 연결	가능
		• OO 웰컴센터 운영 - 온, 오프라인으로 OO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과 관계인구 유입의 안내 역할	가능
	어촌스테이션 프로그램 운영	• 어촌스테이션 운영관리 프로그램 • 생활여건 개선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가능 가능
	기록사업	• 백서발간	가능
앵커조 직 운영	앵커조직 운영	• 사업기획 및 운영 • 행정지원 및 성과분석 •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불가 불가 가능
	주민역량 향상 프로그램	• 어촌스테이션 운영 능력 향상 • 주민생활지원(회의, 문화활동, 교육, 국내외 견학 등)	가능 가능
	링커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 링커조직 발굴 • 링커조직 네트워크 구성 지원	불가 불가

- 어촌뉴딜300사업과 마찬가지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HW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와 협업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SW사업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귀향인(대상지 출향 주민, 주민의 자녀 등)과 귀어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사업의 특성상 자원봉사와 연계할 경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개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사업비 100억 원 이내 규모임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 구분

[표 4-9]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구분	전담 시·군 (10개 시·군 93개 읍·면)	전담 읍·면 (21개 시·군 31개 읍·면)
강원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전북	-	고창군(심원면),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전남	여수시,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보성군(회천면), 영광군(낙월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해남군(송지면)
경북	울릉군	경주시(감포읍),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경남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하동군(금성면)
제주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표 4-10]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행복한 삶터 조성	5년 이내, 100억 원 이내
		다(多)가치 일터 조성	5년 이내, 100억 원 이내
	시·군 역량강화	-	단 년 도, 2억 원 이내

[표 4-11]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 예시 및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기능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자원봉사 협업 가능 여부
기초생활 기반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 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 리모델링 등	불가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 학습방 등	불가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 레포츠 시설, 쉼터 등), 문화시설 등	불가
	복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이동식 복지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등)1), 작은목욕탕 등	불가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불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 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불가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불가
	주거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지붕 및 담장정비, 혐오시설 철거,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등	불가
지역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 공동시설(집하장, 선별장, 저장창고 등), 생산 가공 공장, 로컬푸드 판매장, 카페, 숙박시설3), 향토음식점 등	불가
	레저·관광	폐교활용, 생태학습장, 야영장, 낚시터, 전망대 등	불가
지역 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 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가능
	지역 활성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가능
부대상항	계획수립·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불가
	사업지원	사무장·추진위원회 지원, 자문단 운영 등	불가

- 유형1.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 사업대상지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공급·전달 기능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 세부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별 사업내용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생활SOC 시설 확충
 - H/W 및 S/W사업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및 생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유도
- 유형2.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 : 지역자원을 융·복합하여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연계 특화시설 조성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내용
 -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전문조직의 지원 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발굴된 특화아이템과 연계한 H/W사업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
 - 준공 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특화시설 활성화, 운영 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HW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와 협업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SW사업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귀향인(대상지 출향 주민, 주민의 자녀 등)과 귀어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사업의 특성상 자원봉사와 연계할 경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도시재생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자원봉사

-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한정하여 국비공모사업 추진의 근간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 및 추진체계 속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한 점이 있는지를 조사함
-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한 단위사업이나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함
 -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박근혜 정부(2014-2016), 문재인 정부(2017-2021), 윤석열 정부(2022-2023), 3개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에 특이점이 있음
 - 자원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경제를 장려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체계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자원봉사와 도시재생의 연계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개 유형사업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가 있음
- 5개 유형사업 중 자원봉사를 통한 단위사업계획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이 대부분을 차지
 - S/W 공동체사업과 거버넌스 협력체계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한 단위 사업이 특징적임
 - 보통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구성은 국토부 예산인 마중물사업, 타부처 예산의 부처협력사업, 지자체 예산의 지자체사업,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와 연계가 있는 단위사업은 마중물 사업 내 S/W사업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 총괄표를 분석해 보면 국토부의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하여 추진되는 마중물사업, 타부처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각종 부처협력사업, 지자체의 고유재원으로 추진되는 지자체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한 공간단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특징이 있음
- 특히 국토부의 마중물 사업은 크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하드웨어 사업은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들의 사업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사업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임

- 자원봉사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단위사업은 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권장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 밀접한 연계가 되고 있음

[표 4-1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자원봉사의 사례

연도	사업대상지	활성화계획 단위사업 내 자원봉사
2014 (1)	동구 선도지역사업	-
2016 (2)	서구 오천마을(일반근린형)사업	-
	광산구 송정역세권(일반근린형)사업	-
2017 (3)	광산구 원도산(주거지지원형)사업	-
	남구 양림동(일반근린형)사업	-
	서구 창작농성골(우리동네살리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 운영계획) 창작농성골 작은도서관 운영 ◆ 자원봉사수요처 등록으로 인근 학생들에게 마을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 제공
2018 (5)	서구 벚꽃공동체마을(주거지지원형)사업	-
	남구 사직동(주거지지원형)사업	-
	북구 대학타운(중심시가지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담당업무) 주민공동체팀 ◆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홍보·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북구 광주역(경제기반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광주 자원봉사자센터 ◆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지역 봉사조직 활성화
	동구 동명동(주거지지원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세대 공감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대상자 교육 및 진행
2019 (4)	동구 서남동 인쇄문화마을(중심시가지형)사업	-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마을(일반근린형)사업	-
	북구 임동 버드리마을(우리동네살리기)사업	-
	남구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협업체계 등) 주민주도조직 사업 참여 및 갈등관리 방안 ◆ 마을분쟁해결센터 활용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
2020 (3)	남구 방림2동(우리동네살리기)사업	-
	동구 산수동 인정사업	-

	광주역 혁신지구 사업	-
	북구 오치동 인정사업	-
2021 (2)	동구 계림동 경영마을(우리동네살리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공동체 확대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 방과후 아카데미, 문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출처: 연구진 작성

○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가 비슷하며, 아이템 및 테마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추진되는 사업적 맥락이 있음

-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내 자원봉사를 살펴본 특징이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내 자원봉사의 활용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력을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의 단위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에 인천 동구 도시재생사업, 파주 금촌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현장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사업에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4-13]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성

구분	사업구성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H/W	거점공간(시설)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핵심거점시설 조성
		노후주택정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생활가로경관개선사업	주민보행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보안등 설치 등
	S/W	주민역량강화	주민대상 선진지 견학,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도시재생대학, 소식지 발간 등
		주민제안공모사업	기획공모, 일반 공모 등
부처 협력 사업	생활여건개조사업(지역발전위원회)		생활인프라 확충, 집수리지원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중기청)		특화요소고도화,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 콘텐츠 개발, 마케팅 교육 및 활동 등
	생활·문화·관광 등 진흥사업(문체부)		역사문화 마을관광사업,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등
	어린이집 이전 설치(보건부)		
	대학교 관련 시설 조성사업(교육부)		

	하수도, 슬레이트 정비 등(환경부)	하수도 악취 저감시설 설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지자체사업	각종 주민생활인프라시설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	도시가스 시설공사 등	도시가스 개설공사,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표 4-14] 도시재생현장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력 예

인천 동구 도시재생사업	파주 금촌 도시재생사업
	
<p>인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구내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2021.09.24.)</p>	<p>파주시 금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23.03.07)</p>

- 도시재생사업과 자원봉사의 관련성을 요약해보면, 국비예산이 매칭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사업에서 자원봉사와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직접적 예산집행을 통한 자원봉사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활동의 사업참여를 인센티브로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직접적인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이 예산측면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특성을 극복하고자 지원센터나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참여의 주민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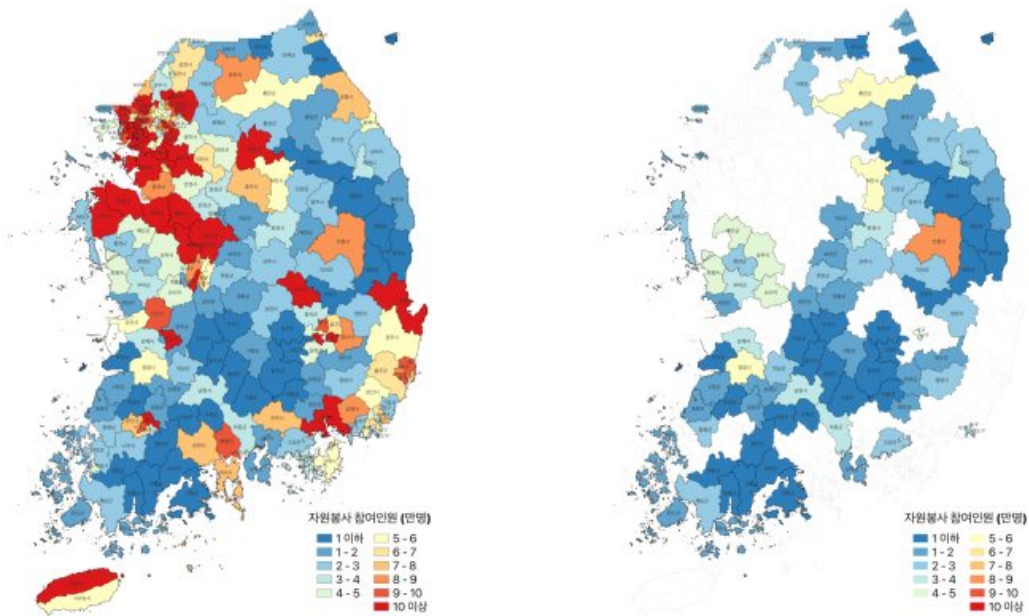
5장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공간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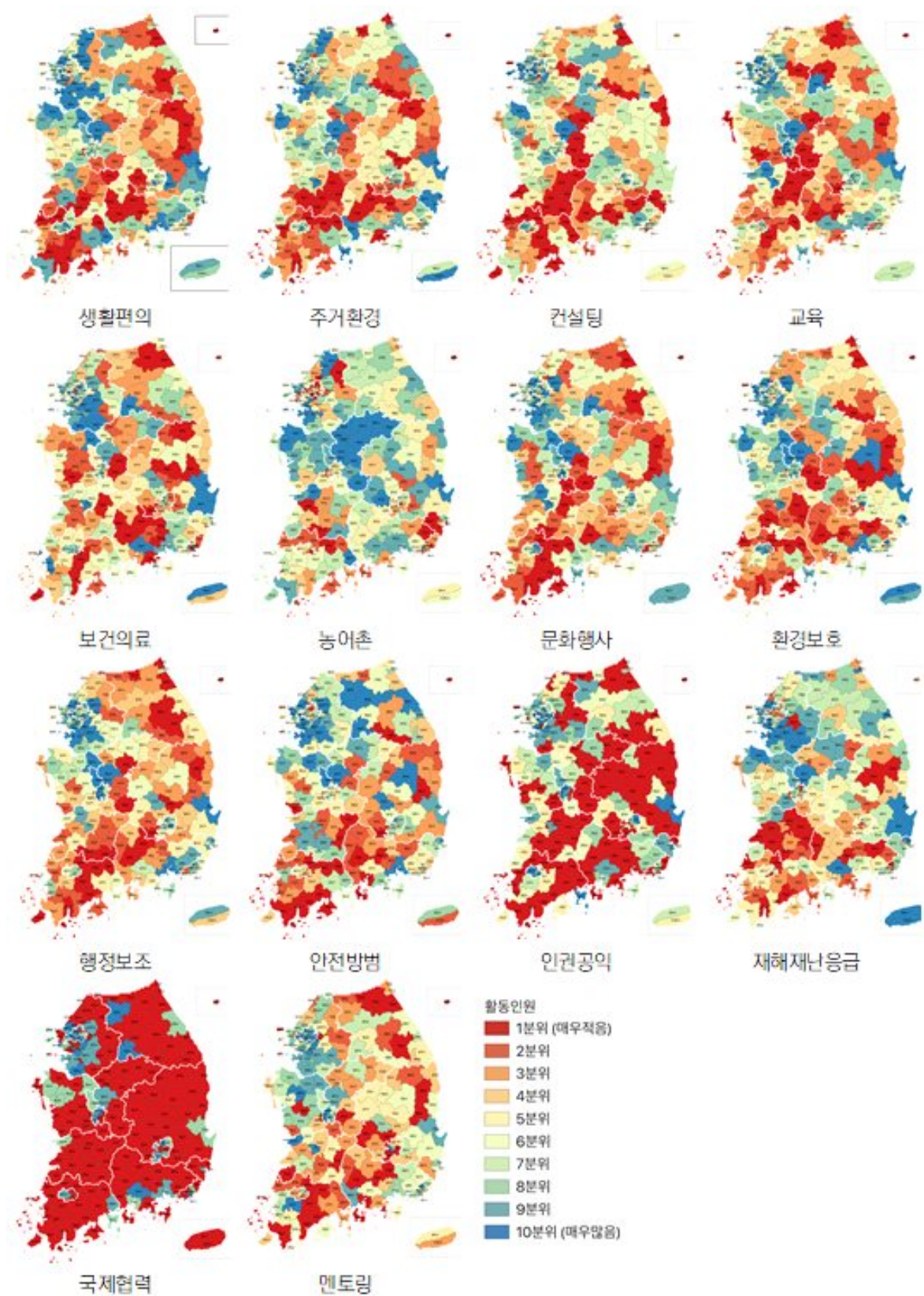
1.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공간 분석

■ 자원봉사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현황

- 1365 포털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특색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는 지역의 인구 규모와 비례하여 주로 인구집중지역인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주로 대도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자원봉사 인구가 높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은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농어촌 봉사를 제외하고 대민 분야의 대부분 영역(생활편의지원, 주거환경, 교육, 상담, 보건의료)의 자원봉사활동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농어촌봉사 분야는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확인됨
- 사회분야인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범,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국제협력/해외봉사는 일반적으로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에 특히 집중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행정보조와 국제협력 분야임



〈그림 5-1〉 자원봉사 참여인원 분포(왼쪽 : 전국, 오른쪽 : 인구감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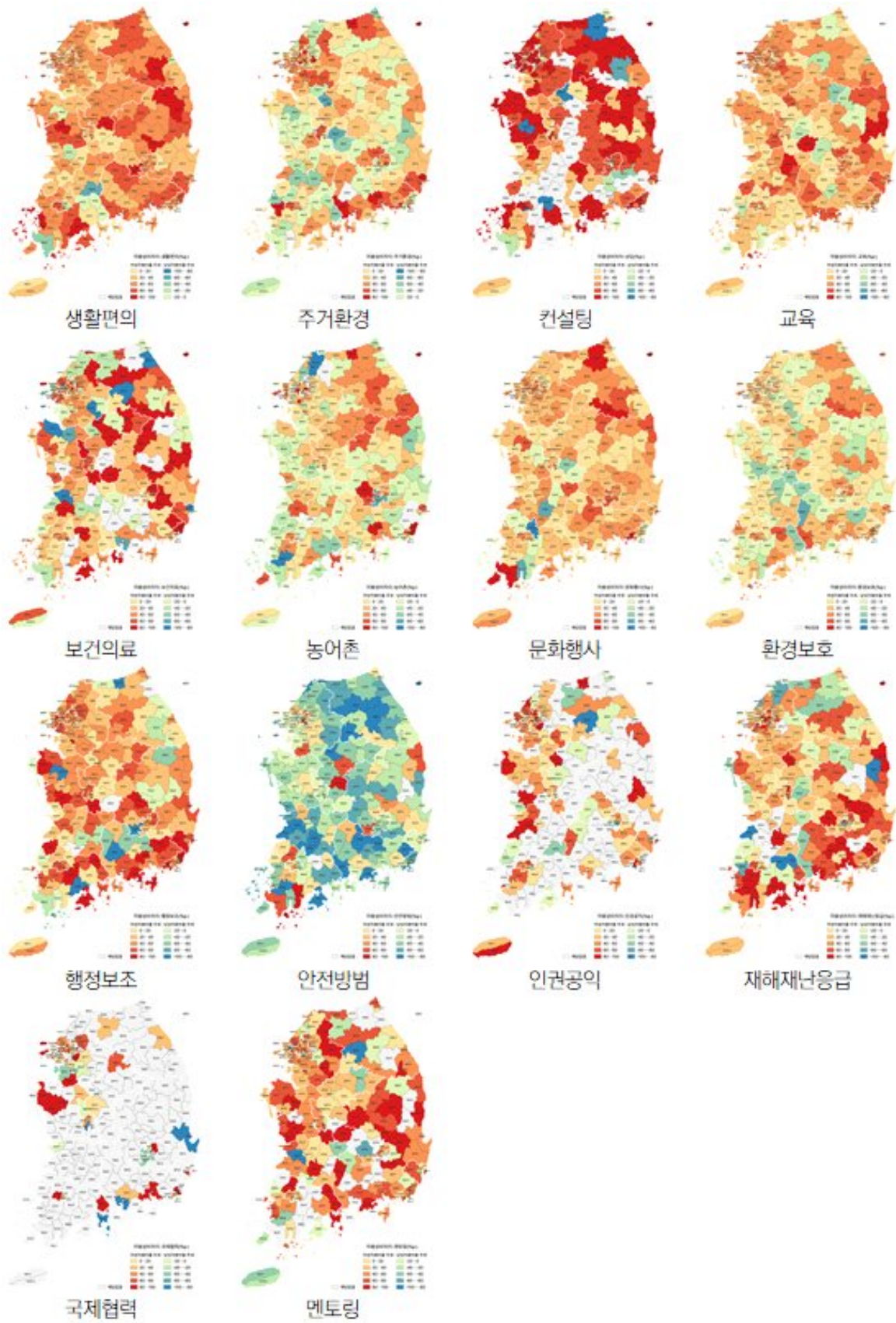
〈그림 5-2〉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 자원봉사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성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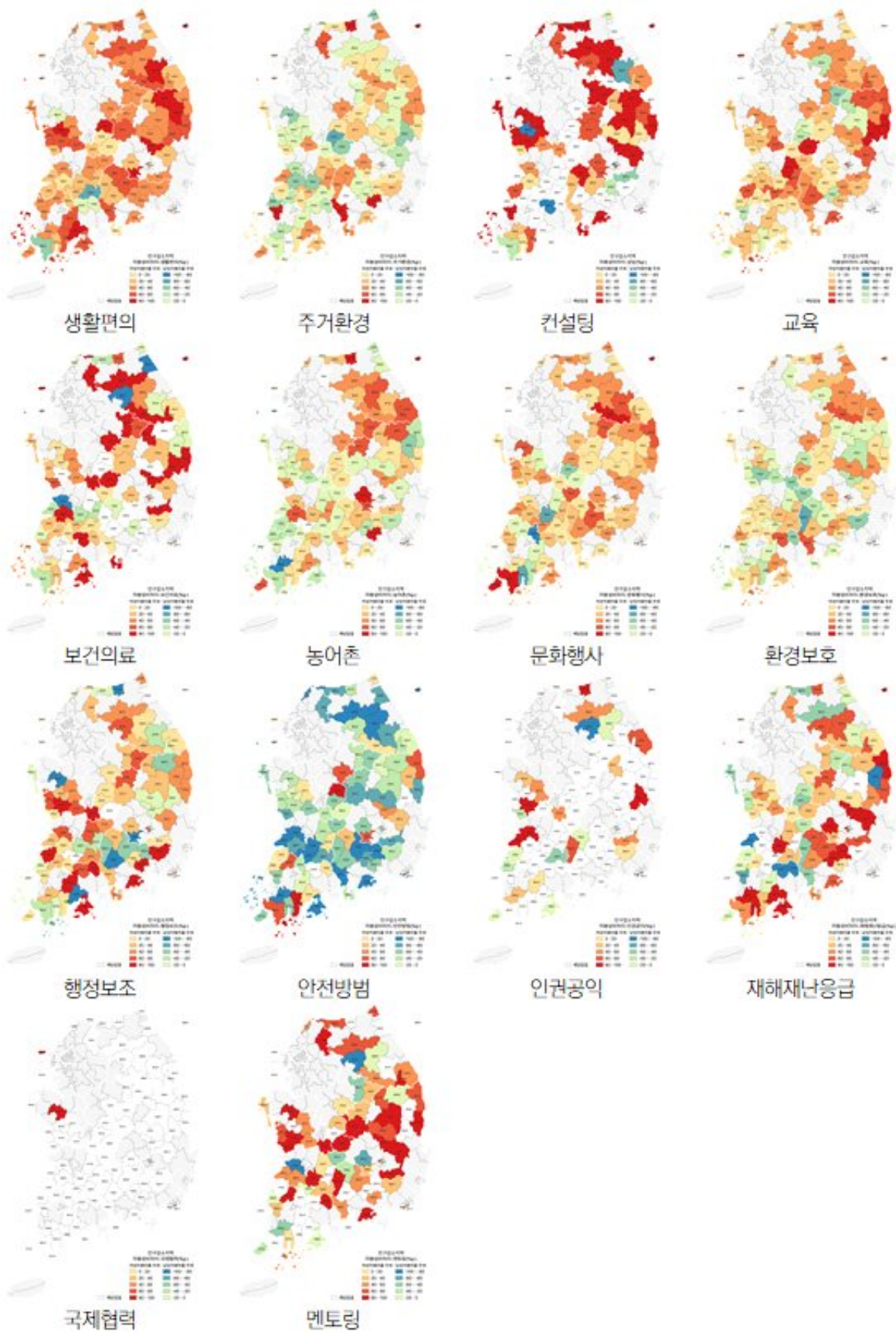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음
- 생활편의, 상담, 교육, 문화행사, 행정보조,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멘토링 분야에서 여성 자원봉사자 비율이 남성 자원봉사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예외적으로 강원 동해시,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남원시, 광주 북구,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해남군의 경우 생활편의분야에서 남성 자원봉사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
 - 상담분야는 자원봉사 남녀성비의 차이가 다른 분야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여성자원봉사 비율이 8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음
 - 이례적으로 강원 인제군, 충북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대구 서구, 광주 남구의 경우 남성 자원봉사자 비율이 80%를 넘음
- 안전/방법은 남성 자원봉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례적으로 서울 동작구,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완도군의 경우 안전/방법 분야 여성 자원봉사자 비율이 80%를 넘음
- 주거환경, 농어촌, 환경보호는 자원봉사 성비 차이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분야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 자원봉사 비중이 높음
 - 농어촌 분야는 강원과 충북지역의 지자체에 여성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고,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일수록 남성 자원봉사자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내 자원봉사 분야별 성비 현황

-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국한하여 자원봉사자 성비를 확인해보면 분야별로 성비차이가 확인됨
- 생활편의, 상담, 교육, 보건의료, 문화행사, 행정보조, 멘토링 분야는 여성 자원봉사참여 비율 높음
- 안전/방법영역의 남성 자원봉사자 비율이 여성봉사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 주거환경, 농어촌, 환경보호는 남녀 자원봉사자 성비의 지역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5-3〉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력 성비



〈그림 5-4〉 인구감소지역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인력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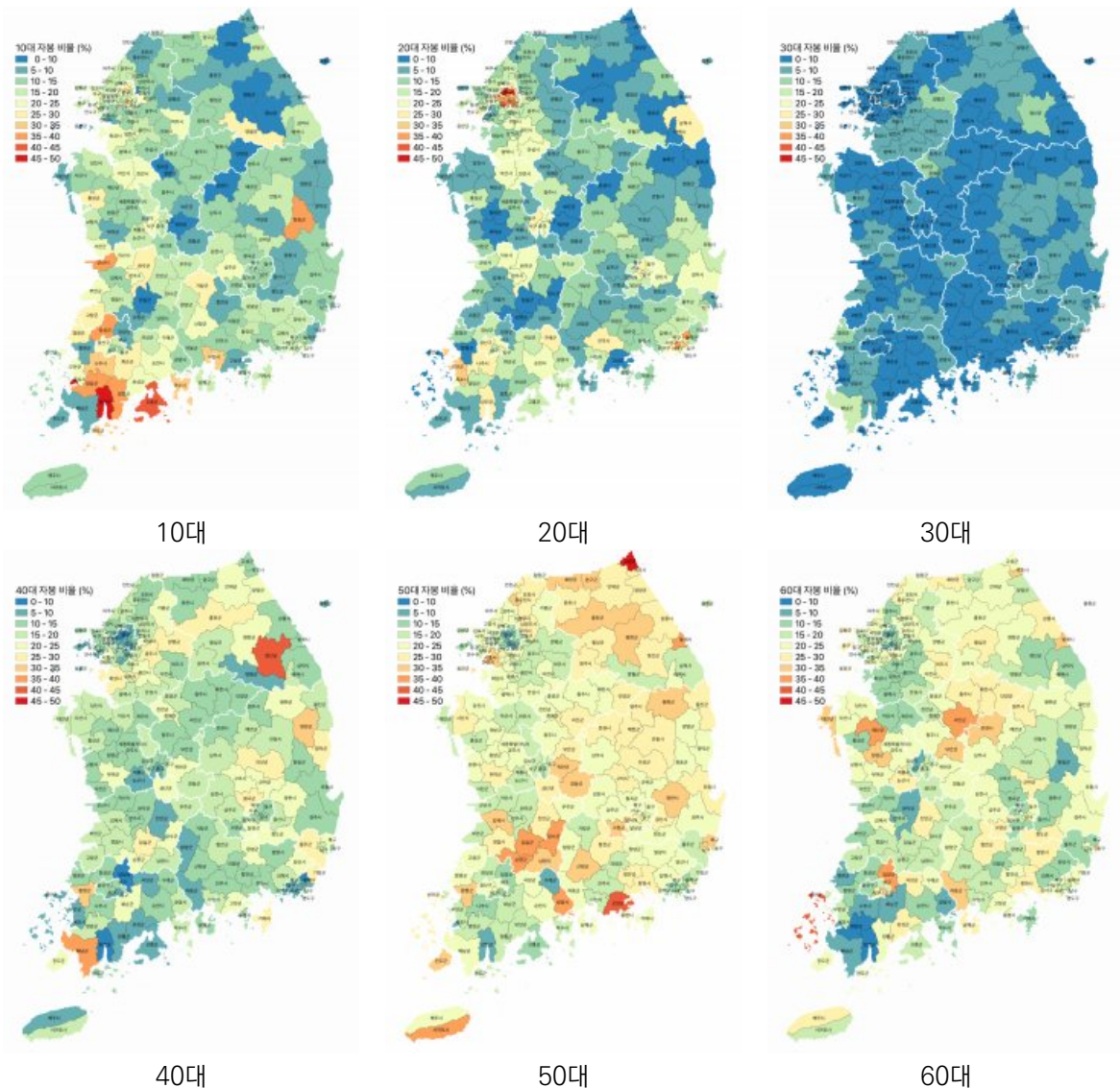
■ 연령별 자원봉사자 분포

○ 주로 50·60대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

- 강원 고성군, 경남 고성군, 전남 신안군의 50·60대 자원봉사 비율 40% 이상

○ 10·20대 자원봉사자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30대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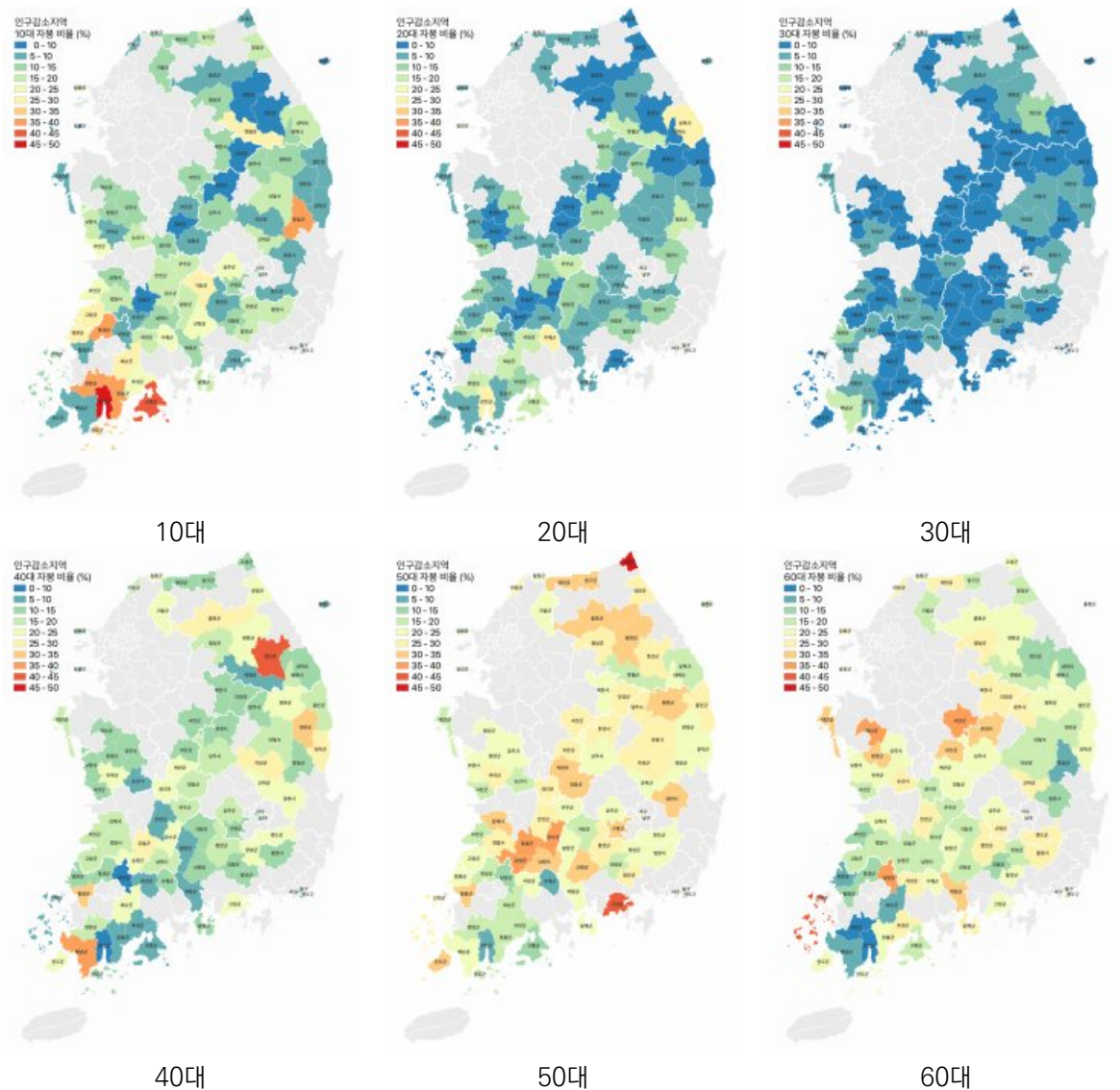
- 이례적으로 전남 목포시, 강진군, 고흥군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40% 이상이 10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변 지역인 영암군, 장흥군의 10대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5-5〉 연령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 인구감소지역 내 연령별 자원봉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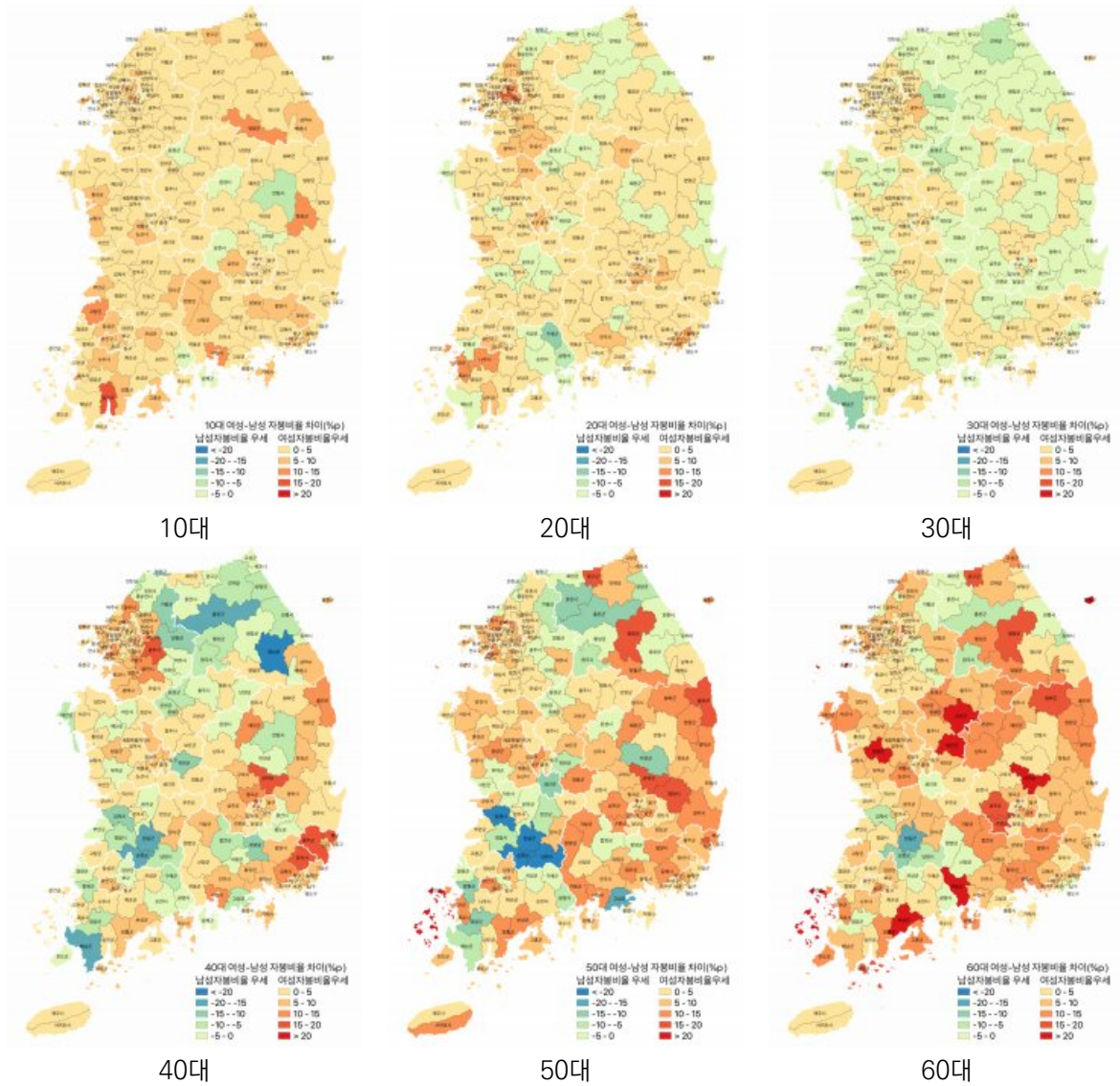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내 50대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특히 강원 고성군과 경남 고성군의 경우 50대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45%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의 참여 비율을 상회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청소년·청년층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낮음
 - 10대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20·30대에 비해 높음
 - 전남 강진군은 10·20대 자원봉사 참여율이 75%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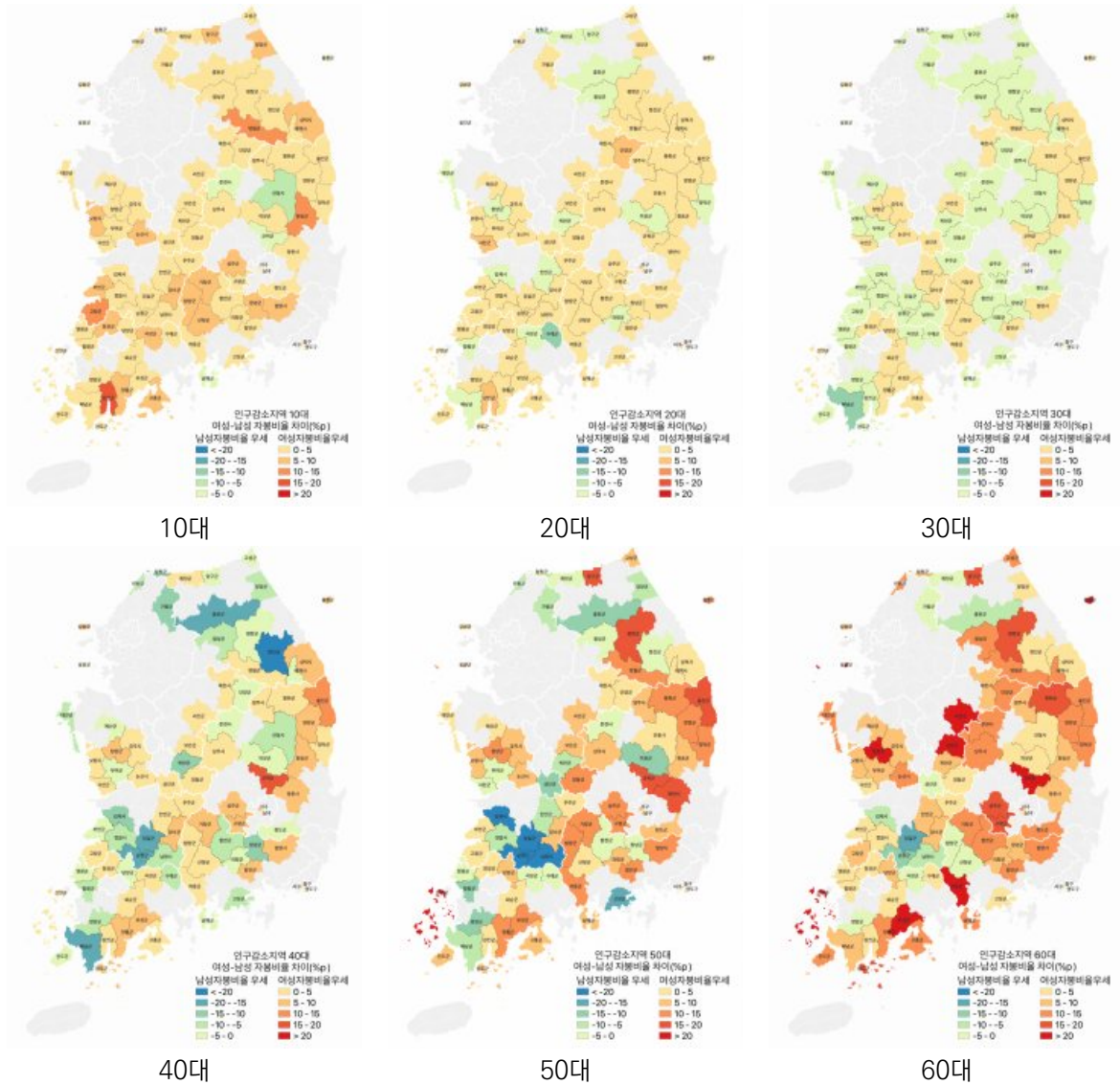
〈그림 5-6〉 인구감소지역 연령별 자원봉사 활동인원 분포

■ 연령별 자원봉사자 성비

- 3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
- 강원도 대부분 지역,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지역, 그리고 전북 남부지역에서 40대의 남성 자원봉사 비율이 40대 여성 자원봉사자 보다 높음
-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의 경우 남성 장년층 비율이 높음



〈그림 5-7〉 연령별 자원봉사 성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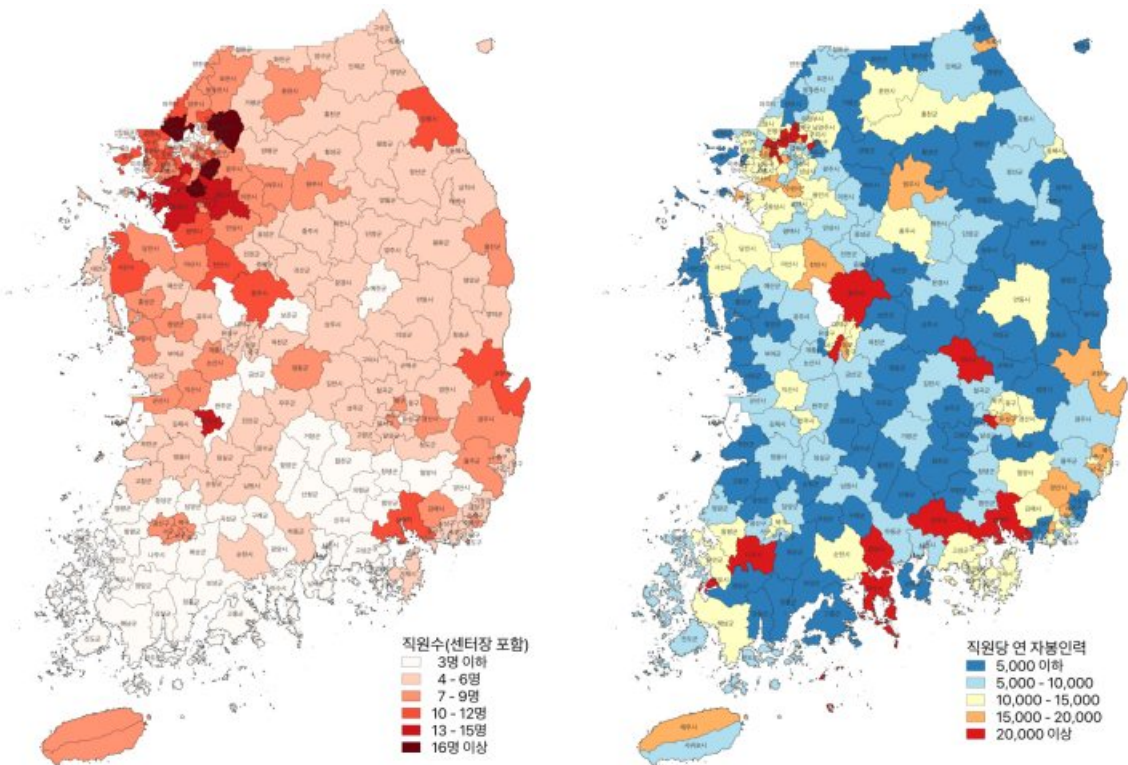
〈그림 5-8〉 인구감소지역 연령별 자원봉사 성비 차이

■ 자원봉사 지원인력 및 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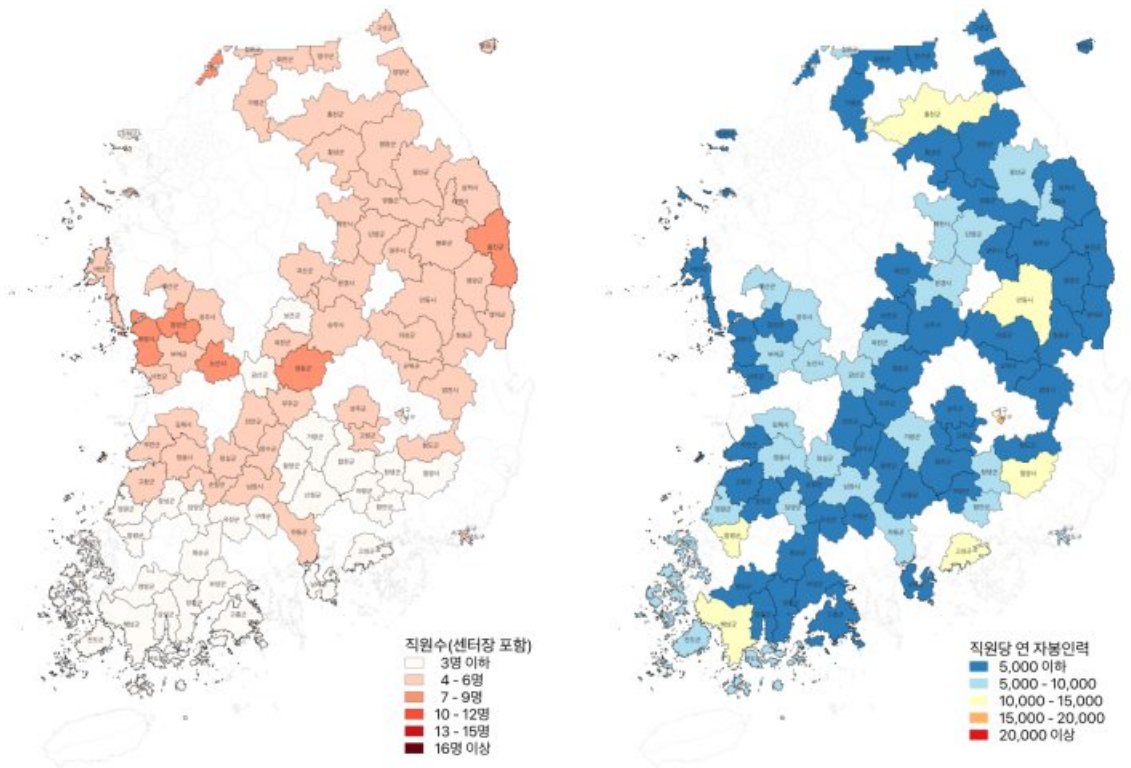
- 센터장 포함, 상근인력은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많이 분포
- 비수도권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상근직원 수가 작고, 특히 경남과 전남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수가 3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원 인력 1명이 1년간 담당하는 자원봉사 인원 많으며,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직원 1인당 담당 자원봉사 인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됨
 -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직원 1인당 담당 자원봉사 인력이 높은 곳은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목포시·여수시·광양시, 경북 구미시·진주시, 경남 창원시로 직원 1

인이 담당하는 자원봉사 인력이 1년에 2만 명 이상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자원봉사 인력은 1만 명 이하임
 - 강원 홍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밀양시, 고성군, 전남 함평군, 해남군의 경우 1만 명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담당 직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인력 수급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 인력 부족 현상이 보이며, 비단 대도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도 발견됨
- 도시화 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의 상대 우위가 존재
 -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가용 보유율이 높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른 연령보다 낮은 30·40대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그림 5-9〉 지원 인력 현황(왼쪽 : 상근직원 수, 오른쪽 : 직원 1인당 담당 연 자원봉사 인력)



〈그림 5-10〉 인구감소지역 지원인력 현황(왼쪽 : 상근직원 수, 오른쪽 : 직원1인당 담당 연 자원봉사 인력)

2.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조사 및 분석

■ 조사 개요

- 인구감소에 따른 자원봉사의 현황과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진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23년 8월 7일 ~ 16일까지 실시함
 - 조사대상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총 90개의 표본이 취합되었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의 표본은 42개였음

[표 5-1] 조사응답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인구 감소 지역	대상	42	46.7
	비대상	48	53.5
합계		90	100.0



- 조사문항은 크게 2개 영역 14개 문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 센터의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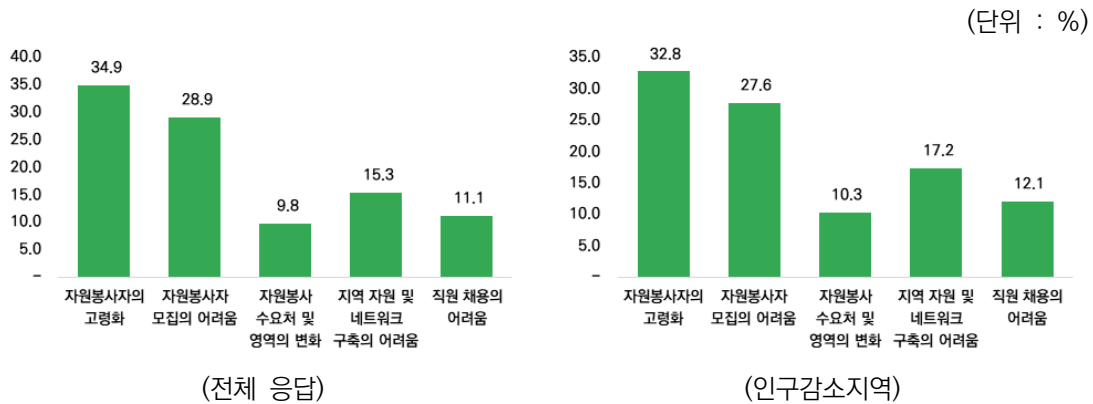
[표 5-2]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문항 수
인구변동으로 인한 자원봉사의 현황	인구감소 우려와 자원봉사센터의 문제	1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사업	1
	센터 직접 추진 및 협업 사업	2
인구감소대응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1
	가장 필요한 요소	1
	2024년 시범사업 참여 의향	1
	관심 있는 사업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 내 협업기관	1
	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제안	1
조사기관 현황		4
합계		14

■ 인구변동으로 인한 자원봉사의 현황

○ 인구감소 우려와 자원봉사센터의 문제

-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의 우려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사업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복수 응답으로 요청한 결과, 전체 응답과 인구 감소지역의 응답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음
- 가장 큰 문제로 자원봉사자의 고령화를 크게 지적하였고,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 특이하게도 전체 응답과 인구감소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인구 감소의 문제 외에도 인구 고령화의 현상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갈수록 커진다고 판단됨



〈그림 5-11〉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당면한 문제

○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사업

-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응답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전체 응답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크게 등장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지방소멸기금과 같은 재정과 관련된 용어가 일부 나타남
 - 생활인구, 전입세대,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 정책도 있었으며, 청년, 결혼, 신혼부부, 출산지원금과 같은 저출생과 관련된 단어들이 부각됨
- 인구감소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지역별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가 보이지만,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청년정주지원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및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도 다수 나타남



(전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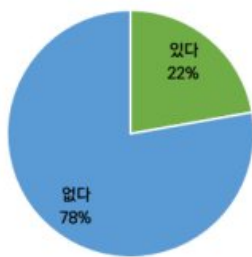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그림 5-12〉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사업의 응답에 관한 단어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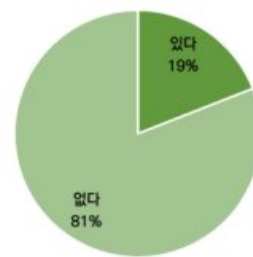
○ 센터 직접 추진 및 협업 사업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과 관련하여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협업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 22%가 있다고 응답했고, 인구감소지역은 19%가 있다고 응답함

(단위 : %)



(전체 응답)



(인구감소지역)

〈그림 5-13〉 지역 자원봉사센터 직접 추진 및 협업 사업

-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협업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8개 지역만 진행 중인 사업을 설명함
- 각 지역에 특색에 맞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관광홍보 자원봉사단을 운영 중이고, 청양군자원봉사센터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에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부산서구자원봉사센터는 고령자, 어르신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령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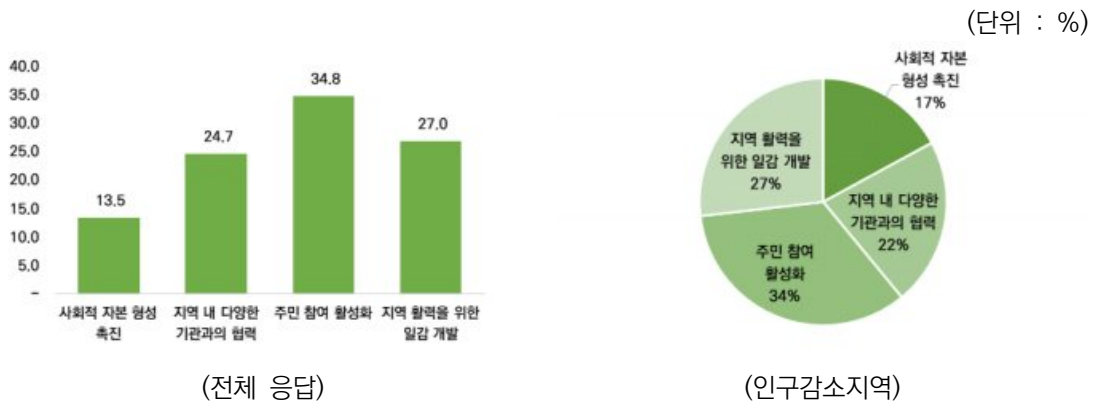
[표 5-3]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센터명	주요정책과 사업
영주시자원봉사센터	• 내게와 영주 - 관광홍보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시외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홍보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산서구자원봉사센터	• 고령자, 어르신을 위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활동
부여군자원봉사센터	• 가사서비스 - 매월 지정 독거노인 방문, 집안 환경정리 및 말벗 등 정서 지원
청양군자원봉사센터	• 통합돌봄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민원처리방 운영 - 군내 의료, 복지기관 다수
보령시자원봉사센터	• 행복비타민 충전소 - 월 1회 읍면동별 전문봉사단이 찾아가 한자리에서 봉사서비스 수혜를 받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중식을 만들어 나누는 사업 진행 •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집수리, 이동빨래, 칼갈이, 청소봉사, 전기수리 등 읍면동 마을단위로 찾아가 문제 해결에 도움 * 센터역할: 봉사자 지원, 재료비 지원 * 협업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중부발전(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 꽃페스타 자원봉사자 연계
김제시자원봉사센터	•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내 행사들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협업 사업 실행

■ 인구감소대응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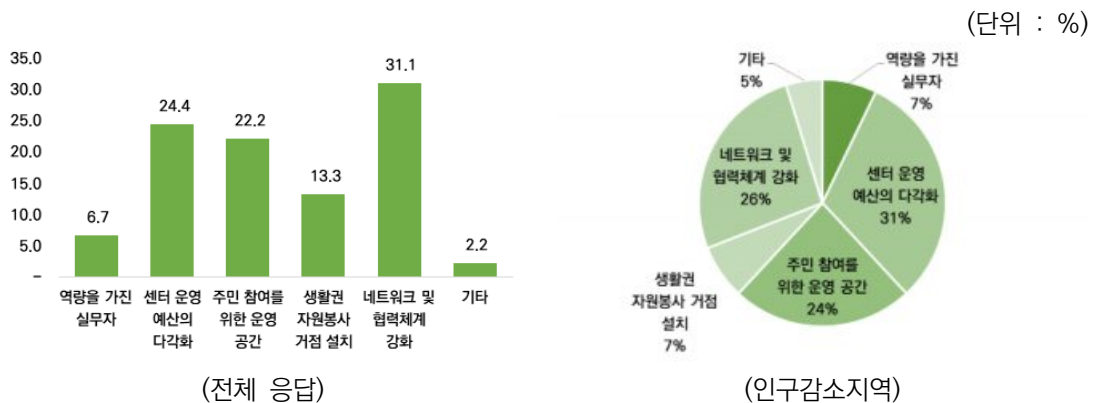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 전체 응답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 34.8%로 가장 많았고, 지역 활력을 위한 일감 개발 27.0%,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24.7%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응답이 나왔는데, 주민 참여 활성화 34%, 지역 활력을 위한 일감 개발 27%,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2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4〉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네트워크 협력 체계 강화 31.1%로 가장 높았고, 센터 운영 예산의 다각화 24.4%, 주민 참여를 위한 운영 공간 22.2%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응답은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센터 운영 예산의 다각화 31%로 가장 높았고, 네트워크 협력 체계 강화 26%, 주민 참여를 위한 운영 공간 24%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갖는 행·재정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그림 5-15〉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2024년 시범사업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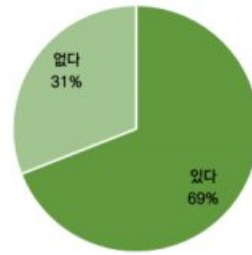
- 2024년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 77%가 있다고 답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69%가 있다고 응답함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83.3%가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히는데 반해, 인구감소지역은 69.0%에 그쳐,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 역시 검토할 필요가 보임

(단위 : %)



(전체 응답)



(인구감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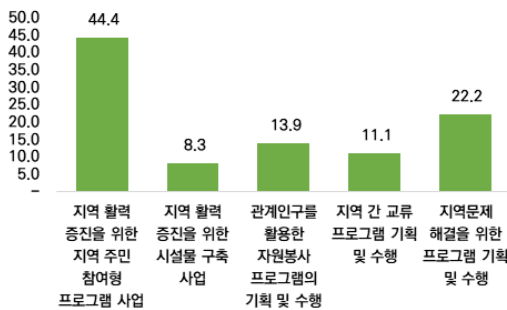
〈그림 5-16〉 2024년 시범사업 참여 의향

-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중 2024년 시범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27개 지역으로 나타남
 - 가평, 괴산, 구례, 김제, 논산, 단양, 무주, 밀양, 보령,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여, 삼척, 상주, 양양, 영주, 옥천, 울릉, 의성, 진도, 청양,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홍천, 순창(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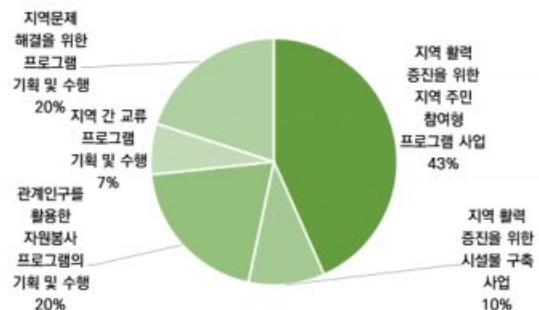
○ 참여 의향과 관심 있는 사업

- 참여 의향이 있다면, 가장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에서는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이 가장 많은 44.4%였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이 2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

(단위 : %)



(전체 응답)



(인구감소지역)

〈그림 5-17〉 2024년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

[표 5-4]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 사업의 주요내용

구분	지역명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괴산, 구례, 김제, 논산, 단양, 무주, 부산 동구, 부여, 상주, 양양, 울릉, 태안, 함안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시설물 구축 사업	양양, 옥천, 평창
관계인구를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수행	가평, 구례, 밀양, 영주, 의성, 하동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보령, 순창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부산 서구, 진도, 청양, 홍천
기타	삼척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 내 협업기관

-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내 협력 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단어 구름’을 작성해 빈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에서는 지자체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시도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문화재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청 등이 나타나 도시재생,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필요를 가장 크게 보였음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역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시도자원봉사센터가 크게 부각되었지만, 청년센터, 활성화재단 또는 사업단, 귀농·귀촌모임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



(인구감소지역)

〈그림 5-18〉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역 내 협업기관

■ 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제안

- 이 조사에서 개선 과제와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됨
 -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및 사업 방향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안
 - 교류 협력 및 관계인구 형성과 관련된 제안
-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및 사업 방향
 - 기존 정주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들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참신한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함
 -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인구 중에서도 지역마다 인구 분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함
 - ‘지역활력 증진’의 측면에서 지역주민 자원봉사 욕구(조사)에 기반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로의 연결고리(정체성)를 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인구감소 대응보다 지역 거주민의 고령화에 맞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
 - 주민 자치회 등 기존 조직과의 연대 및 마을 소규모 동아리 등 자생 조직을 자원봉사와 연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 확대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 부담 증가, 지역공동체 붕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강화할 수 있는 마을 단위 돌봄 사업 확대
 - 과거 안녕 캠페인(Re-action)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센터 직원들의 사업 이해와 공감 부족으로 사업초기 참여 미흡과 방향 오류가 발생
 - 센터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파가 필요
 - 이외에도 1년 단위의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 설계 및 지원, 지역 관공서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 센터의 입지를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안
 - 지역 거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 노후주택 집수리봉사단, 정보화교육봉사단, 배달강좌봉사단 등
 -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각각 생활하기에 바쁜 현실을 고려해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지역 정착 지원금 수령 대상에 지역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수 반영
 - 지역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시행
 - 환경 캠페인,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성 증진 교육, 네트워킹 및 실천활동 기획
 -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을 돌며, 1365홍보(가입안 내, 자원봉사 활동연계)와 미니 자원봉사박람회개최
 - 미니 자원봉사 박람회는 각 동의 유관기관, 마을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복지에서 환경까지 다양한 부스를 운영, 주민참여 등 지역활력 증진, 더불어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
 - 관광과 연계한 봉사활동-볼런티어링 사업
 - 고령화된 자원봉사자와 지역의 아동을 연계한 사업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교류 협력 및 관계인구 형성에 관한 제안
- 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활발한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
 - 지역을 찾는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인구가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 사업 개발
 - 창업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서 포함하는 자원봉사 과정 도입
 - 청년층 인구 유출을 비롯한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일감 개발이 필요
 - 지역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형 활동
 -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기존 장년층)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능봉사활동
 - 지역공동체 거점공간과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간 내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활동으로 추진

■ 소결

-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자원봉사의 고령화,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지역활력 증진사업은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적극적인 사업 수행 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 충족에만 주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 기획과 추진 역량의 한계도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판단됨
 - 영주, 부산서구, 보령, 청양 등과 같이 지자체, 기관, 단체,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시도하며 자원봉사의 역할 모델을 찾아가는 지역도 일부 나타난 점은 향후 사례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로는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활력을 위한 일감 개발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현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크게 고려함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민 참여를 위한 운영 공간 부족도 적지 않게 요구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유휴 공간 등에 대한 이용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4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2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이 가장 많았고, 관계인구를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계획 과정에서 희망하는 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관으로는 지자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도시재생센터, 광역자원봉사센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센터, 활성화재단 또는 사업단, 귀농귀촌모임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안사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큰 부분으로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의 사업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기존 정주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들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참신한 사업 발굴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함
 -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인구 중에서도 지역마다 인구 분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고,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 자원봉사 욕구(조사)에 기반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되며, 특히 자원봉사로의 연결고리(정체성)를 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추가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류 협력 및 관계인구 형성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음
 -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이 크게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신규 자원봉사자 유입에 관한 의견과 함께 미니 박람회 등의 지역별 프로젝트가 제안됨
 - 관계인구에 대한 의견으로 자원봉사센터 간 교류 협력,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관계망 확대, 제도적 정비 등의 의견이 제시됨
 - 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활발한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하고 지역을 찾는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인구가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 사업 개발 등 제안
 - 창업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는 자원봉사 과정 도입
- 이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모델 지역을 선정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기반 자료로 활용해야 함

6장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 이해관계자 FGI

1. 집단심층면접(FGI)의 개요

■ 집단심층면접의 개념과 방식

- 집단심층면접,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사 방법이며, 좌담회, 표적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함
- FGI는 인터뷰를 이끌어나가는 한 명의 진행자와 4~8명의 면담자들이 함께 토론 형식으로 진행
 - FGI는 한 번에 여러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인터뷰보다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면담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조사 및 토론을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놓치고 있던 정보를 수집하기에 유리함
 - FGI는 논의를 조절하고 심화해 나갈 수 있는 진행자가 있기 때문에 정리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음

■ 집단심층면접의 실행 방안

-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준비하고, 지역 및 참여자 그룹에 따라 약간 세부적인 질문을 달리 하는 형식을 취했음
- 대상지역을 설문조사 결과와 (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사전 접촉을 통해 선정했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중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지역
 - 차기 시범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는 지역
- 참여자를 지역별로 구분해 집단 면접을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각 지역의 인적자원을 스스로 구성해 참여하도록 사전에 조율했음

■ 집단심층면접의 진행 방식

- 집단심층면접의 세부 질문은 사전에 알려 참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 영향
 -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직면하는 사업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이 내세울 만한 자원(유명한 특산물, 관광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 등)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갖는 지역 안팎의 주요 기관과 단체
-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 역량과 각 역량별 현재 센터의 수준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속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관련 사업의 유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지자체의 지역 활력 증진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이유
-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지역 활력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협업하고 있는 사업
 - 2024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 체류형 볼런투어와 관계인구 촉진 프로그램
- 외부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의향
 - 유관 기관 및 단체라면 함께 협력하실 의향
 -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내 협력 기관과 협력 방안

■ 집단심층면접 일정과 참석자 명단

- 2023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참가자를 선정해 3~10명이 참여하고, (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연구진이 참여해 진행함

[표 6-1] FGI 일시 및 참석자 명단

광역	대상 센터	일시/장소	참석자(성명/소속)
경북	의성군 종합 자원봉사 센터	23.10.11 13:00 /의성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김의욱 센터장, 조봉실 팀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 의성군센터 : 정명관 센터장, 안효진 팀장, 강필중 팀장 • 의성군청 : 김시찬 팀장, 이수경 주무관 • 경북센터 : 김태우 사무국장 • 유관기관 : 행복의성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 바른게살기운동협의회 이정임 사무국장, 한국자유총연맹 이미지 사무국장, 의성청년회의소 박영곤 회장, 권민재 내무회장

광역	대상 센터	일시/장소	참석자(성명/소속)
	영주시 자원봉사 센터	23.10.11 16:00 / 영주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김의욱 센터장, 조봉실 팀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박수진 연구원 • 영주시센터 : 함연화 센터장, 박경호 사무국장 • 영주시청 : 김혜영 새마을봉사과 주무관 • 경북센터 : 김태우 사무국장
충남	태안군 자원봉사 센터	23.10.12 10:00 / 태안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조봉실 팀장, 강하라 과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 태안군센터 : 황용렬 센터장, 가제현 사무국장 • 태안군청 : 한주영 복지증진과 주무관 • 충남센터 : 김진홍 사무국장
전북	김제시 자원봉사 센터	23.10.13 13:00 / 김제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윤순화 사무처장, 강하라 과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양동우 연구원 • 김제시 센터 : 남궁행원 센터장, 이지안 사무국장 • 김제시청 : 인구정책팀 김숙영 팀장, 조은주 주무관, 자원봉사 성경진 주무관 • 전북센터 : 백상수 대리
경남	남해군 자원봉사 센터	23.10.16 13:00 / 경상남도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강하라 과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문요한 연구원 • 남해군센터 : 송인필 사무국장 • 남해군청 : 복지정책과 하현주 팀장 • 경남센터 : 김해문 사무처장
	거제시 자원봉사 센터	23.10.16 15:00 / 경상남도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강하라 과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문요한 연구원 • 거제시센터 : 최혜선사무국장 • 거제시청 : 김동현 행정과 주무관 • 경남센터 : 김해문 사무처장
충북	괴산군 자원봉사 센터	23.10.25 13:00 / 괴산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 : 김의욱센터장, 조봉실 팀장 • 연구진 : 윤희철 센터장 • 괴산군센터 : 이규서(센터장), 이주미 국장, 한유미 팀장, 최상미 팀장, 김미용 대리 • 괴산군청 : 강나영 팀장, 우은숙 팀장, 노지우 • 충북센터 : 이기욱 사무국장, 조홍주 팀장

2. 집단심층면접(FGI)의 주요내용

■ 경북 의성군

- 일시 : 2023.10.11. 13:00 ~ 15:00
-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40~50대로 집중되고 있다. 기술이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에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갈수록 부족하다.”

-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평균 연령 58세, 고령화, 자원봉사자 발굴 문제는 인구 5만 명의 이하로 감소로 연결된다.
- 인원이 적어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껴치는 부분이 많다. 일정 시간 등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자원봉사센터는 젊은 층이 있지만, 대부분 중간 연령대의 자원봉사자가 없다.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일을 하는 지역 내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 다음 주자가 없다. 그래서 서울 등 타 지역과 연계를 하려고 한다. 타 지역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 농촌일손돕기, 집수리 등을 진행한다.
- 자원봉사자는 1만 2천 명이지만 봉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평일 봉사활동이 어렵다. 같은 사람이 중복되는 문제가 많고, 40~50대로 자원봉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재능기부 집수리 봉사를 하는데, 연령대가 높아지고, 젊은 사람이 없다. 도배 봉사를

예로 들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적는데,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다.

- 저출생, 고령화는 결국 사람의 한계로 귀결된다. 한 사람이 직함을 3~4개 갖는 경우도 있고, 예전처럼 봉사를 하지 않는다. 5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가 대부분이다.
- 청년지원사업은 군청, 자원봉사센터 등 적극 열심히 하는 중이다.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
- 의성군 청년층은 주로 직업,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를 통해 이곳에 정착하는데 직업을 가진 경우 이탈률이 높다. 현재 있는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의성군의 자원은 마을, 특산품, 인구소멸과 청년정책(인식전환)이 있다. 벼농사(서부), 사과(동부)라는 지역 특색이 있고, 5대 농산물(마을, 쌀, 사과, 자두, 복숭아)이 있다.
- 지질공원, 금성산 등 유적지, 계곡, 박물관, 금성 등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 옛 수리시설(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중)이 있고, 켈링도 유명하다.
- 지역의 네트워크로 미용봉사, 경로잔치 등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방안은 필요하다. 또한 귀농귀촌센터와 협업, 자율방법, 도센터와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노인통합돌봄과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지역내 기관 단체와의 협력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역할을 위해 현실적인 구조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자에 대한 케어, 독거노인 돌봄, 건강, 사람에 대한 접근을 요구받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 예산을 복지에만 투입하기보다 자원봉사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지역 특색을 고려할 수 있다.

- 공모사업에서 재료비만 구입이 가능하고 기름값, 간식비, 식사비 등을 지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5대 원칙 중 '무보수의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인센티브 부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중앙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기존 성장의 슬로건이 현재는 장벽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무보수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 노인케어, 생애 주기 돌봄으로 현재 의성군은 일상, 재가, 노인통합돌봄을 하나로 묶어서 전환 중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면 지역에서 주요 협력기관과 연계해 건강 및 이동세탁차 운영 중이다.
-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의성군은 명예자원봉사증, 뱃지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 대학생 활용 프로그램 필요. 내부에 청년 대학생이 없어 외부 유입방안 마련 필요하며, 교통편 지원책이 필요하다.
-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고향사랑 결연제'로 독고노인과 가족을 연결해 결연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농식품부 사업에서 도농교류센터를 7개소 설치했지만, 잘 활용 안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가능성 타진이 필요하다.
- 마을단위 계획수립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스스로 컴퓨터를 활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청년(청소년) 연계 컴퓨터 문서 정리 방안도 재미있는 협력 방식이 될 수 있다.
- 농식품부 공간에서 살아보기 사업, 농촌형 돌봄, 쾌적한 농촌환경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노인 외로움 극복 도우미, 국토교통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의 사업과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경북 영주시

- 일시 : 2023.10.11. 16:00 ~ 18:00
- 영주시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생 참여가 특히 감소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 학생의 인구 감소, 특히 대학생 참여 감소를 체감 중이다. 졸업 위한 봉사활동 등 최소한의 요건이 있었으나 지방대학 역시 학생 수 감소를 위기를 맞은 상황이므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다.
-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 사례(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주민 건강 체크 기회 제공,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교통 관련 교구 제작 및 배부)가 있으나 대학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 청소년의 경우에도 모집이 쉽지 않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봉사활동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부모님이 학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선별해서 정보 제공을 하기 때문이다.
- 폐의약품 수거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 하는 등 봉사활동의 범위나 내용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편익에 따라 언제든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율이 저조하여 50~60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지역의 자원으로 역사문화자원은 부석사, 소수서원, 광복로, 근대문화역사거리(100년 이상 된 조선시대의 길)이 있고, 특산품으로 사과, 인삼이 있다. 자연생태자원으로 소백산이 있다.
-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는 해설을 들으며 플로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정화활동을 하는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양한 봉사활동 방안 모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지역활력이나 인구유입을 목표로 귀촌인 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나 주민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봉사활동이나 정의에서 나아가 봉사자의 재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람 단위의 네트워크 구성은 경계해야 한다. 공간 단위의 접근이 필요한데, 가령 소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와 공간범위에 맞는 참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 주민 스스로 본인의 생활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으로서 외부 인원을 소생활권에 상주시키면서 생활과 관련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해당 인원에게 대한 근무형태(급여, 4대 보험 등), 자격조건(원주민, 귀촌인 등), 근무조건(근무시간,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경주에서 은퇴자를 고용해 소생활권 시설에 상주하며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老-老케어를 제안한다.
- 신규 회원의 가입률이 저조할뿐더러 고령화가 심각. 사고를 전환하여 고령자 중심의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추세인 만큼 시니어 봉사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재원 확보 가능성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영주센터는 위탁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체계가 안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단체들 간 협업을 위한 DB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단체에도 새로운 시도를 한 여력

이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단체는 상위의 기관과 단체의 미션과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협력 위한 과제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 인력 지원 중심의 봉사활동 방법과 함께 '같이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 축제 등 지역행사를 지원했는데 일례로 작년 인삼축제 때 교통비, 간식, 식비를 지원. 실제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인력을 수송했으며 입장료를 지원하여 봉사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작년의 지원 수준을 기대하는 부작용 발생했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현실성이 없어(식사비 등) 일정의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군(행정)과 협력할 때 봉사자를 단순 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 봉사자들은 성과 측면에서 자존감 등 개인의 만족을 보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기관과 단체 사업 내용 공유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지역활력이나 인구유입을 목표로 귀촌인 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나 주민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의 인식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 기존 봉사활동이나 정의에서 나아가 봉사자의 재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소생활권 관리자로 파견을 제안해 본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자원봉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등에서 이미 봉사의 개념이 포함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지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웹테크의 시대인 만큼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순회 트럭 운영하며 고충처리 봉사자 운영을 제안한다. 탑차 개조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맥가이버 봉사단 사례 공유.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과 함께 고령자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는 관계망 형성에 주목할 수 있다.
- 각 기관과 단체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협력 사례는 없다. 다만 맘카페나 라이온스클럽 등과 MOU의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실효성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자원봉사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등 이미 봉사활동의 개념이 포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의 저변을 자원봉사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지역센터에서는 동, 마을 단위 관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동 단위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수 개의 마을이나 동을 묶어 소생활권 단위의 봉사자 파견 시 실제 생활권 관리 실무는 봉사자가 수행하고 영주센터는 봉사자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 충남 태안군

- 일시 : 2023.10.12.. 10:00 ~ 12:00
- 태안군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가 거의 사라졌다. 자원봉사 일감도 농촌 일손돕기 중심이었는데, 이주노동자가 주로 하면서 자원봉사 참여의 요구가 사라지고 있다.”

- 지역기업을 통해 참여자도 과거에는 있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에서 의무 3시간 부여 등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기업 참여자가 거의 사라졌다. 학생도 참여자도 부족하다.
- 자원봉사 일감의 개발도 문제다. 농촌 일손 돕기가 70~80%를 차지하는데, 돕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 일을 해야 할 시기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기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농촌 일손도 요즘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
- 청소년의 참여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데, 대학 입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교내봉사활동에만 집중하면서 발생하였다. 지역 내외의 대학에서도 봉사활동에서 비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 요구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 태안은 서울, 경기, 인천 등지 2시간 거리 가까운 곳 유입 인구의 가능성이 크고, 청년유입정책, 귀농·귀촌연합회, 농업기술센터 등이 많이 있다.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등 봉사단체협의회 조직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태안센터는 이곳과 협력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태안은 읍면봉사단을 8개 읍면에서 운영 중이다. 거점별 활동이 잘 이뤄지는 것이 우리 지역의 자랑이다.”

- 태안은 힐링공간(해수욕장) 23곳, 향포구 46곳이 있을 정도로 자연생태의 보고이다. 또한 대도시와 연결되는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 자원으로 안흥진성, 태안읍성, 신진도 문화재 박물관 등이 있다.
- 네트워크 활동으로 태안센터는 타지역 센터와 유사하게 군청 행사에 주로 협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외에도 반찬봉사, 배달 등 단체별 일감 만들기에 참여한다.
- 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로타리클럽,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여하고, 적십자, 인명구조대(3곳)가 있고, 태안만의 특이점으로 읍면봉사단(8개 읍면에서 운영)을 운영 중이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센터는 우선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일감 개발을 해야 한다.
-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적 지원이 사업에 따라 다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컨대, 태안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어, 가장 먼 농촌마을까지 3시간 가량 소요되어 교통비 발생이 이뤄지지만 실비 지원이 안될 때 현실적 고민이 생긴다.
-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능기부도 하나의 방식으로 포함되었으면 하고, 이를 통한 인식 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2020년에 진행된 주민 체감형 사업이 나름 효과가 있었다. 이주(귀농·귀촌 인구)의 자연스런 소통을 이뤄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관광자원과 수도권 관계 인구라는 2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볼런투어 사업으로 볼런투어 코스를 3곳 개발해 두었지만, 거주 숙박 문제와 신청자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 충남도 센터에서 6개월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것을 고려해 새로 한다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 도시 중장년이 머무르면서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하는 체류형 볼린투어를 숙소 제공과 함께 가능하다. 다만, 행정, 읍면 사무소의 역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각자 역할과 내용에 대한 협력이 요구된다.

■ 전북 김제시

○ 일시 : 2023.10.13. 13:00 ~ 15:00

○ 김제시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자원봉사자의 고령화에 따라 체력적 한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축제 참여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우려가 된다.”

-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8만 인구 중 25%가 고령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감소가 특히 감소했고, 신규 진입 역시 줄었다. 학생 자원봉사 의무가 해제되면서, 신규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실제 자원봉사 60대 초반이 가장 많다. 농촌 도시의 현실이다. 건강상 문제가 있고, 단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 자원봉사자의 고령화에 따라 체력적 한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축제 참여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우려가 된다.
-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 감소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도시는 1365포털, 농촌은 거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생활인구의 확대는 관계인구로 연결된다. 대학 자원봉사가 있어도, 맞춤형 자원봉사는 부족하다. 지역에서는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의료 부문이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통해 봉사활동 이수가 진행 중이다.
- 금전 지원, 인센티브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비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대회, 잼버리, 도민체전, 축제 등 각 행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북도 센터의 마일

리지 제도를 활용해 착한 가맹점, 가치상점의 이용이 가능하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김제시는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거점이다. 더하여 농업의 중심으로, 곡창지대, 농촌마을 휴양지, 일손돕기 등이 가능하다.
- 시골인심이 정말 좋다.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인 활동을 한다.
- 벽골제, 금산사와 같은 역사문화 공간이 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며, 지리적 영향으로 기후재난 등이 없다는 특징도 있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원봉사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요구받는다. 갈수록 지역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역할의 끝이 없어지고 있다.”

- 생활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 행사, 문화행사에 외부 관광객과 연계하는 것도 방안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쉽게 접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광역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필요하다.
- 일회성 연계를 벗어나 다음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것도 필요하다.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크게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역할의 끝이 없다.
- 김제시청 각 부서 50여개가 할 일에 연계되어 자원봉사센터의 한계가 없다.
- 취약계층,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 영유아, 임신부, 신혼부부 등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노노케어도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 노인세대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김제시 다양한 정책과 자원봉사정책을 연계할 필요도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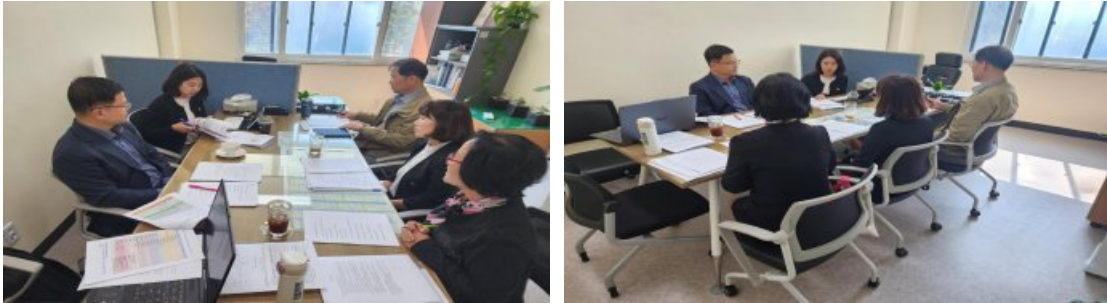
자원봉사 점수를 반영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비 지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일감 개발도 요구된다.

- 재원의 확충도 요구된다. 현재 김제센터는 사업비, 운영비 비중에서 사업비 30~4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인력, 행사, 관리자급 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 지원이 요구된다.
- 네트워크 수요처는 70~80여개 된다. 주로 유관기관, 김제시, 교육지원청이다.
-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은 지역 단위별로 각 단체 읍면동 지부를 통해 협력해서 해결 중이다. 지역 내 200여 개 단체 중 100여 곳에 매주 활동에 관한 소개와 문자 발송해 소통하고 있다.
- 기존 체류형 볼런투어는 일부 운영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청소년 숙박시설이 이층침대라서 고령자 숙박의 한계가 있었다. 권역별 체험마을 이용한다 해도, 40여 명으로 구성된 관광버스 한대 규모로 왔을 때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
-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도센터는 외부 욕구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지역 봉사활동 끼리를 발굴하는데, 농촌 벽화, 수확과 구매, 숙박 캠프 등이 있다.
- 귀농·귀촌이나 한달살기와 같은 지역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지역 알려주기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일종의 관계안내소 개념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 경남 남해군

○ 일시 : 2023.10.16. 13:00 ~ 15:00

○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 자원봉사자 연령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기동력, 창의력 등에서 활동 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연결고리가 지역사회에 조금씩 영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기존의 지역내 상황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부족, 자원봉사센터의 직영구조로 인한 제약,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싶은데 민간의 역량 부족, 지역사회내에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 등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한계를 만들고 있다.
- 남해의 섬지역 특성에 따라서 여러 다른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른 가치를 받아 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귀농·귀촌인들의 새로운 자원봉사자 유입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맺기를 남해군 센터에서 여러 소통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문화관광자원으로 바닷길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좋다. 자연을 보전해야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바다 자원으로 먹거리-멸치, 유자, 단호박, 시금치 등이 있다.
- 지역내 네트워크로는 문화, 교육,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바래길 - 바래길 동행 및 안내, 해

설사,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 보물섬 삼국지 볼런투어를 통해 추억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 교육에서는 경남도립남해대학교와 함께 제빵, 소공원 가꾸기, 마을에 전기수리,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있다. 유아봉사단(유치원1개, 어린이집 10개)을 운용 중 인데, 환경분야 재활용, 습지 환경교육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마을회관 디지털 문해교육, 명절에 독거노인 안부 봉사를 한다. 외국계학교는 남해 학생들과 어학, 문화 나누기를 한다.
- 건강분야에서는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프로그램의 강사를 자원봉사 연계로 진행한다.
- 축제가 열리면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할 수 있도록 상근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인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18개의 경남 센터 중에서 제일 활동력이 좋다고 평가된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다.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단순 수혜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으로 주민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

- 마을,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원으로 경남 지역 내에서 폐교위기의 학교를 봉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역이 얼마나 화합, 결합력이 좋은가가 이전 조건이 될 수도 있다.
- 한편, 경남도에서 시군센터 수당 마련을 위한 노력 중이다. 프로그램 공모 형태 말고 직접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다.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단순 수혜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으로 주민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
- 외로움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어업 쪽에 미등록 외국인도 많은데, 다문화가족 센터와 연대해 강사진을 양성하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개인적인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도 구상 중이다. 읍면단위 행복 봉사단(긴급 시 지원하는 봉사단)을 통해 행복나눔터를 생각할 수 있다.
- 1인 가구 관련해서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행정과 연결, 심리상담 동아리 연계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지역 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기본법 통과, 인구대비 상근자 지원)이 요구되며, 높은 이직률 개선을 위한 노동 여건도 바뀌어야 한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신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참여 의향은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빈집정비, 공동체 공간(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외부의 관점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내부에서는 사업의 이해와 접근방법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요구된다.
- 기존의 불런투어를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싶다. 관계인구 촉진 프로그램(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교육내용 포함), 워케이션, 안전한 마을(경남도센터/기업 후원) 등의 사업 추진을 해보고 싶다.

■ 경남 거제시

- 일시 : 2023.10.16. 15:00 ~ 17:00
-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 2016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했다. 해마다 3~4천 명이 감소했고, 특히 30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 새로운 자원봉사자의 유입이 안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자원봉사자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센터의 건물의 노후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외부에서 보기에 거제시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건은 좋고, 3~4년 전부터 센터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경남에서 유일한 위탁 사업(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의 모델인데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 좋겠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대기업(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있고, 젊은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다.
- 하지만 2017년 이후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 대기업 안에 봉사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원이 없고 각 회원회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센터에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화는 ESG경영 측면에서 근무시간 자원봉사 시간 배려, 신규직원 자원봉사 교육을 배정한다. 협력업체, 공기업 연합회 중 일부는 유기적으로 센터와 연대해서 자원봉사 지원 중이다.

- 거제시의 자연 및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역사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하고, 기업봉사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에너지 관련 단체(민간, 조합 등), 푸드뱅크(사회복지 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 센터의 운영 방식으로 민간위탁의 특성상 센터 운영은 센터 독자적으로 하며 행정은 지원만 하고 있다. 매년 봉사관련 단체들과 함께 재난과 관련된 안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지역 센터는 지역에 산재된 자원을 잘 연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 영역 외에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 센터는 지역에 산재된 자원을 잘 연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외에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 지역 주민이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거제 센터에서는 지역민이 모이는 곳에서 지역문제를 듣고, 자원봉사 당사자로부터 경청하고 있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인력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 공간 등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느슨한 연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우선 인력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을 제외한 프로그램 인력 필요하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 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기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비 지원 없으나 4시간 이상 센터 주관으로 봉사 시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

-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사업비 지원, 공간 대여(회의실, 주방 등), 자원봉사센터가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멘토링이 필요하다. 거제시의 지역적 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안해 주면 좋겠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남도에서 대학생 봉사단 운영 중 이다. 지역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향후 지역들이 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 청년 봉사단 운영이 필요하다.
- 행정에서 사업의 목적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봉사의 목표가 지역을 보면서 유연한(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업 제안이 이뤄지면 좋겠다.

■ 충북 괴산군

○ 일시 : 2023.10.25. 13:00 ~ 15:00

○ 괴산군자원봉사센터



1)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신규 프로그램, 참여 봉사자가 적고, 기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지만 참여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봉사단 예전에는 160여 명 선착순 모집했지만, 현재 80명 모집에도 30~40명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 자원봉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50~60대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0~80대 자원봉사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 관심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요구하지만 대응이 쉽지 않고, 기관이나 시설은 젊은 층을 요구하지만 청소년 청년 봉사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신규 프로그램의 수와 참여 봉사자가 적고, 기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지만 참여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가족봉사단 예전에는 160여 명 선착순 모집했지만, 현재 80명 모집에도 30~40명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 괴산군에 자원봉사자가 1만 2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2천여 명만 활동에 참여한다. 신규 자원봉사자 수도 매월 5~6명에 그친다. 자원봉사 시간도 1등이 1만 시간 참여하고 있지만, 2등은 5천 시간으로 1등과 2등간의 격차도 크다.
- 다른 사회단체 활동도 유사한데, 인원도 줄고, 규모도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다. 특히 성별 차이 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활동 영역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

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해복구와 같이 노동 강도가 심한 일에는 참여가 힘들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문제가 발생한다.

- 자원봉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면 단위에는 더 없다. 주민 실생활에 직접 연계가 어렵다. 거점단위로 지속적인 투입 방법이 요구된다. 괴산군 내 단체간 연계와 협력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 한편, 마을의 이장, 자치봉사회장, 단체장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은 더 쉽지만, 일을 할 자원은 부족한 문제를 갖는다.

2)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괴산군은 지리적으로 충북지역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리적 요건이 좋다. 들레길은 100만 명씩 방문한다. 먹거리로는 고추,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등이 있다.
- 명산이 많기 때문에 산행봉사단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도 이뤄진다. 쌍곡, 화양계곡과 같이 자연환경이 있고, 사람을 이끄는 연계가 가능하다.
- 지역에 중원대, 군사학교가 있어 대학생 자원봉사가 가능한 점도 농촌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갖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 지역 내 등록단체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새마을, 바르게살기, 적십자 등이 주로 참여하고 마을단위,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요양시설도 연계해 함께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발대식,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거점 읍면에 자치봉사회가 있어 협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장, 임원들이 참여를 권유해 참여인원이 확대되기도 한다.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소사(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다. 굳은 일은 센터가 다한다. 일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자원봉사자가 있다.”

- 지역 센터가 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낀다. 법제도에서 법인화 및 직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신규 프로그램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봉사단을 운영할 때, 벽화를 한다면, 역량과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 현재는 각자 역할을 단체별로 주요사업을 정리 후 공유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센터의 역할을 잘 모른다.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의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로 지역에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와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 현재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자원봉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나중에 대학과 연계가 된다.
- 현재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다. 읍면 봉사 활동을 보면, 김장, 연탄 배달 등 고정되어 있다. 특히 경로당에 집중된다. 개선이 요구된다.
- 학교에서도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자원봉사학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용처로 자원봉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데, 기금 사용을 위한 방안도 정립해야 한다.

4)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 충북도센터와 함께 체류형 볼런투어를 추진할 수 있다. 괴산군 내에 이를 수용할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있지만, 민박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진행하는 한달 살기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간 교류, 1박 2일 체류 가능한 방안을 찾으면 좋겠고, 예산이 가능하면 민박도 가능하며, 5~9월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괴산군 관내 여러 사업을 자원봉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자원봉사와 관계인구 연계 방안도 고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와 연결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표 6-2] 지방 자원봉사센터 대상 FGI의 주요 결과(요약)

구분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자원봉사에 대한 영향	고령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인구 감소로 인해 자원봉사자 발굴에 어려움 ◆ 다양한 봉사 활동 영역에서 인원 감소가 나타나며,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음 ◆ 체력 및 건강 문제, 고령화로 인한 우려가 있음
	자원봉사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이 적어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렵고, 자원봉사자들 간에 중첩 ◆ 40~50대 연령대에 자원봉사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
	자원봉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의 인력 부족으로 주민 실생활에 직접 연계가 어려움 ◆ 지역 내 단체 간 연계와 협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연계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및 조직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봉사자 유입이 부족
	청소년, 학생의 참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이 어려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모집이 어려움 ◆ 코로나19를 계기로 봉사활동 요건이 완화되어도 부족한 청소년 봉사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내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음
	협력 및 연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다른 지역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민간의 역량 부족과 지역사회 내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가 있음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예산 부족과 자원봉사센터의 직영구조로 인한 제약 등이 있음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에 대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예산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재편 가능함 ◆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보수의 원칙"을 개선해야 함 ◆ 대학생 활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구분	주요내용	
	봉사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을 노인 중심에서 다른 연령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장해야 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자원봉사 활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및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역 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는데 있어 지출 항목과 지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자원봉사센터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센터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교육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고, 기금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한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센터 및 동 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동 단위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마을이나 동을 묶어 소생활권 단위의 봉사자 파견을 통해 현장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역 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이나 한달살기와 같은 지역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을 소개하고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
	재원 확충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지원과 사업비, 운영비, 재원 운영에서의 지원이 필요함(고향사랑기부제, 기업 후원 활성화 등)
	컨설팅 및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받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체류형 볼런투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함
	협력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 자원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연결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인구 연계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도입 가능함

7 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증진에 관한 자원봉사 모델 개발

1.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의 필요성

■ 인구감소 시대의 현상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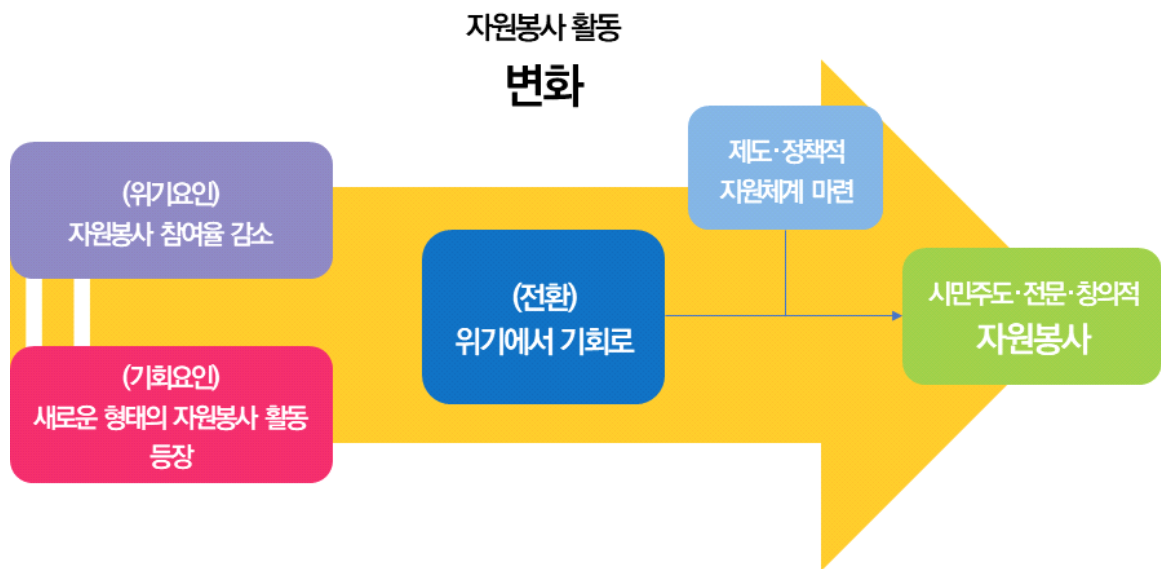
- 인구의 양적 변화, 인구의 구성 비율 변화 등 이전에 없던 변화 발생
 - 인구감소지역은 매년 증가(05년 33개→21년 89개)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가 50.4%를 차지하는 등 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89개) :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내부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인구의 양적 축소가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의 약화
 - 주민의 사회적 자본 소멸, 지역 주민 간의 관계 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과 양극화 심화, 고령화와 사회단체 간의 단절, 각종 정책의 축소로 인한 약자들의 생활상의 피해가 심화
 - 예를 들어, 보건 의료의 관점에서 인구감소로 병원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식이 달라질 것이며, 취약계층은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
 - 이동권 관점에서 시외버스나 대중교통망이 축소되면 교통약자들의 고립과 단절, 생존에 대한 위협
 -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의 고령화, 자원봉사자 인원 감소 등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응

-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의 변화, 세수 및 예산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차적인 정책 과제로 등장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주민등록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의 축소, 세수 감소 등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우려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체계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구감소의 문제 해석에 일부 한계를 가짐
- 최근에는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인구, 생활인구의 적용,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재원 발굴 등 인구의 양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확대, 인구이동,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책이 도입되어 변화를 도모하는 중임

■ 자원봉사의 기회 요인과 필요한 변화

-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위기 요인)와 동시에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등장(기회 요인)이 함께 나타남
 - 자원봉사 이해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확장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체제도 구축을 요구하는 중임
 - 자원봉사 활동은 과거의 간단한 봉사에서 시민 주도, 전문성, 창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림 7-1〉 자원봉사 활동의 위기 및 기회 요인과 변화 방향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위기 요인)** :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 할 수 있음.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함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등장(기회 요인)**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회가 생기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활동은 기존의 관행적인 자원봉사와는 다른 형태의 참여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심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위기를 기회로 전환(전환)** :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변환하려는 노력이 있음.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선도하려면 관련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비영리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통해 가능함

-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 :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은 과거의 간단한 봉사에서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반영하도록 진화하고 있음. 시민은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전환

- 전통적인 자원봉사 개념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적인 일들에 집중되었음
-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거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일들이어서 정부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의 수준이 되면서, 공공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요구되었음
-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등 전지구적인 과제해결을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³⁾는 유력한 실행방안으로서 전 지구적인 자원봉사를 제시함



〈그림 7-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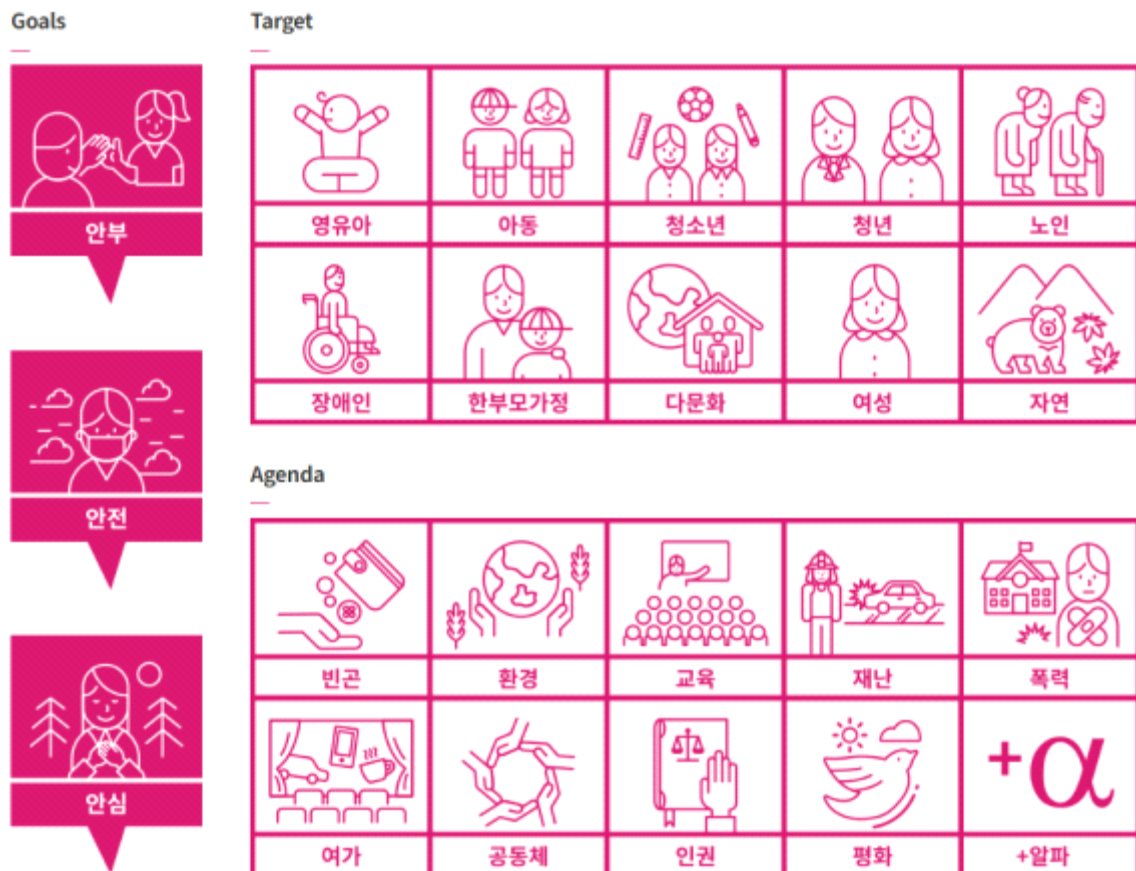
- 유엔은 자원봉사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이행과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기여와 적절한 지원 및 활성화가 없다면 빈

13) SDGs란? UN에서 2030년까지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은 2015년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채택함

곤 종식과 번영 증진이라는 목표는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SDG 관련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절하게 지원될 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거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의료, 교육 및 기타 여러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음
 - 자원봉사는 지속가능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하며,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강력하고 상호적인 개인 및 업무 관계를 구축함
 -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 기술, 네트워크를 상호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소유되고 유지되는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장기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존중하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 개발 프로세스에 기여함
 - 자원봉사자는 적절한 발전, 올바른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에 관한 기술과 지식의 교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조직 및 지역사회 간의 보다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에서도 교류를 촉진함
 - 자원봉사자들이 얻은 풍부한 문화 간 경험과 이해를 지역 사회의 문화와 삶에 통합시켜 긍정적인 글로벌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발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결과임
 - 시민 참여 메커니즘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의 독창성을 활용하고 연대, 협력 및 상호 책임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핵심 요인임
 - 자원봉사는 모두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 선주민, 이주민, 장애인, 기타 사회의 취약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는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임
 - 자원봉사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사회가 자신의 발전에 참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도움
- 이러한 배경 속에 SRGs(사회적 관계 회복 목표)는 UN의 SDGs와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어젠다를 기반으로 선정했음

- 한국에서도 2016-2018년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10대과제를 자원봉사의 과제로 제시함
 - 이는 선한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 전국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를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캠페인’으로 제시함
-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센터의 공동행동 과제를 ‘관계회복을 위한 안부묻기’,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서로 돌보는 안심의 문화’를 추구함
 - 안녕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관리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성과측정 사업을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시작함
- 이러한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 속에서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붕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정책이 도출되게 됨



〈그림 7-3〉 안녕 캠페인의 SRGs(사회적 관계 목표)

출처 :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7-4〉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

○ 사회서비스와 사회문제의 변화

-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인해, 자원봉사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제시

○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 및 주민자치 정책의 확대

- 주민자치 정책 등의 확대로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확대되며, 자원봉사 영역에도 이러한 변화가 영향을 미침

○ 자원봉사 개념과 영역의 확장

- 자원봉사의 개념이 확장되고, 자원봉사의 영역도 다양화하고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무보수성'과 '무대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수당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시도가 활발

○ 정부 정책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또한 자원봉사 영역에 포함
-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자원봉사의 등장
 -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자원봉사 방식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어, 다양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의 등장
 - 블린투어리즘, 블린테인먼트, 온라인 자원봉사, 버추얼 블린티어와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원봉사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

2.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방향과 전략

■ 지역활력을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법

○ 내적인 사회적 자본형성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지역 재조직화가 필요
- 지역 내의 신뢰, 개방성, 연대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지역내 격차와 단절, 소외가 심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적 자본 형성이 필요

○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협력 강화

- 기존의 자원봉사센터가 하드웨어 혁신이나 도시재생과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볼린투어의 개념이 단편적인 활동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적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용기반을 형성해야 함



〈그림 7-5〉 지역활력을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법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물리적 자원)와 소프트웨어(정책, 프로그램) 및 휴먼웨어(인적 리더십, 교육)를 균형있게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 리더십 형성,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발굴이 필요
- 지역사회 공간 기반 조성
- 관계인구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간을 중심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재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대상지역에 공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거점화 방안을 함께 추구해야 함
- 장기적인 비전과 융합적 모델
- 자원봉사센터의 접근법은 총체성과 장기적 비전을 통해 세워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메타조직의 조직모형을 도입하여 단편적인 활동 중심의 자원봉사 운영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
 - 이러한 융합적인 모델을 통해 지역의 재활력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자원봉사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방향



〈그림 7-6〉 자원봉사 혁신 모델을 위한 기본 방향

■ 광역자원봉사센터,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콘셉트와 변화 방향

- 문제해결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공 서비스를 다양한 시민 욕구에 맞게 조정
 - (총체적 관점) 세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
 - (시민 중심) 공공 조직의 서비스는 종종 고정된 프레임에 따라 운영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자원봉사를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동기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기주도적 참여) 자원봉사 활동이 물자·서비스 단순 제공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동기 부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함
- 지역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
 - (지역민의 참여 강화) 기존의 카테고리형 서비스 제공 대신,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자원봉사 모델을 다양화하고, 이타성과 결과 중심으로 접근
 - (자원봉사 모델의 다양성)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모델은 완벽한 구조화보다는 시민들의 욕구와 상황에 더 적응되어야 하며, 합의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함
 - (이타성과 결과 중심) 자원봉사의 목적은 이타성과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을 더 넓게 정의해야 함
- 개인적인 참여와 확산 가능한 효과를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본질을 재고
 - (역할 확장과 수요 확장) 자원봉사의 역할을 더 넓혀서 수요 역시 확대되어야 함
 - (효과적인 자원봉사 개념) 자원봉사의 본질은 이타성에 기반하지만, 개념을 확장하고 보다 개인적인 체험과 확산 가능한 효과를 강조해야 함

■ 광역자원봉사센터,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방향

-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는 조성자(로컬 크리에이터), 연결자(네트워크), 촉진자(투자)의 역할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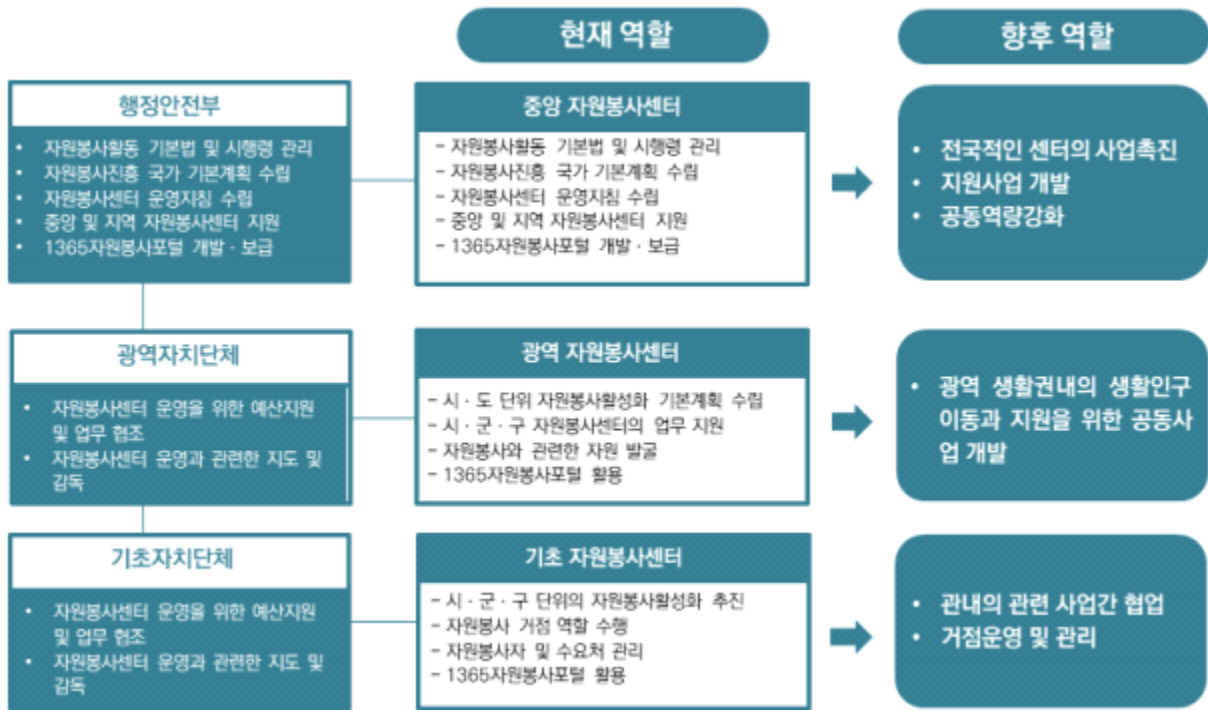


〈그림 7-7〉 광역 및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방향

■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전략

-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현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크게 7가지 대응 방안이 요구됨
 - (인구감소의 영향 극복) 인구감소로 인해 시민 활력 침체, 관계 단절 및 시민 참여 감소가 나타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휴먼웨어 중심) 하드웨어나 시설 중심의 관점 대신, 휴먼웨어의 발전과 강조가 필요함.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내발적 발전) 지역 내 자원 발굴, 리더십 육성, 역할 개발 등을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함. 자원봉사, 평생학습, 비영리 지원, 지역재생과 관련이 있음
 - (관계인구의 발굴) 관계인구를 발굴하기 위해 대상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체류형 볼런투어 도입, 다양한 연령대의 욕구와 생애과제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함

- (융합 및 협업 전략) 인구 및 지역 침체와 관련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중간 지원 조직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성과목표 공유) 정책 실행에서 성과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 공유 방식을 개발해야 함. 이는 협력을 장려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통합방식 개발) 지역사회 변화 모색하기 위해 공간과 거점 중심의 통합방식을 개발해야 함. 이를 통해 생활권과 거점 중심의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 전통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서 더욱 확대되는 방안을 향후 고려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음



〈그림 7-8〉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역할과 향후 방향(안)

3.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제안 과제

- 자원봉사의 본질을 지키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확장되어 관계 확장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도입을 검토하고 노력해 왔던 프로그램과 연계해 8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함



〈그림 7-9〉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안 과제

1) 자원봉사 프로그램

■ 교육과 자원봉사의 통통 튀는 만남, '에듀볼(Education+Volunteer work)' 프로젝트

○ 배경 및 필요성

- 자원봉사자의 역량과 요구사항은 한 단계 성숙한 반면 행정의 인식은 이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에 괴리 발생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축제 등의 행사를 위한 단순 인력 지원 수준으로서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동기 부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 이해관계자 FGI 결과)
- 한편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된 지자체에서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 지역 대학 역시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대로 팬데믹을 경험하며 작은 학교¹⁴⁾에 대한 선호가 가시화되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보다 유연한 교육환경의 구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 주민 모두가 교육 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며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임
- 자원봉사자의 신규 진입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삶과 가치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자원봉사의 유형이 요구되는 바, 관습적인 자원봉사의 정의에서 나아가 봉사자의 재능과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원조 물자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범위를 설계 및 발현, 동기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선
- 앞서 FGI 결과에 따르면 대학 전공과 연계한 맞춤형 자원봉사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대학 재학생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내용적 고도화 시도를 제안함
 - 강효민·박창범(2019)의 실증연구에서는 직무형태에 따라 재참여의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자의 직무전문성이 자원봉사의 재참여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의료, 제빵, 조경, 전기, 유아교육 등 봉사자의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자원봉사의 내용 고도화 시도

○ 주요내용

-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장소기반교육(PBE, Place-Based Education) 운영
 -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제한되어 지역 외의 강사 초빙이 어려울 뿐 아니라 PBE의 개념과 배경 상 지역자원의 활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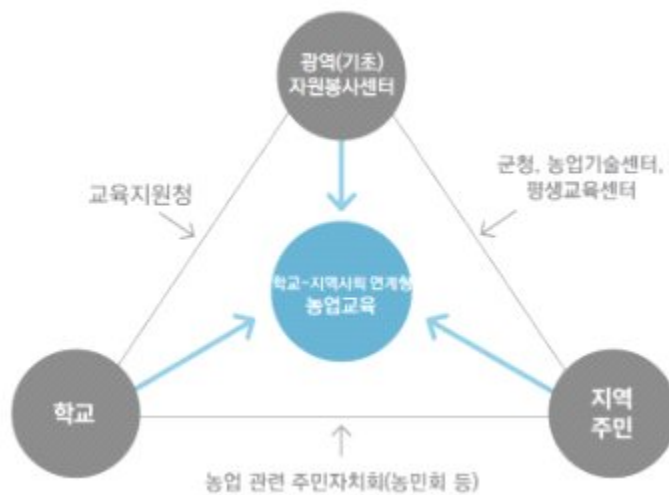
14)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를 의미하는데 가령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014)'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공립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 역량 있는 주민강사의 발굴 및 교육을 통해 PBE 강사풀을 확보하되, 지역 대학생과 평생교육기관 수강생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 인적자원 활용 강사풀 확대 구축
-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나 통합교과과정의 지역사회 이해 단원 및 내용과 연계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설계
- 초등과정의 경우 통합교과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해 배우고 중등과정의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7-10>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장소기반교육 운영 예시

- 광역(기초)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체계 마련
 - 사업의 정례화를 위하여 총괄조직의 운영이 요구되며 해당 교육모델의 특성상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기반으로 작동 필요
 - 광역 또는 기초자원봉사센터가 PBE를 실현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집단)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중추 기능을 수행하되, 인구감소지역의 대다수가 농산어촌 지역인 까닭에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어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제시



<그림 7-11>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농업교육의 체계도

○ 기대효과

- 봉사자는 자기 효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그동안 무관심, 몰이해했던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봉사자들은 개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자존감, 자기 효용의 확인을 통해 효과적 동기 부여, 자원봉사의 지속성에 긍정적 기여
 - 학교-지역사회 연계교육의 경험은 학습자 자신과 참여자 모두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상호 간의 교류와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지역에의 소속감 및 공동체 강화에 기여
-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만족도 제고로 청소년기 자녀를 동반한 가족세대의 학업 목적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마을 거점으로 살아난 둔덕중학교 사례

전교생 25명의 학교는 3년 만에 학생 수가 4배가량 증가함(2019년 25명 → 2023년 현재 94명). 해당 학교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소재의 둔덕중학교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배움터’를 운영 중. ‘마을배움터’는 마을강사와 함께 운영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으로서 바리스타, 베이킹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임. ‘마을배움터’는 마을주민이 강사로 나서서 것은 물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둔덕중의 ‘마을배움터’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 맺기는 물론 세대 간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세대 가정의 전입으로 젊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음



좌) 마을강사가 운영하는 웃음치료 동아리 수업

우)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 웃음치료 봉사활동 중인 둔덕중학교 학생들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syk2229/222069667536>)

■ 편의점과 자원봉사의 상극한 만남, ‘우리 동네 편의점(자·바·노)’ 프로젝트

○ 배경 및 필요성

- 2002년 9월 기준, 전국 편의점 개수는 약 5만 1,300개(국세통계포털)로서 ‘편의점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큼 국내 편의점 수는 가파르게 증가 중
-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빠르게 변화, 발전 중인데 인구 구성이 급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720만 정도로서 전체의 약 33%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상을 포용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
 - 각종 공과금 수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 지역주민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편의점은 최근 반려동물 돌봄(GS25)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그 영역을 확대 중
 - 과거와 다르게 이제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부치고 식료품을 사고 현금도 인출하고 감기약 등 비상약을 사며 프린트를 할 때도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서 기능
- 각종 사회서비스의 부족으로 삶의 질의 수준이 저하되고 악순환 되는 농산어촌 등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편의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확대될 수 있음
 - 자원봉사를 비롯한 공공조직의 서비스는 단편적이고 관습적인 반면 기업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함
- CSR¹⁵⁾의 관점에서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연계형 자원봉사 모형, ‘세상에 없던 편의점, 우리 동네 편의점’ 프로그램을 제안함
 - 이미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놀이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¹⁶⁾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과금 수납, 결식아동 급식 및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바우처의 사용처로서 공공의 역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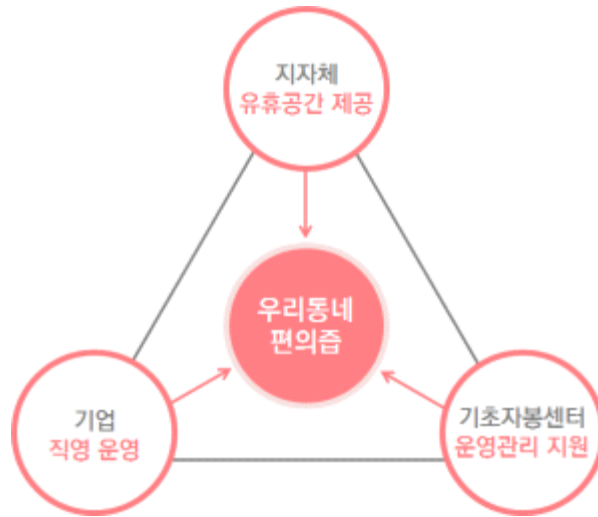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기업 연계형 자원봉사 모델로서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며 편의점 공간은 시·군 등의 소유인 유휴공간을 제공, 기초 및 광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해당 편의점의 소셜 미션을 위한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맞춤형 편의점 운영
 - 도시민의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편의점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적합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으로서 해당 장소에 지정한다.

겪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로컬자원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7-12〉 ‘우리동네 편의점’ 협력 체계도

- 동네, 마을 등 소생활권에 대한 자원봉사 거점공간으로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
 - ‘청·소·파(청년, 소생활권 파견) 프로젝트’를 제안, 해당 공간에 청년을 상주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기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
 - * 자격조건은 귀촌인, 원주민 등 신(新)·구(舊) 주민 구분을 두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급여와 4대보험을 지원하는 고용 형태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가 부족한 청년세대, 신규 전입자 등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생활 편의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토록 함(돌봄, 생활정보 제공, 네트워킹 소모임 등)



〈그림 7-13〉 ‘우리동네 편의점’과 ‘청소파’ 봉사자 운영 체계도 예시

- 세대를 아우르고 신(新)-구(舊) 주민을 아우르는 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 새롭게 지역에 뿌리 내리는 청년 간의 연결, 원주민인 지역 청년과 신규 전입 청년과의 연결 등 동년배의 청년세대로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협업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킹의 기회, 그 기반으로서의 네트워킹 공간 역할
 - 중·장년 세대를 위한 소모임 공간 및 다과 지원(농촌지역은 노인 세대를 위한 편의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중·장년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부족)
- 교육 및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
 - 농산어촌의 대부분 면·리 단위 지역은 사설 학원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교육, 문화 공간이 사실상 부재하므로 청소년 계층의 교육, 문화 서비스 향유 기회가 제한
 - 청소년들이 관내 해당 시설이 밀집한 읍소재지나 인근 대도시 생활권으로 편리하게 이동, 관련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청소년 전용 버스를 운영하며 편의점은 정류소 기능
 - * 기존 '100원 버스'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는 버스요금을 할인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기호와 동선을 고려한 노선 개발과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서 기존의 것과 차별됨
 - 아동 및 청소년 친화공간으로서 아동·청소년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기호에 맞는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활동 내역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부여
 - 보드게임, 방송댄스 등의 문화활동 장소, 휴대폰 충전, '청·문·소(청소년 문화버스 정류소)' 등의 편의 제공, 자율독서실, 과외(대학생 자원봉사 연계) 장소, 멘토링 장소 등 교육공간으로서 역할
 - * 자원봉사의 고도화 내용과 연관해, 과외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봉사자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편의점은 이들 간의 교류 장소로서 기능



〈그림 7-14〉 '우리동네 편의점'의 청소년 세대 서비스 예시

○ 기대효과

- 소생활권에 상주한 봉사자를 통해 주민 생활에 밀착한 실질적 봉사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상시적·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
-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지원함으로써 유대감을 증진시켜 지역예의 소속감,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
 - 청년 대상, 귀농·귀촌인 대상 지원사업의 경우 원주민이나 기존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반면 상기 제안한 내용은 신·구 주민의 구분 없이 청년, 중장년 등 각 세대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청소년 세대에 대한 교육·문화적 접근을 통해 해당 세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 형성의 기회로 작용, 청소년기 자녀를 동반한 가족세대의 교육·문화 격차에 따른 지역 이탈, 유출 예방에 기여

어린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미라이 편의점 사례

일본 도쿠시마현의 기토촌은 인구 1,080명의 작은 오지마을로서 험난한 중산간에 위치하였으며 주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마을임. 2020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미라이 편의점'이 들어섰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의점'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지난 2년간 30만 명의 외지인이 방문한 여행 명소로 부상(롱블랙, 2023.6.1.). 미라이 편의점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을이 오래 가려면 아이들부터 살고 싶은 동네가 돼야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일본 최대 문구·인테리어 업체인 '고쿠요(KOKUYO)'와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편의점으로 설계했기 때문. 마을 아이들의 교육 행사부터 영화 상영회, 캠프파이어 야유회,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등 주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물하는 편의점 이상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상) 산간 오지에 위치한 미라이 편의점 전경

하_좌) 미라이 편의점 내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하_우) 미라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지역 특산품(유자) 활용 기념 상품

자료: 유튜브 화면 갈무리(https://youtu.be/95CTmjM1P_4)

■ 기업과 함께하는 볼런케이션 : 자원봉사(Volunteer) + 휴가(Vacation)

○ 배경 및 필요성

- 볼런케이션(voluncation)이란 '자원봉사(volunteer)'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역할도 병행하는 것을 말함
- 기업과 함께 농활 활동에 힐링을 더해 자연친화적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또한 프리랜서, 원격근무 가능자에게는 지역 알기의 일환으로 볼런케이션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개인의 재능을 발휘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기획 및 참여 방안 마련
 -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재능 활용 프로젝트 진행,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활용 등 기본적인 업무 처리 효율화를 통한 행정지원 등
- 이를 위해 프리랜서 인구 유입,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관계 인구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림 7-15〉 LG디스플레이의 1박2일 볼런케이션

출처 : LG디스플레이

○ 주요내용

-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거점시설활용 및 숙박 가능 지역(한 달 살기 프로그램 연계)
- 지역내 활용 가능한 거점 유희시설 파악 및 확보 :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등의 사업 시설과 연계
- 지역의 자원봉사 일감 마련, 기업과 희망자 모집
 - 지역내 일감 기획 :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일감 기획과 숲해설, 생태관광 등 힐링

프로그램 마련

- 프로그램에 대해 모집하고 연계하도록 대도시 및 인근 도시 소재 기업 대상 홍보 (광역자원봉사센터와 기획 및 연계)

○ 기대효과

- 고령화 및 인력 감소로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돕거나,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눈 검진과 체육대회를 진행
- 계절에 맞는 봉사활동과 함께 현지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
- 지역 체험과 활동을 통해 관계 인구의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 체류형 볼런투어

○ 배경 및 필요성

- 자원봉사와 여행이 함께 하는 볼런투어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방식의 건전한 여행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코로나 19의 한계, 당일치기 방식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동아리 방식의 체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숙박과 함께 도입해 체류형 볼런투어를 추진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인구 20만 이하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비수도권 지역 5대 광역시를 거점으로 하여 사업 추진 → 대도시 상주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 제고
 -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농어촌 일손돕기, 생태환경조성 및 보호활동, 역사문화 보존, 요양/간병, 다문화 교류 등을 제안



〈그림 7-16〉 체류형 볼런투어 사례

출처 : 대구 서구 자원봉사센터



〈그림 7-17〉 볼런투어 활동 사례

출처 : 익산시자원봉사센터

- 지역의 자원봉사 일감 마련 및 희망자 모집
 - 가족단위 체험형 자원봉사는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이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를 동반한 자원봉사의 경우, 저강도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청소, 정리, 어르신 정서지원과 같은 일감이 적합
 - 청소년을 동반한 자원봉사는 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적응 지원, 어르신 정서지

- 원, 중강도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일감이 적합함
- 기존에 이미 이뤄진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사업(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마련된 거점시설을 활용해 오리엔테이션 등 진행
 -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활동가와의 활동연계를 도모하여 기존사업이 수행했던 사업 및 인력과의 시너지 증대
 - 지역에 자리잡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
 - 지역내 숙박시설(민박, 마을내 숙박시설 등)과 연계해 소규모 숙박 연계
 - 자자체와 마을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을 숙박시설을 우선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
 -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 및 마을회관의 정비를 지원하여 이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빈집의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로 전환된 시설 활용
 -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자원봉사 참가자의 만족도 증가 및 지역 알아가는 관계인구로의 전환 유도

■ 자원봉사 올림픽 - 자원봉사자 역량 증진과 교류

○ 배경 및 필요성

- 자원봉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자원봉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각양 각색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지역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는 자원봉사자 간의 교류 협력의 주기적인 장이 마련되어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관 프로그램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전국자원봉사대축제)와 달리 자원봉사자가 직접 자기 지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자원봉사 경연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대회를 한데 모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국적인 장을 마련

○ 추진방안

- 매년 개최 지역 선정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 추진
- 자원봉사 올림픽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우수 사례소개 (개최 지역 사례, 타지역 우수 사례, 해외 우수 사례)
 -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분임 토의, 경연대회, 챌린지
- 지역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워크숍
 -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소개 및 공유 :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방식을 현장에서 질의 응답 방식으로 대화의 장 마련
 - 자원봉사 현장의 꿀팁 공유 대회 :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 자원봉사단체 연계방식,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 관계 인구 연계 방안 등
 - 새롭게 부각되는 인명구호, 재난재해 대응 훈련 등에 대한 특기 공유
- 자원봉사 감동 프로그램 공모전
 - 현재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 추진해 주요 사례의 전국적인 홍보와 공유
 - 지역 문제를 해결한 감동적인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알림의 장으로 활용

■ 자원봉사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그 동안 일반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투자된 지역의 하드웨어적 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주도로 다양한 농촌 및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유휴시설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 중임
- 유휴시설 활용사업은 주로 창업과 지역에 필요한 농촌 생활SOC서비스 지원사업의 플랫폼으로 지원되고 있음
 - 농림부의 경우 시군역량강화사업(시·군당 최대 10억 지원)에서 유휴시설 또는 기존 종로 하드웨어 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중
- 시군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문화, 복지, 건강, 교육, 보육 등 농어촌생활SOC 프로그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휴시설과 연계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가능

○ 주요 사례

- 여주 늘푸른 자연학교
 - 여주시 늘푸른 자연학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실 및 농촌 유학 센터로 활용 중
 - 이를 통해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농교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리모델링된 공간 안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도시민에게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홍보관, 예체능실, 특화교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학교 전경



작은 도서관

〈그림 7-18〉 유휴시설 활성화 사례

○ 추진방안

- 지역에 유희시설 현황조사
 - 농어촌 지역에 정책 사업으로 진행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조사 필요
- 유희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예시) 팝업 미용실, 팝업 건강교실 등 다양한 주제들을 펼칠 수 있는 다기능 공간 활용
-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매칭
 - 정책사업과 매칭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여부를 지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각 지역의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연결

■ 자원봉사와 풀어가는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 지역사회 리빙랩, 해커톤, 사회혁신 사업 등 단편적인 해결과정 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험과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문제 해결 과정 중 지역사회 모니터링, 설문, 리빙랩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과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보상이 필요함
- 이를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실적을 자원봉사와 연결시켜 참여의 동기 부여를 함

○ 사례

- 전주시 나는 우리동네 氣후천사 프로젝트
 - 전주시는 2017년 도심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전주지역 200여개의 측정지점을 설정하고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1년간 매월 1회 주기적인 온도측정을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열섬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열섬현상을 분석·진단하여 열섬과 도시기후 개선시책을 제안하기도 함
 -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과 기후측정 방식과 활용내용을 전달하며, 학교 내의 환경교육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시간과 교육시간 등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이 하는 활동의 동기부여를 함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기후 측정

〈그림 7-19〉 지역문제 해결을 자원봉사와 연계해 풀어가는 사례

○ 추진방안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혁신프로그램, 해커톤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워크숍 추진
-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제 해결형 과제 도출 가능
 - 예시)기후변화, 장애인 이동권, 보행로 조사, 쓰레기 무단투기장 지속 모니터링, 인도 주차 모니터링 등
 - 리빙랩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1차시	◆ 오리엔테이션 및 팀빌딩
2차시	◆ 지역 문제 찾기(우리 지역에 OO에 불편한) 문제 찾기
3차시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제안한 문제 확인하기)
4차시	◆ 문제 해결 아이디어 모으기(퍼소나, 여정맵 활용)
5차시	◆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실험실시
6차시	◆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피드백 및 보완된 방안 만들기
7차시	◆ 정책 제안서 작성

- 지역에 관련된 사업(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 공동체 사업 등)들의 소프트웨어 사업 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가능
- 참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시간 부여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소도리 공론장’

주민 주도 일감 기획, 자원봉사센터 사업 운영 시스템 변화 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활동 경험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

관심 의제별로 10명 내외의 인원을 그룹화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이며 어떤 점이 생활 문제로 발생하는가,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토의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을 그들 스스로 갖게 됨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 중심의 사업기획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공론장 운영 이후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원봉사자들을 협력 파트너로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함

사업 진행 후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수요처에 배치하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지역의 전문가가 모여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자원봉사 일감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로 그 책임과 역할이 확대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나타나는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소도리 공론장’,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나비효과’, 부산 동구자원봉사센터 ‘그린마을’ 등 최근 사례의 확산 방안 모색 필요함



소도리 공론장의 사례
출처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 청년 자원봉사단(청·자·봉), 대규모 파견을 통한 자원봉사 역할 찾기

○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원봉사 인구는 주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자원봉사 필요 연령에 대한 요구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함
- 청년층은 지역 알기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및 행정적 요인으로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갭이어¹⁷⁾를 희망하는 사회적 욕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프로그램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데, 대규모 청년 자원봉사단(청·자·봉)을 파견해 청년과 지역의 관계 맺기에 기여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등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함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사례

-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생활의 거점을 옮긴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함
- 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해, 지역 브랜드나 지역 상품의 개발·판매·PR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하거나, 농림·산업에의 종사, 주거의 생활 지원 등의 지역 협력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정주·정착을 도모함
 - 주체 : 지방자치단체
 - 활동기간 : 대체로 1년 이상 3년 이하
 - 총무성의 지원
 - 특별교부세 (대원 1인당 480만엔(약 4천 3백만원)까지 지원)
 - 2023년 예산 2.1억엔(약 18억 원)
 - 수요처 발굴,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성, 정주 촉진을 향한 기업 지원(기업 · 사업화 연수 등)

○ 추진방안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참가 규모와 예산 확정)

17) 갭이어(Gap year)란? 학업이나 업무를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자원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함. 갭이어는 학생, 사회인, 직장인들의 학업과 직무능률을 올리는 제도로써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화로 전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음

- 매년 1천 명 규모로 파견(비용은 지자체와 매칭해 추진)
- 1~3년을 기한으로 지역 활동 프로그램 구성
- 참가 희망 지역 및 청년 참가자 모집
-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 체계 마련
- 자원봉사 일감 개발 및 지역 필요 인적 자원으로 역할 부여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 지역외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그 정주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부흥협력대 추진 요강이 기초자치단체(市町村)별로 발표되고 있음. ‘지역에 살려는 의욕 있는 도시 주민이 와주는 것이, 그 지역을 지탱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구호 아래 약 15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부흥협력대원을 모집하고 있음

지역부흥협력대원은 최장 3년간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수와 주거지, 업무에 필요한 집기와 자동차 등을 지원받고 담당하는 지구의 과제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대원의 임기 종료 후에는 그 지구에의 정주가 기대되고 있음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 농산물의 홍보, 유통,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원, 교육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5~7명을 모집하고 있음. 보수 수준은 과제 내용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대원 일인당 촉탁직원(비상근특별직)의 신분으로 보수/월액 16만 6000엔에서 연간 400만엔 까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역부흥협력대원이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직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거나 뚜렷한 관광산업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목표한 지역부흥협력대원모집에 지원자 혹은 적격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 지역부흥협력대의 참가자는 전년도보다 432명 증가한 6,447명이었고, 인턴 참가자 수를 포함한 합계 수는 6,813명이었음. 참여 자치단체 수는 전년도부터 31개 증가해 1,118단체가 되었음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홍보자료
출처 : 일본 총무성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정책

■ 지역활력 증진의 매개로 성장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자원봉사센터의 생존과도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 속에 자원봉사센터의 위치와 이미지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점진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광역자원봉사센터, 기초 자원봉사센터의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와 동시에 함께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됨
- 따라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관된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 학습과 토론장 마련이 요구됨

○ 추진방안

- 중앙센터의 역할 : 종합 가이드 제시와 새로운 전략 수립
 - 현장 적용과 과정 투입 방식 등
 - 낯선 이슈와 직무를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시
 - 자원봉사 접근 및 역량 개발 : 지방공무원 교육 시행(내년 초), 관계기관 연석회의 등 추진
- 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익숙하게 만들기
 - 아이디어 모으기와 광역 단위 전략 발굴
 -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및 워크숍 기획
 - 각 기초 자원봉사센터에 부합한 프로그램 공동 발굴
- 기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실천과 협력 방안의 모색
 -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역할 찾기에 대한 학습 기회 확대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농업과 자원봉사의 든든한 만남, ‘오프(OF+V, Opportunities on Farms through Volunteering)’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농어촌 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서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꼽을 만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함(한국 농업신문, 2023.7.13)
 -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서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7%, 2·3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의 89.7%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인식 만연
- 한편 지자체마다 ‘한 달 살기, 워케이션(Work+Vacation)’과 같은 체류형 관광 사업에 대한 숙박 등의 관광 바우처 지원을 통해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노력 중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등 귀농 정착을 위한 용자, 세제,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 중
 - 지원 자격 요건으로서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워케이션, 한 달 살기’, 귀농·귀촌 지원 등에 대한 지원요건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할 것을 제안함
 - 이미 ‘우프(World-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프로그램이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시행 중(우프 코리아 누리집)
 - 우프는 친환경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유기농가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형태의 세계적 운동임
 - 한국에서는 1997년에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 63개 농가(2019년 기준)가 참여 중이며 그 내용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에서 일손을 거드는 자원봉사 활동 이력을 귀농·귀촌 지원,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등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으로서 추가
 - 봉사자는 지역에 대한 탐색과 관계 형성을 통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는 신규 자원봉사자의 진입으로 활력, 인력난 해소 효과
 - 인구감소지역 자원봉사 이해관계자 FGI 결과에 따르면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관련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관련 봉사활동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 시·군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하여 봉사자에 대한 귀농·귀촌 지원 우대, 체류형 관광 대상자 선정 또는 바우처 제공
 - 귀농·귀촌 지원,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등 체류형 관광 희망자에게 관련 농가를

- 연결하고 해당 농가의 작업 환경 관리, 봉사활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
- 농업 활동 외에도 거점 급식소에서 마련한 새참을 농가마다 배달하는 '농번기 새참 배달 서비스', 농협 하나로 마트나 '우리 동네 편의점'과 연계하여 오지마을에 쇼핑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오지마을 황금마차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에는 점포가 없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며 온라인쇼핑 역시 쉽지 않은 고령 세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황금마차'를 통해 이동식 순회 자원봉사 서비스(물품 구입, 민원 처리, 안부 확인 등) 제공
 - * '황금마차'는 수요가 적거나 부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PX가 없는 GOP, 강안 경계, 해안 경계 소초와 같은 격오지를 순회하며 물품을 파는 국군복지단의 이동식 PX 차량의 별칭으로서 정식 명칭은 '충성이동클럽'임



〈그림 7-20〉 '압' 운영 체계 및 서비스 예시

○ 기대효과

- 농업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을 계기로 예비 귀농인으로서 경험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지역,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탐색과 이해, 농부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체류형 농업 자원봉사 '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는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해당 경험을 계기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전입에도 긍정적 작용

유기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세계적 운동 우프(WWOOF) 사례

우프는 World-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의 약자임.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임. 친환경 농가 등에서 하루에 만나질 가량 일손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서비스로서 '비화폐 교환'에 따른 문화 및 교육 경험을 촉진하며, 유기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운동임. 우프의 미션은 봉사를 통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거주자들에게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경험하여 이를 인식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확산하며, 서로 다른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도록 하는 것임



상)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우프 코리아의 농작물 수확 활동
 하_좌) 격오지 충성이동클럽(일명 황금마차)을 이용하는 장병
 하_우) 해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한 GS25의 이동식 편의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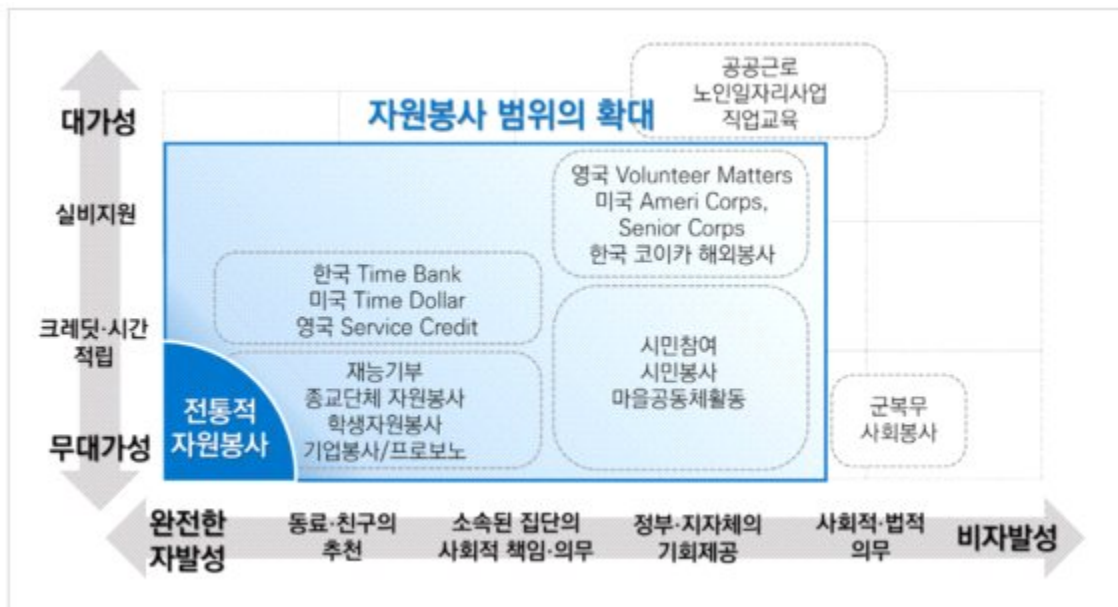
출처 : 상) 우프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https://wwookorea.org/>)

하) 나무위키(<https://namu.wiki/w/%ED%99%A9%EA%B8%88%EB%A7%88%EC%B0%A8#s-2>)

■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현실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적으로 자원봉사는 자선, 자조,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무대가성, 자발성을 강조하는 반면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을 넓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팬데믹을 계기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국가적인 인구감소의 위기의식 속에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개념과 형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
- 자원봉사의 개념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핵심 원칙인 무대가성, 자발성에 대한 기준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남연희(2008)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확산과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
 -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구축, 누적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과 관련한 서비스 크레딧(service credit) 제도의 도입, 자원봉사 보험제도의 일반화 제시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변화로 유급 자원봉사의 증가, 전환적 자원봉사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제안함



〈그림 7-21〉 한국 자원봉사활동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자료: 최상미·신경희·이혜림(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봉사자가 지급하게 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 비

용을 실비 지급하는 한편 봉사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등의 요건에 따라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함

- 유기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우프(WWOOF)에서도 친환경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는 대신 숙식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봉사활동의 내용과 환경 특성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성인에게는 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제안
 -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한계로 일부 기초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정례화하기 어렵고 예산 확보도 한계
 - 청소년은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한 기관 인정과 기록을 통해 내신 성적 등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등의 명예나 자기만족 이외에는 봉사활동의 이력 관리가 실효성이 없어 동기부여에 한계
 - 실비 지급이 불가하거나 봉사활동의 시간, 이동거리 등에 따라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 이에 상응하는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지역 내 소비활동에 활용토록 개선
- 기업의 ESG, CSR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전 공공기관, 기업 등 지역 사업체와 연계하여 직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인사고과 평가 시 반영토록 협력
 -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다르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 115개 공공기관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로 이전하였으며 함께 이전한 인원은 약 4만 명 규모임(광주전남연구원, 2018)
 - 공공기관 뿐 아니라 연관 업체의 지방 이전이 함께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인구 유입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의 관점에서는 신규 봉사자의 유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이를 문제로만 인식하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니어 봉사활동에 대한 논의와 기존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 정비 필요

- 일례로 폐자원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 00자원 등으로 칭하는 폐자원 수집 업체에서 무게 당 환산하여 소정의 현금으로 지급받는 노인세대가 지역마다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재조명 등 이미 존재하는 공익 활동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시도 필요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유급 관리원에 의한 분리수거 및 배출이 일반화 된 반면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의 주택가에서는 세대 단위의 분리배출 의무화와 함께 상기의 폐자원을 수거해가는 노인세대가 자원순환과 관련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중

○ 기대효과

- 개인적 비용을 실비 지급함으로써 봉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봉사자 확보 및 관리에 유리
- 성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특히 지역화폐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 기여
-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유대감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ESG 철학 구현에 양호한 환경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와 1365포털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의 역할 확대

○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활용 방안 모색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임
 -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과 함께 제공하며, 답례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농수산물, 공산품, 문화상품 등이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제공됨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사용 방안

-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모집·운영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의 용처에 사용가능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지원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만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계획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반영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서 사용 가능 목적에 대해 제2항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 사례

- 일본 고향납세는 답례품 제공형과 클라우드 펀딩형으로 나뉘고, 기부금의 용도 선택도 가능함
 -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사례로 일본 기후현 나카쓰가와시는 에도시대 유적 가옥의 보수 비용을 펀딩 방식으로 마련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유적 관리 및 가이드 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함



〈그림 7-22〉 일본 기후현 고건축물에 대한 자원봉사 활용 사례

- 제주도는 자원봉사자, 관광객, 도민이 제주 해안변을 걸으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해변보명 줍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남방큰돌고래 같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청정한 바다를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안을 구상함



〈그림 7-23〉 제주더큰내일센터 주관 플로깅 행사 사례

- 고향사랑e음에 새로 게시된 옥천군 답례품 중 '찾아가는 고향마을 축제·자원봉사'가 있는데, 포인트 가격이 무려 150만 포인트임. 500만원을 기부해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품목이며, 기부자가 원하는 동네를 지정하면 해당 마을에서 축제를 열거나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임

○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자원봉사의 연계

- 현재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단순한 답례품 지급을 넘어 자원봉사와 연계해 지역 활력 증진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중임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원 자원 펀드)

자원봉사 활동 단체를 육성해, 시민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미에현 카메야마시



자원 봉사자 등의 시민 활동의 지원

자원봉사 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민 공익 활동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 감사의 물건을 희망하시는 분의 기부금의 일부는, 감사의 물건에 관한하는 경비에 상당하고, 나머지를 지정해 주신 사용도에 활용하겠습니다.

>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



자원봉사 지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 만들기를 지원하는 「시민 협동 추진 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시민 활동 추진 사업 보조금 등

> 도지기현 오야마시



5.협동의 마을 만들기(자원봉사·NPO)의 추진을 위한 사업

> 후쿠오카현 미야야초

〈그림 7-24〉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자원봉사 사례

출처 : 후루사토 초이스, <https://www.furusato-tax.jp/>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형과 자원봉사 연계의 한계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용자가 지역을 선택하고 기부 의사를 밝힐 때만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다른 지역의 사업과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대부분 답례품이란 물품 지급 형태로만 이뤄져, 단순히 재정 지원 및 협력 형태만을 띄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관계인구 형성에 기여하려면 자원봉사와 연계해 관계를 만

들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해야 함



〈그림 7-25〉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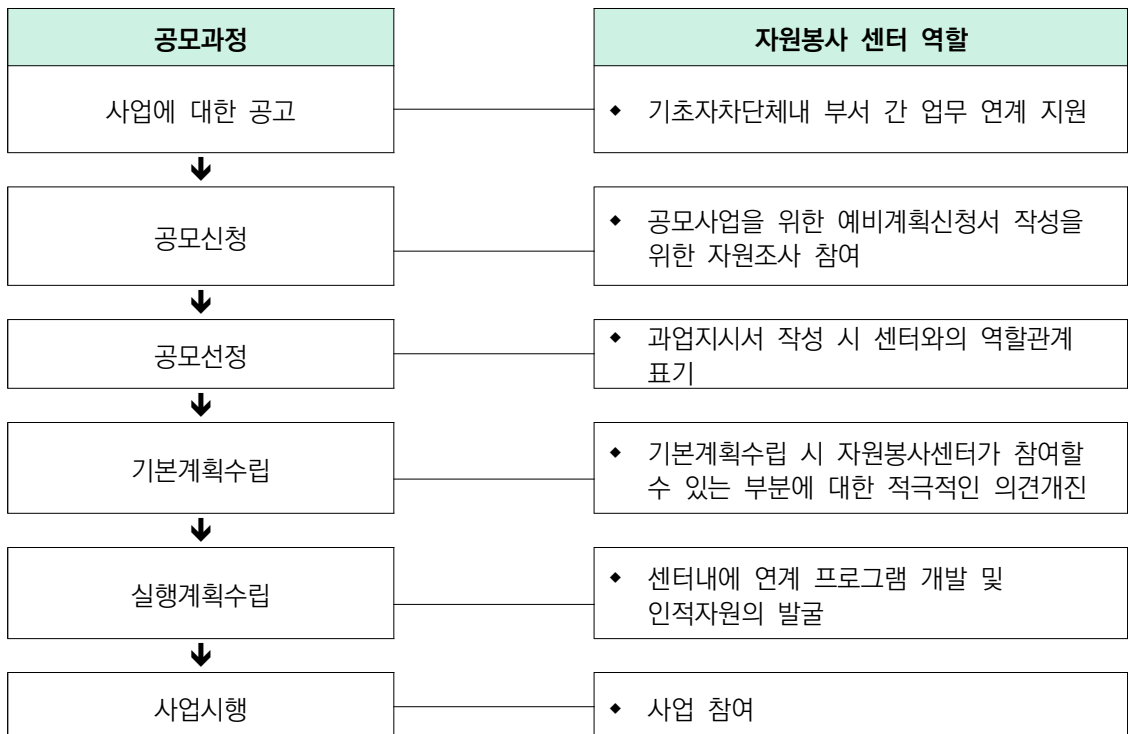
〈그림 7-26〉 1365포털의 봉사참여 웹페이지 현황

○ 1365포털 개선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연계성 확보 제언

- 1365포털은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과 1365기부포털로 구분해 운영 중임
- 1365포털은 ‘봉사참여’ 카테고리에서 개인봉사(시간인증봉사, 활동인증봉사), 기업·단체봉사 등으로 구성
- ‘봉사지역’, ‘봉사분야’, ‘활동구분’, ‘봉사대상’, ‘모집상태’로 구분해 참가자의 수요에 따라 간단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를 활용해 1365포털과 고향사랑e음이 상호 연동되도록 해 자원봉사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등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개편이 이뤄져야 함
-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자세한 사항은 1365포털과 연동되도록 설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활용 방안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타 부처 사업과 연계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방안

-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협약 필요
 - 부처별 사업의 주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지자체는 참여신청서 또는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대응하며 선정이후에는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됨
-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방안 구축 필요
 -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 과정부터는 주로 용역의 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부서간 또는 부서와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 반기별로 본 보고서에서 소개된 사업의 공모를 대응하는 부서들과 공모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공모단계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거나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수립시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설계 및 역할 부여 등을 수록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함



〈그림 7-24〉 타 부처 사업 연계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관한 프로세스

■ 참고문헌

- 강대선·권혁창·오영란(2021). “지역사회복지조직 자원봉사자의 동기유형, 자원봉사활동만족도, 사회자본 간의 영향 관계 : 진주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7(1). pp.137-175
- 강철희·유재운·박소현(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합적으로 참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pp.273-298
- 강효민·박창범(2019).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직무형태에 따른 직무전문성과 재참여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7. pp.67-79
- 광주전남연구원(2018). “빛가람혁신도시 성장과 과제”
-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018)
- 김남혜(2020).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환·박찬민·김하니(2019).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올림픽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4(1). pp.96-111
- 김성희·김유경(2010).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기 요인과 가족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pp.21-38
- 김원준(2022).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202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2). pp.773-788
- 김진원·이금룡(2021).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원봉사학회. 2(1). pp.5-25
- 김태룡·안희정(2009).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pp.197-218
- 김희영(2021). “노인의 라이프케어와 웰니스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5(3). pp.269-278
- 마영배(2023). “디지털전환 중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장국·석강훈(2019). “스포츠이벤트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 17(3). pp.141-151
- 오영란·강대선·권혁창(2020). “자원봉사서비스 질이 이용자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질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9(2). pp.57-95

- 우정자(201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pp.335-363
- 윤남교·조성제(2020).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지속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6(7). pp.105-114
- 이금룡·김진원(2019). “노인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역량에 관한 지역사회 소속감 매개효과 연구: 보건복지부 노인전문자원봉사 지원사업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39(1). pp.73-92
- 이관희·최병대(2014).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평가’를 위한 모델 구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pp.219-243
- 이명신·이재현·김승영(2021). “서대문구 자원봉사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대문구청
- 이소영·이연규(2019).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와 자원봉사 만족도가 자원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자원봉사자 중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9). pp.257-269
- 이종화·정진경(2022). “타인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가? - 대상별 신뢰 수준의 차별적 영향력 탐색”. 한국사회복지학회. 74(3). pp.229-253
- 이철선 외(2016).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형석·권홍임·김현이(2021).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회사의 배려와 자원봉사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5). pp.491-504
- 이향승(2019). “청소년 자원봉사 경험과 이타성, 긍정정서, 자존감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14)
- 정희선(2021).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현재와 대응 전략”. 한국자원봉사문화 정책저널. 20
- 조태영·오정학(2019). “축제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및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 2017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대상”. 한국관광연구학회. 33(11). pp.59-70
- 최상미·신경희·이혜림(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최유리(2019). “전주시 은퇴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장원(201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자기확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9(2). pp.241-259
- 최준규 외(2022).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 한상일·박주희·유한나(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동체

-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 pp.161-196
- 한정희(2019).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을 매개변수로”.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
- 행정안전부(201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 행정안전부(20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 행정안전부(202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센터(2022). “자원봉사센터현황(통계편)”
- 현안나(201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교급차이”. 한국청소년학회. 26(4). pp.409-437
- 황영호 외(2019). “중기 해외 자원봉사관광에 참여한 대학생의 심리적 계약 위반 지각과 정서적·행동적 반응”. 대한관광경영학회. 34(6). pp.62-91
- AmeriCorps (<https://americorps.gov>)
- Bandura A., & Walters R. H.(1977). “*Social Learning Theory(vol.1)*”.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Knowless M. S.(1972). “Motivation in Volunteerism: Synopsis of a Theory”.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2). pp.27-29
- Phillip, S., Hunter, C., & Blackstock, K. (2010). A typology for defining agritourism. *Tourism Management*, 31(6), 754-758
-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OOF): A neglected aspect of farm tourism in New Zealand.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9 (2), 111-127
- Ord, C., & Amer, J. (2010). Contribution of volunteer tourism to organic farms: An analysis of the WWOOF exchange in Canada. *International Ecotourism Club*
- UNV(2011).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United Nations Volunteer
- Yamamoto(2014).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WWOOF) in the United States: locations and motivations of volunteer tourism host farm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 WWOOF NET (<https://wwoof.net>)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9%A9%EA%B8%88%EB%A7%88%EC%B0%A8#s-2>)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syk2229/22206966753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3698&cid=40942&categoryId=31821>)

롱블랙(2023.6.1.) “미라이 편의점: 소멸되던 마을의 폐교, 세상 가장 아름다운 편의점이 되다”

우프코리아(<https://woofkorea.org/>)

유튜브(https://youtu.be/95CTmjM1P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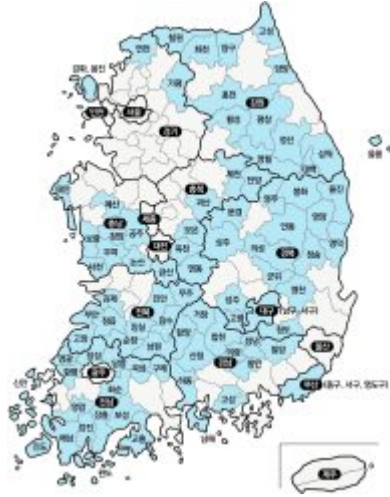
한국농업신문(2023.7.13.) “국민 절반 '고령화, 일손부족' 농촌 가장 큰 문제 인식”

부록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질문지

■ 조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은 매년 증가(05년 33개→21년 89개)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가 50.4%를 차지하는 등 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89개))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구 감소를 가속화함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원 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정책 방향 및 실험적인 자원봉사 모델의 개발

■ 연구의 방향

-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생활환경 등의 개선 방향
- 관광, 생활권 공유 등의 지역 간 연대 노력 등을 통한 관계 인구 형성과 지역 활성화 방안
- 지역 활력의 증점과 이러한 노력의 거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제시

■ 진행방식

-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권역별 자원봉사센터의 이해관계자 참여
- 대상인원 : 5~6명 (연구진 및 중앙센터 관계자는 인원에서 제외)
- 장소 :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일원
- 주요논의 :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필요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구축 모델의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논의 방식 : 사전 질문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질의 응답

(지방의 인구감소와 자원봉사 영향)

- 1)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직면하는 사업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일까요?
- 2)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과 네트워크)

- 3)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이 내세울 만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명한 특산물, 관광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 등
- 4)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갖는 지역 안팎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5)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6)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 역량과 각 역량별 현재 센터의 수준을 제시해주세요.
 - 인적 지원 / 물적 지원 / 체계(지역사업 추진 노하우 공유, 인적 네트워크 지원 등) 등



- 7)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속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현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해당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하고 있습니까?
- 8)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지자체의 지역 활력 증진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참여 의지와 역량)

9) 귀 센터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협업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10) 2024년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참여 의향 있을까요?

10-1) 체류형 볼런투어

볼런투어는 자원활동을 뜻하는 'Volunteer'와 여행의 'Tour'가 합쳐진 단어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여행 혹은 프로그램'을 의미함

10-2) 관계인구 촉진 프로그램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관계망 확대를 통한 자원조사 역량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안)

11) 귀하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아니고 유관 기관 및 단체라면 함께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만약, 참여와 협력의 의향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 인적, 물적 등의 자원이나 지원 방안 등

12)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내 협력 기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기타)

13)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시 개선 과제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성별	남 / 여	연령	만()세
소속		직위	
현 직장 재직기간	()년 ()개월	총 경력	()년 ()개월

연구기관 _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책임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공동연구 박수진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양동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문요한 스페이스 모 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이메일 kicsd.re.kr@gmail.com 홈페이지 www.kicsd.re.kr



**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혁신모델
개발 연구**